

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  
협력연구과제

arts change the world

# 국내의

##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2008. 12

##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2008년 12월 인쇄

2008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0번지

전화 02-760-4500, 4600

팩스 02-760-4709

홈페이지 [www.arko.or.kr](http://www.arko.or.kr)

메일 [arko@arko.or.kr](mailto:arko@arko.or.kr)

이 보고서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진

연구총괄 및 책임연구원

: 황진수(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실 책임전문위원)

보조연구원 : 김기리나(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연구 협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다원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

전문가자문 : 정재원(창동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매니저)

박석윤(창문아트센터 대표)

오세형(경기문화재단 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담당)

박신의(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경희대 교수)

김찬동(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전시나눔 사업국장)

2008년 12월 일

#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개요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21
	3. 연구범위와 방법	22
제2장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전략목표 및 지원 현황	
	제1절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현황	25
	1. 예술위원회 이전 현황	25
	2. 국제교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6
	제2절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의 전략목표	29
	제3절 :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현황	32
	1. 레지던스 개념	32
	2.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괄	44
제3장	국제레지던스 사업의 쟁점과 현황분석	
	제1절 : 국제레지던스 사업의 쟁점	75
	제2절 :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 현황	82
	1.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 개괄	82
	2. 국제레지던스 지원신청사업 현황	84
	3.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 수행현황	106

제3절 : 해외레지던스 지원사업 현황	123
1.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123
2.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외레지던스 지원	131
제4절 : 예술위원회 창작스튜디오 관련 사업현황	137
1. 문학집필실 지원사업	137
2. 시각예술 기획사업 발굴지원 사업	138
3.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사업	142
제5절 :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 성과와 문제점	144
제4장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146
제1절 : 국제레지던스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략	147
1. 거시적 관점	147
2. 미시적 관점	150
제5장   결론	161
참고문헌	169

## 제1절 연구개요

## 1. 연구배경

오늘날 한국 사회는 세계의 중심 무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과 방송 또는 직접 교류와 관광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다. 빠른 교통수단, 혁신적인 방송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국제사회는 낮과 밤을 잊은 채 24시간 현장의 영상과 소리를 생생하게 주고받는다.

그야말로 우리는 비즈니스나 관광을 위해서 혹은 정치경제적 국제 협력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한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문화적 감수성이 탁월한 예술가들이야말로 오늘 날 국경이동의 중심에 선 ‘선구자적 유목민’들이다.

더구나, 이제 한 국가나 사회 번영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문화적 역량을 통해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시대인 21세기가, ‘예술과 문화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20세기의 예언을 점점 더 증명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예술가’는 유래 없는 세기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과거 국가와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국제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다양한 민간 중심의 개별적인 교류들에 의하여 새로운 문화 변동과 창조가 진행되는 시대로 이끌고 있다. 국경 없는 시대에 상호간 문화 교류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의 여지를 줄여 나가며, 상호 상생하는 관계를 촉진 시킨다.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는 좀 더 도전적이다. 국제사회는 과거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제를 뒤이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가 통상관계의 기본이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다자간 협상을 위한 도하개발어젠다(DDA)<sup>1)</sup>가 출범 하였으나, 지역주의와 개별 FTA경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더욱이 2003년 9월 칸쿤 WTO 각료회의에서 다자간 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sup>2)</sup> 현재 발효 중인

1) 외교통상부 내부자료(<http://www.mofat.go.kr/>),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는 2001년 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일컫으며,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가 명칭에 포함됨.

194개의 지역협정의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6개, 70년대 10개, 80년대 9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6개, 2000년 이후 103개가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sup>3)</sup>

한편, 우리는 대외무역이 GN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2008년 4월,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하여 그간의 한-칠레, 한-싱가포르 등과 같이 최소단위의 지역경제통합과 더불어 한-EU(유럽국가연합), 한-인도, 한-캐나다, 한-멕시코, 한-ASEAN(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한-GCC(걸프협력회의) 등의 FTA협정이 논의 진행 중<sup>4)</sup>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흐름은 개별적 FTA 체제, 지역경제권 통합 확대, 경제 개방 확대 요구가 대세이며, 이러한 신 자유주의적 경향 속에서 남북관계와 한-중-일-미관계, 동북아 지역협력관계 강화, 지자체의 국제교류정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최근 미국 발 세계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자유주의 경제 기조의 기본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는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아, 한 국가의 경제 문제로서만 남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간 상호 협력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반면, 문화계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획일화된 서구중심의 상업적 문화를 경계하고, 문화다양성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세계의 문화 존중, 고유문화정체성 존중 등을 논의의 중심으로 잡고 있다. 더불어 문화외교로서의 한류, 동북아 중심의 문화동반자 개념의 도입 등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문화적 협력의 시대를 적극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환경적 변화 속에서 우리 시대 문화의 교류는 과거의 일방적인 국가 선전이나 해외 파견의 형태가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된다. 주요한 문화적 인물의 초청 및 상호 방문에서부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와 예술 행정가들의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상 정보 교류 네트워크의 활성화, 예술

2) <http://fta.customs.go.kr/>

3) <http://www.wto.org/>

4) 외교통상부, 2008.2.28, 김한수 FTA추진단장 내외신 브리핑 자료 중 일부

“개방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FTA는 국부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 인만큼 새 정부 하에서도 FTA는 가장 중요한 통상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중략... 추진 전략 측면에서는 첫째로는 거대 경제선진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 및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둘째로는 차세대 세계경제의 주도 예상국가와의 FTA 추진을 통해서 유망시장의 선점을 도모 하고, 셋째로는 대륙별 주요 거점, 또는 주요한 자원부국들과의 FTA 추진을 통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는 소위 삼각편대 식 접근을 추진할 계획”

또한, FTA포털([fta.customs.go.kr](http://fta.customs.go.kr/))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의 FTA가 발효 중인 대상국은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1발효) 14개국이며, 미국과는 FTA 협상을 타결(07.4월)하였고, 현재 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함.



창작 집단 혹은 개인 간 협업 작업과 워크숍, 그리고 공동제작방식의 활용, 그리고 더 나아가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국제예술위원회및문화기구연합) 등 국제간 협력기구를 통해 세계적 변화 현상에 대한 문화적 담론의 형성과 소통 등,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개인과 조직, 지역의 단위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우수한 타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관광이나 국제교류 사업의 주요 내용이었으나, 최근엔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이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진주남강유등축제' 기간에 일본, 미국 등 해외의 단체 관광객까지 포함하여 약 316만 명의 관광객들이 진주를 방문하여, 약 1,225억원에 달하는 지역 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렸다고 한다.<sup>5)</sup>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심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동반자사업이나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등 국내 중심의 국제적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2005년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였다. 예술위원회는 그 설립취지를 '훌륭한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에 바탕 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요약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문화예술교류를 통해 예술이 가지는 문화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나, 상호 문화 간의 이해, 그리고 새로운 문화 창조의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국제문화교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예술을 통한 창의적 사회, 성숙한 사회, 그리고 열린사회 구현'이라는 예술위원회의 설립 비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 더 이상 고립된 혼자서 살아 갈 수 없는 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적 작업을 통해 우리는 더욱 창의적인 예술가들을 배출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는 이들을 통해 창의적인 사회로 활기차며 풍요로워진다. 나와 다른 남의 문화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은 열린사회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가치들로 인해 예술위원회는 '국제교류'사업을 문예진흥기금 4대 핵심역량사업 중 중요한 하나로 채택하여 특히 강조하고 있다.

5) 「문화일보」, '남강유등축제 관광객 316만명 '대박'', 김기현 기자, , 2008.10.21.

예술위원회는 전신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시절부터 오랫동안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과 교류를 후원해 왔다. 이로써 세계의 역동적인 예술 창작 현장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고 국제사회 문화변동을 감지하며, 특히 뛰어난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진 우리시대의 예술가들이 이러한 변화들을 누구보다도 앞서 체감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국내의 예술계를 이끌고 있는 현장 예술가들의 예술 활동에 있어 두드러지는 현상들은 ‘예술가들의 유목성’과 각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도전적인 예술가들은 한 국가나 문화권에 머무르지 않고 타 국가나 문화권을 떠돌며 다양한 문화체험 속에서 창작 작업을 지속해 나간다. 구미 서양에서는 ‘레지던스’ 개념이 생소한 것이 전혀 아니며, 역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지금까지도 예술가들의 주요한 창작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실, 예술가들에게 있어 ‘레지던스’ 혹은 ‘창작 거주 공간’은 예술가 자신의 존재 조건과 분리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이자 작업공간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레지던스 공간과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은 이미 많이 있으며, 예술위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신진 예술가와 중견예술가를 중심으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여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런 맥락 하에 2004년 당시 정부의 ‘새 예술정책’이 발표되고 예술 현장의 전문가들에 의한 자율기구로 새롭게 탄생한 예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국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적 레지던스’를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예술위원회는 2006년부터 국내에서 운영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그간 예술위원회 내외부에서는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당초 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 본격적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실제로 국내외 예술계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두드러진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오래 전부터 국내 예술가들을 해외 유수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성과를 거둔 반면에, 정작 자국에서는 이러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국내에는 왜 해외의 예술가들이 앞을 다투어 선호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없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새롭게 탄생한 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로 보아, 기존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그 성과는 어떠하며,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당초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고, 이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결국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 레지던스’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더 나은 지원방식, 더욱 효과적인 사업 수행방식들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된 것이다.

## 2. 연구목적

최근 국내에서도 예술 창작의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창작스튜디오, 폐교 등을 중심으로 한 ‘레지던스’ 공간 운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레지던스’의 개념에 대한 혼선, 재정적 운영 여건의 어려움, 전문 운영 인력의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6)</sup>

예술가들의 현실적인 삶과 창작 작업의 기반이 되는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와 국제 교류의 실질적인 장이 되고 있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간의 연계 효과가 국내 예술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예술 창작 작업 공간과 각각의 목적하는 바가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 레지던스’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들 공간과 프로그램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술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현황과 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국내에서도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국제 레지던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기(2005/2006)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2007, pp.317~342

### 3.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가설을 개발하거나 학술적 이론을 제시, 정립 하는 등 순수 학문적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술위원회 중장기 비전속에서 국제교류사업의 의의 및 사업 운영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써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특히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현황들을 조사, 분석한다.

또한, ‘레지던스’ 자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기 위해 레지던스 개념과 역사, 그리고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검토된 ‘레지던스’ 현황을 바탕으로 국내의 ‘레지던스’ 운영 상 문제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예술위원회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 사업과 지원 대상 사업들의 사업 목적, 입주 작가 선발방식, 프로그램 현황, 기간과 거주 장소, 사업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 한다. 이를 통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위원회의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 레지던스’ 운영 실태분석을 위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혹은 ‘창작 예술촌’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그 핵심적인 연구범위는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공간인 ‘창작스튜디오’가 시각예술분야에 치중해 있음을 고려하여, 문학의 ‘창작 집필실’, 공연예술분야의 ‘창작 작업실’도 ‘창작스튜디오’ 개념에 포괄하여 다루기로 한다. 왜냐하면 ‘스튜디오’ 개념은 시각예술의 아틀리에와 공연예술가의 작업실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굳이 시각예술분야의 용어로 한정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각예술분야에 비교해 볼 때, 문학이나 공연예술 분야를 위해 국내에서 운영되는 레지던스 성격의 예술창작공간이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여 주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각예술과 타 장르 예술 간에는 장르별 특성이 강하게 구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추후에 장르 구분에 따른 레지던스 공간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여지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 연구는 주로 관련 선행 연구조사와 문헌 조사, 그리고 예술위원회 내부의 사업

운영실적, 위원회 및 소위원회 토론 등 관련 내부 자료, 지원 신청 단체의 지원 신청서와 성과보고서 등을 기초로 하였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자문,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관계자 인터뷰,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는 예술가들에 대한 인터뷰 및 예술위원회 사업 실무 팀, 실무 담당자들과의 토론 및 자문 등 논의와 협력을 거쳐 수행하였다.

## 제2장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전략 목표 및 지원 현황

제1절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사업 현황

1. 예술위원회 이전 현황
2. 국제교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의 전략목표

제3절 :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현황

1. 레지던스 개념
2.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괄

## 제1절.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현황

## 1. 예술위원회 이전 현황

예술위원회의 전신인 문예진흥원은 1973년 국가적 차원의 공공 문화예술지원기구로는 처음으로 설립된 전문적인 예술지원기구이다. 문예진흥원은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을 여러 문화예술지원사업들 중 핵심 사업의 하나로 채택하여, 주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적 예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문예진흥원 시절의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은 크게 ‘한국문화의 해외소개’와 ‘국가간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문예진흥원의 개원 초창기만 해도 ‘해외 문예인 및 기술인 초청 사업’과 ‘국제 문화예술기구 지원’ 사업 등 단순한 교류 사업이 중심이 되었으나,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은 나날이 국제화되어가는 세계적 변화에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 문화 세계화 전략의 한 방편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동서 냉전 붕괴, 민주주의의 부활 등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맞게 되는 1980~90년대 전후,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예술 국제교류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문예진흥원 시절의 대표적인 한국문화 해외소개 사업들로는 한국문학번역출판사업(1980~2001), 외국 저명 문인초청 및 해외 방문 연구 활동 지원 사업(1993~1997), 한국문학국제세미나 개최 지원 사업(1994~1997, 1999), 한국문학번역상 시상 사업, 신진번역인력 연구 연수사업, 한국문화예술소개자료 해외배포사업, 한국미술소개자료 해외배포, 한국문학번역국제세미나 개최지원, 한국문화해외소개사업, 한국문학 해외소개 정보지발간지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지원, 인사교류, 한국문학번역금고지원, 번역홍보지원 사업 등이 있었다. 주로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문화를 해외로 소개하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미술 등 타 분야 또한 마찬가지였으나,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문예인 해외연수, 문화기관종사자 해외연수, 무대예술인 해외연수, 국제문화행사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전시교류활동, 공연교류활동,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P.S.1)한국작가 파견, 국제창작프로그램(IWP) 한국작가 참가지원 등이 있었으며, 재외동포 문화예술 교류지원, 국제문



화예술기구지원, 주요계기문화예술교류지원, 해외주요문화기관 교류 및 기획조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 외국소장 한국도서조사 및 영인, 문인해외시찰지원, '92바르셀로나 올림픽계기 문화사절단 유럽공연, 기타 국가 간 문화공동추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당시 국제교류협력사업은 국내 예술가들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나 해외 창작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이 중심이었다.

레지던스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업은 '국제창작프로그램 참가사업'<sup>7)</sup>으로써 당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작가들이 해외 유수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공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아이오와 국제창작프로그램(IWP)은 세계 각국의 문인들이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창작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문예진흥원은 이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통해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자 우수한 작가를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이 사업은 문예진흥원의 연속선상에 있는 예술위원회의 첫 '레지던스' 관련 사업으로 기록될 수 있다.

## 2. 국제교류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2005년 8월, 예술위원회 출범이후 제1기 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들은 예술위원회의 중·단기 전략계획인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고, 과거 문예진흥원 시절의 여러 사업 현황, 성과 및 문제점들을 평가, 검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제1기 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원 시절의 국제교류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크게 13가지 정도로 지적하였다.<sup>8)</sup>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을 '전략적 문화교류에 대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정책 수립의 미흡'으로 손꼽고 있다. 즉, 문예진흥원 시절 국제교류사업은 다른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문화예술교류에 대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정책이 부족하였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국내 문화예술기관 및 정부 기구들과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문제점' 및 '해외 문화예술국제기구들과의 교류 및 협력 부족'을 언급하면서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예진흥원 자료집 1989』에 따르면 1983년 12월 23일부터 1984년 1월 23일까지 김윤식 교수가 '아이오와대학교 국제창작프로그램 참가제'로 기록되어 있어, 이 사업은 1983년 이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단기 전략계획 :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ARKO-비전-2010)」, 2006, p.92

통일부 및 국제교류재단 등 문화예술국제교류 관련 주요 부처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논의가 부족하여, 각각의 정책 집행에 있어 중복이나 비효율성을 피하기 어렵고 통합적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과 '해외 문화예술위원회나 관련 기구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정보의 교환 혹은 기금의 공유를 기대하기 어려움', '해외의 경우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공동기획 및 제작 등을 통한 창작 및 제작 공정 전반의 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특정수요 발생 시 임시적 대처로 네트워크 및 장기적인 전문인 교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구미 위주의 편중된 교류지원 및 일방적 문화소개'라는 비판과 함께 '권역별, 계층별, 연령별 문화교류 대상에 대한 목표'의 부족을 질타하고 '교류 방식 및 전략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제3세계 등 교류 대상국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금사업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손꼽고 있는 것은 '공모 위주의 지원금 단순 배분 방식으로 인해,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간의 파트너십 모색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과 공동제작 등의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과 '공모사업 이외의 새롭고 특화된 프로그램의 자체 기획 및 발굴 지원이 미흡하므로, 별도의 자체 기획이나 계기성 사업에 대한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해연도 지원에 따른 단기성 지원의 한계'와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부족'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 현재 미국 IWP 문학 창작 레지던스, 독일 베타니엔 스튜디오와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에 한정된 국제적 협력을 통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교류를 확대하여 좀 더 안정적인 레지던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다양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신청 시기가 서로 다름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위해, 공모시기에 관계없이 우수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 지원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인 '국내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및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합하여 하나의 자체 기획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지적들의 핵심인 '전략적인 국제교류' 사업 수행을 위해 근본적인 요건인 예술위원회 국제교류 부서의 조직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9월, 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을 전담하는 곳은 사무처장 아래 예술위원회 예술지원컨설팅센터(실 단위)의 한 부서인 국제교류팀이다. 정식 직원은 팀장을 포함하여 현재 2명<sup>9)</sup>이다.

9) 2008년 10월 현재, 예술위원회 정규직 119명 중 국제교류팀 담당 직원은 팀장 1명, 담당자 1명(휴직자 제외).

이마저도 예술위원회 내 기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내, 외부 사정 등으로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을 통해 담당 직원이 자주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sup>10)</sup> 세계 약 50여 개 국 이상을 교류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에서 국제교류창구역할을 맡을 전담 부서와 전문 직원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창구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의 전략 부재를 논하기 이전에 국제교류 사업부서의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문제점 중 으뜸은 국제교류사업이 국가를 대표하는 민간전문예술지원기구로서의 예술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역할이자, 예술위원회의 핵심전략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 뒷받침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10) 2006~2007년 해외 레지던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2008년 설문 조사에서 “해당 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어려움”

## 제2절.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의 전략목표

제1기 예술위원회는 과거 문예진흥원 국제교류지원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크게 다섯 가지의 새로운 국제교류사업의 비전을 제시하였다.<sup>11)</sup>

- 첫째, 국제교류를 통한 창의적 개인으로서의 예술가의 창작활동 개발을 제고하기 위해 작가 체험 및 교류에 대한 강조
- 둘째,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통한 한국 예술의 국제성 제고
- 셋째, 예술교류를 통한 세계 시민 정신 및 문화적 관용의 실현
- 넷째, 문화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국제교류의 실천
- 다섯째, 문화공동체로서의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교류 및 통일 환경 조성

이들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 ‘국제교류의 장기적, 전략적, 체계적 정책의 정립’을 손꼽고 ‘쌍방향성 교류를 통한 문화다양성의 접근 실현’, ‘전문 네트워크 형성 및 파트너십 구축 지원’, ‘국제협력의 창의적 공정의 강화’, ‘국제교류를 위한 아카이브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조하였다.

국제교류사업의 핵심과제로써 ‘국제 예술교류 프로젝트의 다각화’, ‘국제 예술교류 기반의 선진화’,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기반 구축’을 선정하는 등, 이 같은 논의들을 토대로 2007년 예술위원회는 중기 경영목표(2008년~2010년)<sup>12)</sup>를 수립하고, 국제교류 사업 목표의 실천을 위한 추진 사업을 크게 ‘국제예술교류지원’과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동 사업들의 성과목표를 ‘국제예술교류 프로젝트의 다각화’,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교류 확대’, ‘국제예술교류 기반의 선진화’로 삼고 몇 가지 주요한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 첫째, 한국 문화에 대한 일회적인 사업 소개에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의 중심을 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초예술분야의 한류확산 모색
- 둘째, 일반 공모지원 중심에서 점차 탈피하여 기획성을 가미한 지원 사업을 병행추진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단기 전략계획 :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ARKO-비전-2010)」, 2006 p.97

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기 경영목표(2008~2010)」, 2007, pp52~55

셋째, 소액지원사업을 지양하고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지원사업 효과 극대화 넷째, 해외 레지던스 파견지원 등 지원유형의 세분화를 통해 현장 요구에 보다 다가가는 예술지원 행정 구축

다섯째, 재외동포와의 단발성 교류 위주에서 현지에 체류하면서 장기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

여섯째, 해외 주요 문화기관과의 인적 및 사업교류 확대를 통한 예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일곱째, 2006년 국제문화기구협의체(IFACCA) 가입으로 인하여 다각화된 문화교류 기관을 확보함에 따라 문화권역별 특화된 문화교류 추진

여덟째, 해외 문화예술현장을 조사연구하고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내 문화예술 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그리고 그동안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개선 추진’, ‘특화된 맞춤형 사업 지속 개발’, ‘관련 기관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상의 중기 조직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2008년 예술위원회<sup>13)</sup>는 ‘예술의 국제교류 협력증진’이라는 성과목표를 위하여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에 4,075,975,000원,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사업에 1,058,549,000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구체적인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을 다시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사업과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팀에서는 구체적인 중점 사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발전을 도모

- 중국문련, 몽골 예술위원회 (싱가폴예술위원회, 프랑스 문화통신부, 호주예술위원회) 등

둘째, IFACCA 아시안 분과회의 개최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해외 네트워크 발전을 도모

셋째, 해외통신원제도 운영을 개시, 국내 문화예술기관(단체)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사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교류사업 활성화에 기여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계획」, 내부자료, 2008, pp218~232

넷째,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단순 지원사업에서 준 기획성 지원사업으로 사업구조를 개선, 국제교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국내 레지던스 프로그램 ('08년 연구를 통해, '09년부터 개선 추진)

다섯째, 외교부등 문화예술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예술위원회 국제 교류 사업의 발전 도모 등이다.

이러한 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의의와 목적, 과거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비전과 실천방향 등을 바탕으로 예술위원회의 '레지던스' 관련 사업들과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의의와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의 발전 방안 등을 고찰하도록 한다.

## 제3장

### 국제레지던스 사업의 쟁점 과 현황 분석

- 제1절 : 국제레지던스 사업의 쟁점
- 제2절 :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현황
- 제3절 : 해외레지던스 지원사업현황
- 제4절 : 예술위원회 창작스튜디오 관련 사업현황
- 제5절 :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 성과와 문제점

## 제3절.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현황

## 1. 레지던스의 개념

## 가. 레지던스(Artist-in-Residence) 개념

국내의 레지던스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 논문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유사 개념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장르에 따라 레지던스 개념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가능하나, 레지던스와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사실, 국제적으로도 레지던스의 개념과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레지던스’와 ‘창작스튜디오’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술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보고서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2004)’에서도 미술창작스튜디오를 “작가들에게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기숙사를 겸비한 아카데미<sup>14)</sup>”이자, “작가들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창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작가들이 마음 놓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sup>15)</sup>”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창작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작가에게 작업공간과 작품제작을 지원하는 공간’을 뜻하나, ‘레지던스’의 개념에는 ‘창작스튜디오’처럼 창작 작업 공간의 개념에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는 ‘거주(Residence)’개념이 강조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 AAC(예술가커뮤니티연대, 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sup>16)</sup>에서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스(Artists Residencies)를 ‘Artists’ Community(예술가커뮤니티), “Artists’ retreats(예술가 휴양소), ‘Artists’ workspaces(예술가 작업실), ‘Artists’ studio collectives(예술가 스튜디오 집합체),’등과 동일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 곳에서

14) 양건열 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4, p. ii

15) 같은 책, p.12.

16) <http://www.artistcommunities.org/about-residencies>

“Artists residencies ... provide dedicated time and space for creative work. Beyond this core value, these creative communities are a diverse group, and provide artists with many different styles and models of support.”



는 레지던스를 “창작 작업을 위한 헌신적인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로 여러 가지 지원 형태와 모델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여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제도적,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sup>17)</sup>에서는 ‘레지던스(Artists-in-Residence)’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백과사전은 레지던스가 “레지던스 공간을 방문하는 예술가들에게 소위 ‘순수예술창작’을 위하여 머물고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가들에게 창작정신을 고무시키는 다양한 작업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 지역과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제각기 독자적인 역사적, 지리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 동일한 형식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떠한 경우는 시각예술이나, 문학, 음악, 무용, 건축 등 특정 예술장르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거나 이들 장르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 기간 역시 다양한데, 국내의 레지던스의 경우 보통 몇 주간의 프로그램에서부터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치는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운영 채원, 거주 조건, 작업실 조건, 지원신청 및 거주 예술가 선발 절차, 전시나 프로그램 형태등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레지던스’는 프로그램 종료 전에 입주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하거나 오픈 스튜디오 개최, 지역민이나 타 예술가들과의 공동 협력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레지던스’의 근본 취지는 주최자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이 참여 예술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레지던스’를 활용하는 무조건적인 배려에 있다.

또한, 대부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신청 마감일을 두거나, 혹은 연중 모든 국가의 예술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보통 자신의 작업 세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과, 경력사항, 지원동기와 필요시 프로젝트 제안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보통 6개월이나 1년 전에 이러한 선발과정 등이 진행된다.

비록 어떤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전액 주최 측에서 부담하여 참여자가 부담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참여자가 전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도 있는 등, 비용과 관련해서도 다양하다. 일반적인 경우, 주최 측에서 일부의 비용만을 부담하므로, 참여하는 예술가들은 타 후원처를 통해 지원을 받든지 본인이

17) [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Artist-in-residence programs and other residency opportunities allow visiting artists to stay and work 'for art's sake'. These programs offer conditions that are **conducive** to creativity and they provide for working facilities, ready to be used by individual artists.”

부담해야 한다. 서유럽에서는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프로그램(Unesco-Aschberg residency funding scheme)<sup>18)</sup>’과 같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작가에 대한 공공지원프로그램이 있다.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세계 각국의 예술가 레지던스 공간 간 네트워크 역할을 담당하는 Res Artis(국제레지던스센터연합체,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 Arts Centres<sup>19)</sup>)에서는 ‘Artists Residency’ 혹은 ‘Residency Program’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으며, ‘레지던스’를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거주 공간 내에서 일정기간 생활과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공간이며,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연관을 통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타 문화와의 교류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결국 ‘레지던스’의 경우, 초청대상자와 초청자와의 관계도 중요한 측면이 되는 것이다.

‘레지던스’의 운영형태는 주최 측 만큼이나 다양한데, 어떤 경우는 매일 매일 주최 측과의 대화와 강좌에 참여하는 것으로 운영되거나, 혹은 전형적인 예술교육이나 워크숍을 주로 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어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초청예술가들에게 아무런 의무감도 주지 않고 예술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작업에 몰두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청국의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줌으로 인해 장기적인 교류기회로 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역시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의 지원을 받으며 전 세계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Trans Artists<sup>20)</sup>’는 레지던스를 ‘Artist-in-residence’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Artist-in-Resid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8) [portal.unesco.org/culture/](http://portal.unesco.org/culture/)

The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mote the mobility of young artists in order to enrich their personal perspectives, to enable them to engage in an intercultural dialogue and expose them to cultural diversity. The Programme offers residencies to young artists (between 25 and 35 years old) worldwide. It shares many objectives with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which advocates cultural exchanges and highlights creativity and the need for artists to enrich their experience through contact with other cultures.

The UNESCO-Aschberg Bursaries Programme was integrated in UNESCO's strategy in 1994 to [promote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It aims to provide experience to young artists and to help them complete their training in countries other than their own. The artistic disciplines for which the bursaries are awarded are Music, Visual Arts and Creative Writing. These three fields cover artistic specializations that drive the creative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recording industries, the organization of concerts, the audiovisual sector, graphic design and publishing.

19) <http://www.resartis.org/> "Artists residencies invite artists to live and practice their art for a period of time within the residency organization, away from their usual environment. A residency program allows an artist to investigate his/her art practice by involvement in another community. It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meaningful cultural exchange and dialogue with another culture"

20) <http://www.transartists.nl/about/aboutair.html>

대만의 대표적인 국제레지던스 공간인 대만 예술촌(Taipei Artist Village)은 이러한 집단적 예술가 창작 공간을 다소 동양적 개념으로 생각되는 ‘예술촌(藝術村)’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민간단체가 소위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경우 창작마을, 미술스튜디오, 아트스튜디오, 예술인마을, 아뜰리에, 미술창작촌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대부분 ‘거주(Residence)’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처럼, ‘레지던스’ 개념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 공간) 등을 운영하는 초청 주체’가 있고 ‘예술가 등 뚜렷한 초청대상’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예술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창작 작업실’ 내지 ‘창작스튜디오’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이 ‘레지던스’의 기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 나. ‘레지던스’의 역사<sup>21)</sup>

‘레지던스’는 최근에 갑자기 부각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고대로부터 오랜 역사에 걸쳐 동서양을 망라하고 궁정과 사원을 중심으로 예술가 집단에 의한 예술 작품의 제작은 있어왔고, 궁정이나 사원 부속의 ‘공방’ 혹은 ‘아뜰리에’에서 예술가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왕과 제사장의 문화적 수요를 감당해 왔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사를 거슬러 올라가 ‘레지던스’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너무나 벗어나므로 오늘 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레지던스’와 관련된 일련의 현대적 시초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국한 하고자 한다.

현대적 의미로서 ‘레지던스’의 시초를 1666년 프랑스 루이14세가 예술보호책 중 하나로 ‘로마대상<sup>22)</sup>’ 수상자를 이탈리아로 유학 보내, 빌라 메디치에서 5년 간 체제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한 것에서 찾기도 한다.<sup>23)</sup> 이 경우를 통해 배출된 유명 작가로는 구노, 드뷔시, 라벨, 파스칼 보나푸, 다비드 등을 손꼽고 있다. 특히, 다비드는 로마에

21) [http://en.wikipedia.org/wiki/Artist\\_in\\_residence](http://en.wikipedia.org/wiki/Artist_in_residence)

22) 두산백과사전(<http://100.naver.com>)은 로마대상(Grand Prix de Rome)을 “프랑스 예술원이 회화·조각·건축·판화·음악(작곡) 부문에 걸쳐 해마다 콩쿠르를 실시, 1위 입상자에게 수여하는 상” 이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23) 김찬동, ‘국내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미술과 담론』, 2002 여름.

체류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의 영향으로 후에 나폴레옹시대 ‘신고전주의’의 태두가 된다.

신대륙, 미국 역시 현대적 ‘레지던스’의 역사가 짧지는 않다. 미국 내에서 최초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은 1900년 당시 재력가였던 스펜스 트라스크(Spencer Trask)와 그의 아내인 카트리나(Katrina)에 의해 설립되었던 ‘야도 협회(Cooperation of YADDO)<sup>24)</sup>’로 조사 되고 있다. 설립자의 어린 딸이 붙여준 이름인 ‘야도(YADDO)’는 미국 뉴욕 주의 사라토가 스프링(Saratoga Springs) 지역의 약 400 에이커(약 1,618,800m<sup>2</sup> 또는 489,600평) 정도의 방대한 면적을 가진 일종의 ‘예술촌(artists' community)’이었다. 야도의 설립목적은 ‘예술가들에게 아무런 방해됨 없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창조적 작업 과정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였으며, 설립자인 카트리나 역시 이곳 야도에서 시인으로 활동했다.

야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안무, 영화, 문학, 뮤지컬 작곡, 회화, 공연예술, 사진, 판화, 조각, 비디오 등 거의 모든 장르의 예술가들을 국적과 배경을 초월하여 초청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몇 명씩 팀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전문적인 예술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선발하게 된다. 레지던스 기간은 2주일에서 2개월 정도 지속되며, 숙식과 스튜디오가 제공된다.

어린 네 딸의 죽음으로 상속인을 모두 잃은 설립자인 스펜스 트라스크는 자신의 집을 미래의 창조적 예술가들을 위해 뉴욕주 사라토가 스프링에 증여하였고, 그로인한 그가 남긴 문화 예술적 기여는 과히 역사에 기록될 만 하다. 야도에서 작업한 예술가들 중 63명이 풀리처상을 수상하였고, 24명이 맥아더장학생(MacArthur Fellowships)으로, 58명이 국가도서상(National Book Awards)을, 22명이 국가도서비평위원회상(National Book Critics Circle)을, 108명이 로마상(Rome Prizes)을 수상하고, 사울벨로우(Saul Bellow)가 197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 받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업적을 거두었다. 또한 야도에 체재했던 작가들의 많은 책들이 영화화되었으며, 뉴욕필하모닉의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였던 레오나르트 번스테인, 영화 대부분을 각색한 작가 마리오 푸조 등 미국 예술계의 많은 저명인사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미국 내 가장 대표적인 레지던스 중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많은 재능 있고 뛰어난 예술가들이 레지던스 참가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내 또 하나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레지던스는 1902년에 화이트헤드 부부

24) <http://yaddo.org>

(Jane and Ralph Whitehead)가 뉴욕 주의 우드 스타크(Woodstock, New York)부근에 자신의 중간이름을 따서 비르드클리프 콜로니(The Byrdcliffe Colony)<sup>25)</sup>라는 이름으로 설립한 레지던스이다. 19세기 후반, 산업화로 인한 비인간적인 획일화와 표준화에 반하여 일어난 소위 ‘예술과 공예운동(The Arts and Crafts Movement)’의 영향으로 화이트헤드 부부가 예술을 통한 이상주의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설립자는 수년에 걸쳐 회화, 조각, 음악, 금속공예, 가구공예 예술가들이 함께 교류하며 작업하는 공간을 꿈꾸었고, 예술가들과 작가들, 음악가들, 사회개혁론자들, 지식인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함께한 예술가들로부터 영감을 얻었다. 주요 설비로 금속세공, 목공작업, 도자기제작, 직물, 회화 등이 가능한 스튜디오 공간과 숙식이 가능한 오두막집과 도서관을 갖추고, 화이트헤드 가족이 사는 집과 함께 운영되었다.

초기 설립자가 죽고 남은 후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지금까지도 설립자의 의도인 “우드 스타크 레지던스 거주자인 예술가들과 함께 순수예술과 공예, 그리고 진정한 감상을 위한 기술을 연구, 실천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해”<sup>26)</sup> 이 공간을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다. 비록 현대예술의 주목에서는 벗어났는지는 모르나, 당시 교육자인 존 듀이(John Dewey), 작가인 토마스 만(Thomas Mann), 미국 자연주의 작가로 유명한 존 브로우즈(John Burroughs)가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용가 이사도라 덩컨(Isadora Duncan)이 이곳에서 춤을 추었고, 70년대 세계적인 반전가수이자 포크송 싱어송 라이터였던 밥 딜런(Bob Dylan)은 60~70년대에 걸쳐 이곳에 집을 구해 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현재 WBG(Woodstock Byrdcliffe Guild)로 약칭되는 이곳은 교육기능과 전시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술천국, 자연환경, 역사적 지역을 강조하며 우드스탁 지역민에의 예술적 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단체의 재정운영은 기부 및 후원금과 사업수익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 기부 및 후원처는 개인 회원과 개인 증여, 민간 재단의 지원금, 정부기구의 보조금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이고, 자체 수익을 위해 공간 임대, 수업료, 물품 판매 및 티켓 수익금이 있다.

최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곳은 미국 국립공원서비스부(U.S. Department

25) Byrdcliffe Arts Colony, Byrdcliffe Historic District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26) <http://yaddo.org>,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among the residents of Woodstock...the study, practice and development of skill in the fine arts and crafts, as well as a true appreciation thereof...”

of the Interior National Park Service)와 역사보존 국가기금(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과의 협력계획인 미국구제기금(Save America's Treasures)의 투자와 지역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야도(Yaddo)와 우드스탁 길드(Woodstock Guild) 두 곳의 ‘레지던스’는 미국과 유럽 전역에 걸친 20세기 초반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인다. 즉, 야도처럼 예술을 애호하는 부유한 지식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일종의 후원자처럼 개별 초청 예술가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거나, 우드스탁 길드처럼 예술가들에 의해 직접 설립되고 운영되는 일종의 예술촌의 형태가 초기 ‘레지던스’의 전형으로 보는 것이다. 유럽에서 예술촌과 유사한 초기 형태의 ‘레지던스’ 모델은 1889년 하인리히 보겔(Heinrich Vogeler)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 등의 예술가들이 독일 브레멘 근방의 월프스웨데(Worpswede)에 설립한 레지던스로서, 이 곳은 곧 세계적인 이목을 끌게 되어 이곳의 지역이름조차 'Weltdorf'로 바뀌었다고 한다. 1971년 'Künstlerhäuser Worpswede'의 설립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국제 레지던스 센터’로 이름나 있다.

또 다른 유럽의 예는 1951년 영국 요크셔(Yorkshire)의 인쇄업자 피터 그레고리(Peter Gregory)가 설립하여 화가나 조각가, 시인과 음악가들을 리드대학(University of Leeds)에 초청하는 ‘그레고리 장학생(Gregory Fellowship)’ 프로그램이다. 당시 기술교육 중심 대학으로 예술 활동이 극히 부족했던 이 대학이 대학의 인문학적인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예술가들을 초청하였다고 한다. 이 장학제도가 발전되어 초청 예술가들이 대학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레지던스’로 발전하였다.

60년대를 거치면서 ‘레지던스’와 관련해 새로운 변화의 양상이 나타났는데, 한시적 이나마 철저하게 현실세계와 격리되어 자신들만의 이상적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레지던스’의 설립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예술가들의 대중과의 접촉을 강조하고 사회와의 연관성을 맺어 지역과 도시 내 작업 공간을 사회 변화의 기반으로 삼는 ‘레지던스’의 설립이 뒤를 이었는데, 이러한 성격의 ‘레지던스’는 7~80년대를 거쳐 발전하였다. 아마도 정치사회적 시대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 같다.

1990년대 세계화 시대에 이르러, 소위 제3의 물결이 일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른바 ‘레지던스’의 세계적 확산이다. 아시아, 유럽, 남북아메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레지던스’ 공간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현재에도 새로운 ‘레지던스’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각 국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레지던스 협의기구’<sup>27)</sup>도 생겨나 활동

하고 있다.

#### 다. 레지던스 운영 목적에 따른 유형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레지던스’라는 개념을 단순한 거주공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레지던스 공간 등을 운영하는 초청 주체가 예술가 등을 초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예술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의할 때, 레지던스의 운영형태와 내용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더욱 확장되고 다변화된다.

우선, 초청 대상이 되는 예술가들의 지역적 범위가 국내 중심 인가 아니면 국제적 인가에 따라 크게 ‘국내(로컬, local)레지던스’와 ‘국제(인터내셔널, international)레지던스’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국내레지던스’ 유형으로는 이어서 다룰 ‘교류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 ‘지역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곧이어 다룰 ‘창작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국내와 국제 레지던스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레지던스의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 운영 주체인 ‘국립형 레지던스’, 지방정부나 지방재단이 설립 및 운영 주체인 ‘공립형 레지던스’ 그리고 민간단체나 사설 문화 공간 혹은 기업이나 개인이 설립 및 운영 주체인 ‘민간형 레지던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술 장르에 따른 구분도 가능한데 크게 ‘문학 레지던스’, ‘시각예술 레지던스’, ‘공연 예술 레지던스’ 그리고 ‘통합장르형 레지던스’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레지던스’ 공간 자체보다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따른 구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에 따라 ‘창작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교류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4가지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27) 국제적인 레지던스 관련 기구들은 아래처럼 다양하다.

Database on Japanese Artist in Residence Programs, International Network for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LFG Alaskan Artist in Residence Program, WARDLOW Art Residence - Australia, Artists in Residence Switzerland, Res Artis, TransArtists, Palazzo Rinaldi, Artists' Residencies and Retreats in the South of Italy, Foundation Kuenstlerdorf Schoeppingen, Germany, Villa Flora Artist in Residency Program, ARTISTS' COLONY BRANIK - RIHEMBERK, Slovenia, Wentletrap Art International Art Residency



### 1) 창작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대부분의 ‘예술촌’ 혹은 ‘창작스튜디오’의 설립 목적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02년과 2004년에 설립된 국립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나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공립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와 영천의 미술창작스튜디오 역시 당초 ‘창작스튜디오’의 설립 취지는 기본적으로 작가의 창작 작업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함이다. 1995년에 설립된 ‘하계마을’ 등 작가들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예술촌’ 역시 작가들의 창작 작업을 위해 이루어진 공간이다. 따라서 ‘창작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초청자가 ‘예술가에게 절대 필요한 창작공간을 지원’한다는 창작스튜디오 원래의 취지에 따라 소위 ‘거주하는 작업실’이라할 수 있는 ‘레지던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프로그램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창작스튜디오’ 공간이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창작 공간 지원에 절대적인 중심을 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이처럼 분류하였다. 초청 문인이 오직 집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토지문화재단의 문인 창작 집필실 운영이나, (재)백담사 만해마을의 문인 창작 집필실 운영의 경우 대표적인 ‘창작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 2)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레지던스’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친 자연 환경적 공간이나 탈 일상적인 공간에 거주하면서 진행되나, 굳이 거주가 필수조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개별 프로젝트의 사안과 주제에 따라 예술가들이 프로그램 기획자를 중심으로 모여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형태를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 분류할 수 있다. 레지던스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레지던스로 발전되기 전에, 혹은 특별한 주제와 사안으로 인해 이러한 형태의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2006년도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이었던 (재)의제문화재단의 ‘백만이 키우는 무진이 프로젝트’, 가네샤프로덕션의 ‘퍼포밍아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그리고 2007년 쿤스트 독의 ‘통의동 프로젝트’가 해당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 소재의 ‘팔레 드 도쿄’의 ‘르 빠비용(Le Pavillon)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예로 들 수 있다.



2006년 (재)의제문화재단의 ‘백만이 키우는 무진이 프로젝트’는 광주 지역의 특정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추진되었으며, 가네샤프로덕션의 ‘퍼포밍아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현대예술의 새로운 경향인 ‘다윈(interdisciplinary)’적 특성을 실험하기 위한 다양한 장르간의 공동작업 프로젝트로서 일렉트로닉 뮤지션과 풍물놀이패와의 공동작업, 국제적 강단퍼포먼스(Lecture Performance)예술가와 건축가, 무용가, 연출가, 극작가, 미술가들과의 워크숍, 퍼포먼스와 인스톨레이션, 비주얼아트, 영화, 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 큐레이팅에 관한 리서치와 워크숍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연출가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공동작업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공동작업과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구성되었다.

2007년 쿤스트 독의 ‘통의동 프로젝트’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봄까지 종로구 통의동의 도심 재개발 예정지인 옛 보안여관 및 인근가옥 세 동을 젊은 작가들의 창작, 거주,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여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형 레지던스로 도심 재개발 과정 중 한시적으로 비어 있는 건물을 작가들의 스튜디오로 활용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 공공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팔레 드 도쿄’의 ‘르 빠비용(Le Pavillon)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기획자가 레지던스 주제를 정한 후 작가를 공모하고, 거주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주제에 부합하는 토론과 회의, 그리고 협동작업이 수행된다.<sup>28)</sup>

### 3) 교류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가들을 초청한 후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창작 작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이상으로 초청 작가들, 혹은 관련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교류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분류한다. ‘교류협력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다시 ‘지역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국제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나, 각 지역 간 작가들을 초청, 교류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고, 국제적인 작가 혹은 타 국의 작가들을 초청하여 국내 작가와의 교류를 도모하게 하여 작가들의 상호 문화적 이해를 확대함으로써 예술 활동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국의 문화를 국제적

28) 박신의, ‘문화교류와 새로운 창작의 거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월간 미술』 2008.8, pp. 110-111

으로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국제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대다수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국제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형에 속한다.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서 ‘국제 레지던스’ 사업은 바로 ‘국제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에 속하며 ‘국제교류’ 활성화에 중심 목표를 두고 있어, 해외의 예술가를 초청하는 것이 중요 사업 내용이 되는 것이다. ‘국제교류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다시 세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박신의 교수는 유럽통합 이후 국경 개념이 매우 희박해진 유럽의 경우, 기본적으로 레지던스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을 목표로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작가의 문화적 체험과 창작의 계기 마련이 중심 목표인 레지던스’, ‘자국의 현대미술을 국제화하기 위한 목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론 및 비평,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전시기획을 위한 레지던스’, ‘뉴미디어와 창작 개념 변화에 다른 레지던스’ 및 ‘국제 레지던스의 네트워크를 위한 기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29)</sup>

하지만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유형화하기 이전에 ‘레지던스’의 큰 개념 틀 속에서 ‘국내(지역, local)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념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념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국내 레지던스 프로그램’ 속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유형은 이처럼 ‘레지던스’의 다양한 특성들과 함께 세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4)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가 ‘레지던스’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폐교’ 등 지역의 ‘창작스튜디오’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참여 및 지역 예술가들과의 교류 등이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를 넘어 제3차 서비스 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공동된 문제는 도시와 농촌 간 격차와 농촌 공동화(空洞化)의 문제이다. 이들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에 ‘예술인’들을 끌어들이는 노력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탈 농촌, 노령화, 저 출산 등의 사회 변동과 함께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많은 폐교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창작스튜디오’

29) 박신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과 유형,’ 『권진규 아틀리에 보존과 활용』, 2008, p4.

디오'나 '레지던스' 공간으로 변모되어 가면서 예술가들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지역 여건 등을 조사한 후 마련된 'AIR(Artist-in-Residence) 프로그램'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특화된 '국제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문아트센터'나 '금수문화예술마을'등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 '창작스튜디오' 혹은 '레지던스'의 사례들은 무수히 많으며, 스톤엔위트의 '석수시장 프로젝트'처럼 '재래시장'을 활용하여 '레지던스'를 운영해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작가들의 창작 작업을 위하여 폐교 등을 개조해 활용하고 있지만, 지역 여건 상 지역 사회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우 중요한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지역 폐교를 '레지던스' 공간으로 운영할 때 자칫 본래의 목적인 '예술가 창작 작업 공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역사회와 관여되었을 경우, 오히려 참여 작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sup>30)</sup>

이렇게 폐교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와 지역민 등 지역발전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운영하고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역중심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 분류한다.

## 2.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괄

### 가.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 1) 일반 현황

30) Yasuko Ogiwara, '예술가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간의 균형은 지방 정부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Artistic suppor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AIR programs managed by regional governments the balance between these two elements will always be a point of contention.)', Association for Corporate Support of the Arts (Kigyo Mecenat Kyogikai)

Res Artis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0여 개 이상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한다.<sup>31)</sup> 미국의 AAC에 속한 미국 내 ‘레지던스 프로그램’만 하여도 약 84개이며, 타 국가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14개 정도가 조사되고 있다<sup>32)</sup>. 앞서 살펴본 바처럼, 일본은 각 지역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하여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터넷<sup>33)</sup>을 통해 “일본 예술가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 Japan)”라는 이름으로 약 36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예술위원회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에서 그간 조사한 해외 레지던스의 수만하여도 4:500여 건이 되고 지금 이 순간도 국내외에서 새로운 레지던스 공간과 프로그램 등이 생겨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앞서 1993년 베를린에서는 레지던스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역동적인 정보교환과 직접적인 만남을 위한 자발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로서 탄생한 Res Artis의 첫 창립총회가 있었다. 현재 네덜란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곳은 5대양 6대주 50개국 약 250 여 곳의 예술 창작 작업에 적합한 국제적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스 공간과 조직들을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전 세계에 회원을 둔 대표적인 국제레지던스 협의체이다. 이곳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South Korea)에 있는 5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sup>34)</sup>’을 소개하고 있다.

## 2) 국가별 주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특징 및 운영방식<sup>35)</sup>

국가별레지던스	특징	운영 방식
프랑스		

31) <http://www.resartis.org/>

32) <http://www.artistcommunities.org/>

33) <http://www.jpf.go.jp/air/>

34) 국립 창동 및 고양 미술스튜디오, 쌈지스페이스, 경기창작센터(GCC), 스톤워터(Stone & Water), 의재스튜디오

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럽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기초조사 및 교류기반 구축방안’ 수록 내용을 바탕으로 재편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년 정책연구보고서」, pp156~197

빌라 아르송 (Villa Arson)	이곳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큐레이터, 이론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하고 채류 작가들의 작업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하여 레지던스 작가들 자신의 작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작가와의 교류를 통하여 해당 지역미술계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적에 관계없이 7명 정도의 45세 이하 예술가를 선발하여, 4.000~6.000유로 사이의 금액을 지원함.</li> <li>○이 장학금을 못 받는 작가들의 경우 자국의 지원금으로 대체해야 함</li> <li>○개별적 지원과 심사에 의한 채류 작가 결정 방법과 병행해서 세계 각국의 지명도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li> </ul>
팔레 드 도쿄 (Palais de Toky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할 수 있는 숙소가 없고,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운영</li> <li>○ 프랑스 내 현대 미술의 다양한 실험의 장으로 잘 알려진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매년 300명 이상이 되는 경쟁자들 중에서 약 10여명의 젊은 예술가들을 선발하여 8개월 간 Le Pavillon(르 빠비옹, 별채)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게 함.</li> <li>○ 개인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고 팔레 드 도쿄의 활동에 관계된 세계 예술가들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프랑스와 해외에서 펼쳐지는 워크샵에 참가하고, 모든 예술 활동에 공동 작업이 가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예술가 혹은 석사 이상의 국제예술 비평가 또는 동등한 기준의 전문 경험을 가진 자로, 불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장르의 제한은 없음.</li> </ul> </li> <li>○등록비 : 약 300유로(사회보험료 190유로 별도) 매년 다르게 책정됨.</li> <li>○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개 예술가들은 선발에 의해서 8개월간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2005/2006년에는 매월 1000유로 정도의 장학금이 각 예술가들에게 지불되었음.</li> </ul> </li> <li>○숙소 : 없음.</li> <li>○선발 양식 : 각 선발에는 제시된 주제가 있고 응시자는 그 주제에 알맞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li> </ul>
мага쟁 - 국립 현대예술 센터 (Magasin - C e n t r e National d'Art Contemporain : Ecole du Magas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예술분야 프로젝트 기획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류심사 후 최종 면접을 실시하여 최대 10명을 선발함.</li> <li>○프로그램은 10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총 1,200시간의 수업이 이루어짐.</li> <li>- 프랑스 혹은 해외에서의 실습수업이 포함됨</li> <li>- 분기별 시험이 있고, 모든 교육을 마치면 증명서가 발급됨.</li> <li>○숙소, 식사, 교통, 보험, 재료비 등은 참가자가 지불하고 지원비로 65유로를 지불해야 함.</li> </ul>
<b>영국</b>		
델피나 스튜디오 (Delphina Stu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델피나 스튜디오'는 훌륭한 레지던스 시설과 전시 공간 그리고 국제 미술계 전문인을 초청하는 워크숍을 운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 절차 : 시각예술 분야와 큐레이터에게 열려 있는 델피나 스튜디오의 작가 선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레지던스 작가들을 포함한 패널들의 도움을 받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피나 스튜디오는 런던 중심부의뱅크사이드에 있는 초코렛 공장을 개조하여 총 30개의 스튜디오와 12곳의 전시공간을 조성 운영</li> <li>○ 오랜 국제적 지명도를 바탕으로 영국 및 세계 각국의 작가들이 런던의 미술현장과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운영.</li> <li>○ Visiting Arts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예술을 영국 내에 소개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Visiting Arts는 매년 영국 내에서 적절한 위임 기관을 가지지 못한 국가에서 온 레지던스 작가들을 위해 재원을 지원하고 텔피나는 9개월 간 작가들에게 작업실과 숙소를 제공함</li> </ul> </li> <li>○ Visiting Arts는 매년 외국작가 한 명씩을 지원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아시아 작가들을 선정하고 있음 (2004년에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한국작가 양혜규씨가 선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예술가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지만 영국 국적의 작가들에게는 2년 동안 숙식을 제외한 스튜디오와 모든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외국의 입주 작가들의 경우 9개월간 동일한 조건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함.</li> <li>- 생활비나 장학금은 지불하지 않으며, 식비나 여행경비 혹은 재료비와 같은 일용경비 지원은 없음</li> <li>- 텔피나 프로그램은 레지던스 작가들을 위한 전시를 기획하며, 경우에 따라서 카탈로그 출판을 지원함.</li> </ul> </li> </ul>
아 카 바 (ACAVA: Association for Cultural Advancement through Visual 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주하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을 고취시킴으로써, 표현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가짐</li> <li>○ 학교 혹은 대학교의 커리큘럼과 관련하여 시각적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함</li> <li>○ 현재 학교, 대학교, 지역 단체, 장애인 집단, 다양한 예술 형식을 대표하는 각 예술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가, 조각가, 사진가, 세라믹전문가, 영화 제작자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상주하고 있음.</li> <li>○ ACAA는 런던의 서부와 동부에 걸쳐 약 180개의 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음.</li> <li>○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과 함께 1년간 무상으로 스튜디오를 제공함</li> </ul>
호스피털필드 (The Patrick Allan-Fraser of Hospitalfield Trust)	<p>시각예술 분야의 예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예술가들의 관계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onsored Residencies: 파트너쉽이나 기업체에 의해 지원 받는 레지던스 형식. 약 3개월 간 체류 가능</li> <li>- Project-based Residencies: Hospitalfield Trust가 전시와 출판에서부터 공공예술, 커뮤니티 간의 교류와 교육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li> </ul> </li> </ul>

		<p>램.</p> <p>- Individually-funded Residencies: 우수한 작품 proposal을 제출한 자에게 제공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상시 지원 가능</p>
로열코트 레지던스 프로그램 (Royal Court Residency Programme)	<p>○ Royal Court Theatre는 1956년 이래 세계에 이름난 혁신적인 작품들을 연출, 공연해 온 유럽의 명성 있는 공연장 가운데 하나로 영국의 신예 희곡가들을 다수 배출함.</p> <p>○ 로열코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나라의 희곡 전문가들에게 진보적인 영국의 희곡들, 제작자들, 공연가들과 만나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임.</p> <p>○ Royal Court Theatre와 연계를 맺고 있는 영국의 아티스트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p> <p>○ 2006년에는 약 11개국의 작가들이 참여 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British council의 지원을 받음</p>	<p>○ 제20회 국제레지던스International Residency는 2008년 7~8월에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2007년 가을에 접수하여야 함</p> <p>○ 다른 지원기관들도 꾸준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만약 지원자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여가 허가되었을 경우, Royal Court Theatre 측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찾는 것을 돕고 있음.</p> <p>○ 신예 작가들을 위한 4주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튜디오 제공</p> <p>○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극장 관람과 개인적인 미팅은 주중 저녁 혹은 주말에 이루어짐.</p> <p>○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의 출석에 관하여 자유이며, 다양한 독서 목록과 희곡 대본 등이 제공됨.</p> <p>○ 희곡은 모국어로 쓰여 지며, 이 작업은 Royal Court측에 의해 통역됨.</p> <p>○ 숙박 장소는 극장으로부터 보도 혹은 버스로 근거리에 위치함</p>
가스워크 레지던스 프로그램 (Gasworks International Residency Programme)	<p>○ 예술가들로 하여금 국제적인 교류를 통하여 작업을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p> <p>○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런던에 머무는 동안 수준 높은 감독자에 의해 작품에 필요한 재료의 조달, 현지 지식 등의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받으며,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p>	<p>○ Film, Literature, Music, Visual Arts분야 예술가 참여</p> <p>○ 영국에 거주 하지 않는 모든 신예 혹은 중간 경력의 예술가들이라면 모두 참가 지원할 수 있음.</p> <p>○ 해외 예술가들에게 12개의 스튜디오 가운데 3개의 스튜디오를 제공하여 약 3달 간 런던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p> <p>○ 일반 지원 및 재정 지원이 되는 프로젝트 공모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음.</p> <p>- 일반 지원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3개월 마다 선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가</p>



	<p>토론을 할 수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 Studio를 운영함으로써 영국의 대중들에게 국제적인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와 관객 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함.</li> <li>○ 현재까지 약 50개국의 100명의 예술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옴.</li> </ul>	<p>여부를 통보 받음. 생계비와 작품 활동에 필요한 재료 등이 지원 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로를 모색해야 함.</p> <p>-일반 지원의 경우 참가 동기 및 최근 작업한 작품의 이미지 10컷, 이력서, 작품과 관련된 자료들(전시 책자 혹은 기사 등), 추천서, 가능한 자금 조달원의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p>
<b>독일</b>		
독일 학술교류처 베를린 예술가프로그램(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Berliner Künstlerprogra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교육부와 외무부 산하 기관인 독일학술교류처(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DAAD)는 세계 유사 국가예술지원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지명도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임.</li> <li>○ 1963년부터 시작된 DAAD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Berliner Künstlerprogramm)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대표적 국제 프로그램</li> <li>○ DAAD는 방송, 국립미술관, 역사 박물관, 필름 페스티벌 등 국내 기관들과 연계를 맺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작가들의 프로젝트를 기획, 지원, 유통, 관리함. 이것은 초빙된 작가들과 지역미술계에 서로 자극이 됨으로써, 작가들이 체류기간이 끝나도 베를린에 체제하거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결국 지역미술계와 장기적인 교류의 토대가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마다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에서 18명의 작가들을 초빙하여 베를린에서의 1년간 체류와 작품 활동을 지원함</li> <li>○ 일 년간의 거주경험은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자극이 되고, 예술가들은 그 기간 동안 혹은 후에 그들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책, 전시, 콘서트, 영화 등의 형태로 만들어냄.</li> <li>○ 지금까지 800여명의 작가들이 거처한 DAAD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작가 뿐 아니라 이제 게스트 교수와 강사까지 초빙하면서 오늘의 베를린 문화번영의 저변을 형성해온 네트워크 에이전트 역할을 함.</li> </ul>
보르프스베데 예술가의 집(Künstlerhaus Worpswe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세기 Rainer Maria Rilke, Heinrich Vogeler, Otto Modersohn 등 유명 예술인이 정착했던 곳이기도 한 Bremen시 근처의 Worpswede는 1971년 이래로 35개국의 400여명 이상 참여해 옴.</li> <li>○ 시각예술, 문학과 음악분야의 전문 예술가들을 현재 진행 중인 장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약 6~9개월, 최대 12개월(음악, 문학 분야는 최대 9개월)</li> <li>○ 분야 : 시각예술, 문학, 음악 등- 숙소와 작업공간을 제공하며 매달 지급되는 120유로를 제외한 1,400유로를 지원함</li> <li>○ 특별한 경우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독어나 영어로 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함 (단, 시각예술 분야는 단지 초청만으로도 참여 가능)</li> </ul>



	<p>재단을 통해 후원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켄호프(Barkenhoff)재단과 니더작센(Niedersachsen)주 문화예술 분야 위원회에서 주도적인 후원을 받음. 그 밖에 오스터홀츠(Osterholz) 군, Worpsswede 지역회와 개인장학재단 등이 지원하고 있음</li> </ul>	
<p>아카데미 솔로스 솔리튜드 (Akademie Schloss Solitu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 유겐 공작의 후기 바로크 양식의 여름 별장용 성을 개조. 작가에게 휴식 및 고립된 시간을 제공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임.</li> <li>○ 미술, 건축, 공연, 디자인, 사진, 문학, 음악, 영화, 뉴미디어, 예술행정 및 경영 등 학제 간 전문가 참가, 운영이 특징</li> <li>○ 솔로스 솔리튜트 아카데미는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젊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에게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금을 수여하고, 입주작가들의 작품으로 공연, 낭독회, 콘서트, 전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이들을 지원하는 것임.</li> <li>○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복권이 이를 후원하는데 바덴-뷔르템 베르크주 복권은 디렉터를 포함한 8명의 스태프가 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렉터는 예술가의 선발을 비롯한 주요 결정권을 가지며 모체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대해서 확고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48)</li> <li>○ 1990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추천과 심사에 의해 참가작들이 결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기간은 6~12개월이며, 입주 작가는 주로 독일 내 주 소속 예술가와 해외 예술가가 고르게 입주함.</li> <li>○ 초청 작가들에게는 여행 경비와 매달 1000달러 가량의 체류비가 지원되며, 솔리튜드가 운영하는 베를린 사텔리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원하는 작가는 베를린에 체류하며 전시할 수도 있고 화랑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음.</li> <li>○ 미술대학 졸업 후 5년 미만, 만 35세 이하의 작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작가의 경우 연령에 구애받지 않음</li> <li>○ 대부분의 솔리튜드 레지던스 작가는 체류기간 동안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작업을 구상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작품이 반드시 전시로 이어지지 않아도 관계없음. 작가가 원할 경우 전시함</li> <li>○ 스튜디오 35개, 전시장 3개, 세미나, 사무실, 카페테리아 있음</li> <li>○ 입주기간 1년, 연장 가능</li> </ul>
<p>독일 칼스루에 미디어아트센터 ZK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 남부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urtemberg)의 작은 도시 칼스루에라는 곳에 위치한 미디어아트센터는 예술과 미디어의 복합적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짐.</li> <li>○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며,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포트폴</li> </ul>

	<p>교류를 통한 예술장르로서의 프로젝트 교환, 전시, 공연 및 연출을 하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센터임.</p> <p>○ 예술성 있는 작품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새롭게 실험적인 작업을 추구하며 기존의 음악, 뉴미디어 등을 새로운 사운드, 음향기법과 아쿠스틱 파노라마 등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장비나 재정적 후원, 체계를 이룸.</p>	<p>리오에 대한 제한은 없음. 참가지원비나 별도의 지원광고도 없으며, 이미 상업적으로 규정된 프로젝트는 제외됨</p>
<b>벨기에</b>		
안트베르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Antwerpen Artist in Residence)	<p>○AIR-Antwerpen은 사설기관으로 플랑드르지역의 Antwerp시로부터 지원 받으며, 국내외 시각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그들 간의 협력을 도모.</p> <p>○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들은 참가 기간동안 포스터프로젝트, 오픈 스튜디오, 오픈 AIR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행사에 초청됨.</p>	<p>○ 기간 : 약 2~6개월간</p> <p>○ 분야 : 시각예술</p> <p>○ 스튜디오와 주거 공간은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지원금과 생활 보조금 없음. (여행 경비 및 재료 운송비 등은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함).</p> <p>○ 지원자들의 심사는 AIR-Antwerpen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짐.</p>
프랑스 마스렐 센터 (Frans Masereel Centre)	<p>그래픽 예술가들을 위한 work community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기술적 문제를 돕고, 전문적인 지도 아래 보다 나은 작업 진행을 계획하며, 그들의 작품을 널리 보급</p>	<p>○ 숙박과 스튜디오가 무료로 제공.</p> <p>○Lithography, Silkscreen printing, Relief printing, Intaglio printing 등의 작업이 가능한 스튜디오와 9개의 숙박 공간</p>
<b>폴란드</b>		
우야즈도브스키 캐슬 현대 예술센터(CCA Ujazdowski Castle)	<p>○ 폴란드 현대예술센터(CCA)가 유럽모델을 기초로 하여 발전시킨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인들은 CCA의 큐레이터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p> <p>○선발된 폴란드 예술인과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예술이론가를 포함한 폴란드 예술계의 대표적 인물들과 작업의 기회를 갖게 됨.</p> <p>○오로지 초청에 의해서만 참여할 수 있음</p>	<p>○분야 : 회화, 영화, 미디어 아트, 멀티 미디어, 공연예술, 사진</p>
<b>이탈리아</b>		

벨 라 지 오 (Bellag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곡가, 소설가, 공연작가, 시인, 영화 제작자, 시각 예술가들을 위한 Bellagio creative arts residencies는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 제약받지 않고 숙련된 작업과 개인적인 차원의 심사숙고, 조직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li> <li>○ Residency지원자들은 전 세계의 예술가, 작가, 비정부기관종사자, 정책수립자, 철학자, 과학자 등을 포함함.</li> <li>○ 비공식적인 작품의 프레젠테이션 등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로 토론할 기회를 마련해 줌.</li> <li>○ 특별 저녁 만찬은 센터 내의 다양한 건물에서 유치되는 국제 컨퍼런스의 참가자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li> <li>○ 배우자 혹은 라이프 파트너를 동반할 수 있으며, 이를 원하는 자는 동반 거주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함.</li> <li>○ 센터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2~4명의 지원자들 위해 협력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일반적으로 4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조정이 가능.</li> </ul>
<b>스페인</b>		
자연과 예술센터 (Centre d'Art I Natu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과 자연과 사회과학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는 실험의 근거지로써, 예술, 자연과학과 지역적 기술과 지식 사이의 공생관계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함.</li> <li>○ 자연과 생태학에 특정한 관심이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상주 프로그램임(지질학자, 식물학자, 조류학자, 지리학자, 역사가, 인류학자, 그 외 여러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1주일~11개월</li> <li>○ 분야 : 각 예술, 미술, 조각,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전시, 공간예술, 문학(번역포함), 음악(특히 작곡), 공연</li> <li>○ 영문CV(이력서)와 가장 최근작의 샘플(CD, 카탈로그, 슬라이드, 사진, 신문기사, 책 등)을 보내야 함.</li> <li>○ 예술과 생태학에 관심 있는 기관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지만 거주자도 숙식비용을 지불함. 1인당 하루 가격은 비싸지 않음. 숙소와 공동저녁).</li> </ul>
<b>스위스</b>		
바젤 국제 예	○ 1985년에 설립된 이 곳은 다운타	○ 기간 : 6개월

<p>술인 교류 프로그램 아틀리에(Basel BS   iaab-Atelier)</p>	<p>운에 위치하며, 숙박시설과 작업시설을 갖추고 있음.</p> <p>o iaab (International Artists Exchange Program Basel)의 모든 스튜디오는 교류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음.</p>	<p>o 분야 : 시각예술, 사진, 비디오</p> <p>o 체류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부가적인 지원금도 주어짐. 독일어가 통용됨.</p>
<h3>네덜란드</h3>		
<p>라익스 아카데미 (Rijksakademie, 네덜란드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p>	<p>o 윌리엄 3세가 1870년 라익스 아카데미(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를 설립했고 199년을 끝으로 사립협회가 되었음</p> <p>o 설립기금은 문화·과학부인 네덜란드 교육부 장관에 의해 재정되었고 다른 정부부서와 공동의 스폰서 기금으로부터 기금을 받음</p> <p>o 라익스 아카데미는 11명의 분야별 테크니션을 보유하고 작가들의 기금조달 담당인원 및 세계 각국의 동창 모임을 관리하는 인원, 도서관, 출판담당 등 총 55명의 직원이 관장 이하 각 파트별로 조직되어 있음.</p> <p>o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모든 전공의 현대미술 훈련과 기법들을 추구함.</p> <p>- 회화, 드로잉, 사진학, 판화, 조각, 비디오, 영상, 음악과 컴퓨터 아트, 현대 미술과 관련된 건축, 공공장소, 극장, 뉴미디어, 문학과 영상 등의 작업이 이루어짐.</p> <p>o 라익스 아카데미 시스템의 특징</p> <p>- 전문기술지원 : 사진, 영상, 디지털 뉴미디어 설비에서부터, 회화, 도자, 금속, 목공, 판화 등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기계설비, 재료가 잘 갖추어진 공방들에서 입주 작가들은 11명의 기술 전문가와 상담, 토론했으며 테크닉을 연구해 감.</p> <p>- 어드바이저 시스템 : 2년 동안 입주하고 있는 60명의 작가들에 의해 추천된 30명의 어드바이저들은 국제 미술무대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 비평가, 작가들로 구성되</p>	<p>o 지원자격</p> <p>- 만 40세 이하의 미술작가 (단, 학부재학생은 제외)</p> <p>- 내실 있는 작품 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현대미술분야 신진 작가</p> <p>- 구체적인 장르는 제한하지 않으며 복합장르도 무방함.</p> <p>- 작품의 실험성, 혁신성(독창성), 예술성, 주제의 형상화 능력, 발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p> <p>o 파견작가 선정절차 : 파견작가는 라익스아카데미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3차에 걸쳐 심사.</p> <p>o 참가 신청 및 선발</p> <p>- 초기 프로그램 어드미션은 1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이며, 추후 2년차 연구는 계속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 짐.</p> <p>- 선택 과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논증할 만한 예술적 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결정적 요인이 됨.</p> <p>- 1차에 선정된 후보자들은 암스테르담의 라익스 아카데미에서 2차 인터뷰를 하여 최종 선정</p> <p>o 숙소 : 아카데미 측에서 알선해 주며 일반 시세에서 약 50% 할인.</p> <p>o 식당 : 아카데미 내 저렴한 구내식당 이용가능 (2-3유로/식).</p> <p>o 참가비 면제 : 참가자가 부담하는 연 1,800유로의 납부금(annual fee)이 있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처럼 기관 간 협정을 통해 파견된 작가에게는 면제.</p> <p>o 체류기간 및 일정</p> <p>- 입주작가는 1~2년 동안 프로젝트들과 작품제작을 연구하면서 작업할 수 있음.</p> <p>- 매년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략 25명의 새로운 작가들을 초대하고 작가들은 1월에서 12월 사이</p>

	<p>어 있음. 그들은 1년에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면담을 신청한 입주 작가들과 1:1 미팅을 갖고 작업에 대해 토론을 함.</p> <p>- 이론적 자료 제공 :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는 방대한 작가자료와 컬렉션을 소장하여 미술계 전반의 이론적 연구소로서도 중심에 자리.</p>	<p>에 입주하여 작업을 진행함.</p>
<b>노르웨이</b>		
<p>달사센 노르웨이 예술인 센터 (NACD, The Nordic Artists' Center in Dalsasen)</p>	<p>2-3개월의 체류를 지원하고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문화적 체험이나 교류보다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으로 작업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p>	<p>○ 총 3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음</p> <p>○ REGULAR PROGRAM 2008</p> <p>- 시각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들을 위한 시각 문화적 실습을 위해 상주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p> <p>- Regular Programme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 집과 스튜디오가 제공되며, 한달에 약 6700 노르웨이 크로나를 지원함.</p> <p>○ RESEARCH PROGRAM 2008</p> <p>- 디자인과 건축을 포함한 시각 문화 분야에서 일하는 연구가들; 이론가, 작가, 큐레이터 등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숙박, 작업 장소와 주당 지원비를 제공.</p> <p>○ PROGRAM FOR GROUPS 2008</p> <p>- 시각예술, 디자인, 건축 분야에 있어 혁신적이고 crossover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p> <p>- 공유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작업 공간, 주당 지원비를 제공.</p>
<p>노르웨이 현대 예술국(Office for Contemporary Art Norway)</p>	<p>○ 민간 재단으로 문화부(The Ministry of Culture)와 외무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에 의해 2001년 설립됨.</p> <p>○ 현대 예술의 국제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임.</p> <p>○ 해외의 예술가와 큐레이터를 위한 4개의 스튜디오를 오슬로에 마련함.</p>	<p>○ 참가 방식: 초청</p> <p>○ 기간 : 2주~6개월</p>
<b>덴마크</b>		

쿨 투어 파브리켄 (Kulturfabri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년 설립되었으며 공장을 개조한 아트스튜디오로 시 정부의 보조로 운영됨.</li> <li>○ 국제예술가의 초청은 입주 작가들이 매월 월례회를 통해 필요한 예술가들을 초청하도록 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개의 개인 작업실이 있으며 금속, 목재, 판화, 도예공작실 및 대형암실을 가지고 있음. 이외에 컴퓨터 예술가를 위해 CAD 및 DTB의 적지 않은 첨단설비를 갖춘.</li> <li>○ 25개의 작업실 중 23개는 시중 임대료의 절반 가격으로 덴마크 예술가들에게 임대하며, 나머지 2개는 자국 외의 예술가를 초청할 때 사용함.</li> </ul>
히르솔멘 아트스트리니레지던스 (Artistsresidences on Hirsholme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rsholmene는 덴마크의 본토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섬으로 1996년부터 이 곳에서 덴마크의 예술 위원회에 의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으며, 약 60여 명의 예술가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li> <li>○ 두 개의 작업실을 갖고 있으며, 작업 공간 외에 전자 피아노가 마련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최소 1개월</li> <li>○ 분야 : 시각예술, 조각, 세라믹, 공연예술, 텍스타일, 음악, 문학</li> <li>○ 2006년 기준, 한달 체류 비용은 약 2400 DKK였음(약 322 유로).</li> <li>○ 지원자격 : 전문 예술인 협회에 가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 작품 계획 등의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야 함.</li> </ul>
<b>스웨덴</b>		
IASPIS(International Artist Studio Program in Swed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시각예술가와 국제 현대미술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진 문화교류 프로그램.</li> <li>○ 스톡홀름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 스튜디오, 항공료, 급료 등 지원</li> <li>○ 참가는 초청으로만 이뤄짐.</li> <li>○ 초청받은 레지던스 작가들은 체류기간 동안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IASPIS 전시공간에서 전시하며 6개월에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음.</li> </ul>

## 나. 국내 창작스튜디오 현황

### 1) 개요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 2개 처, 공립 창작스튜디오가 29개, 민간 운영의 사립 창작스튜디오가 23개로 약 54개 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 국공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지역적인 분포 현황은 아래 표1) 과 같다. 공연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 창작스튜디오는 아직까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폐교를 개조하여 마당극, 풍물 등 위한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는 예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예술분야와는 다르게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스튜디오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문학의 경우, (재)토지문화재

단과 (재)백담사만해마을에서 운영하는 창작 집필실만이 파악되고 있다.

<표 1> 전국 국공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sup>36)</sup> (2006년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립 (2)	1	-	-	-	-	-	-	1	-	-	-	-	-	-	-	-
공립 (29)	1	-	1	-	2	-	-	2	4	3	1	3	1	6	5	-
사립 (23)	2	-	1	-	-	-	-	13	1	1	-	1	1	-	3	-
<b>합계 (54)</b>	<b>4</b>	<b>-</b>	<b>2</b>	<b>-</b>	<b>2</b>	<b>-</b>	<b>-</b>	<b>16</b>	<b>5</b>	<b>4</b>	<b>1</b>	<b>4</b>	<b>2</b>	<b>6</b>	<b>8</b>	<b>-</b>

창동과 고양의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는 당시 문화관광부가 설립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립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청주시, 영천시 등에서 설립하여 각 시립미술관이나 지역의 입주 작가 운영위원회 등에서 운영한다. 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경우, 대유문화재단, 일주문화재단, (주)쌔피, 하나은행 등 민간에서 설립하고 관련 시설 미술관 등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문학의 경우, 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에서는 1983년 이전부터 국내 작가를 선발하여 미국 아이오와 대학 내 'IWP 문학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토록 지원해 왔다. 1991년에는 미국 뉴욕 시에 소재하면서 현대미술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P.S.1 국제스튜디오와 레지던스 교류 협력 협정을 맺고 1992년부터 매년 1년간 당시 시각분야에서는 최초로 김수자씨를 선두로 하여 2000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한국 작가들을 P.S.1 국제스튜디오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토록 지원하여왔다.<sup>37)</sup>

당시 문예진흥원의 P.S.1 국제스튜디오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과 더불어 국내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 차원의 예술가 창작스튜디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 경기 파주시 하제마을, 충북 청원군 청원마동창작마을, 전북 임실군 오궁리 미술촌, 광주광역시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등이 국내 선두 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36)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개선방안',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 1차 정책포럼 자료

37) 국제창작프로그램 한국작가 참가지원 내역(단위: 천원)

하계마을은 1995년 해당 지역에서 오랜 동안 약국을 경영하고 있던 권창우 박사의 뜻에 따라 자신 소유의 공장 건물을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제공하면서 마련된 순수한 예술창작촌의 성격으로 시작되었다.<sup>38)</sup> 충북 청원군 청원마동창작마을은 1995년 청원의 마동분교를 개조해 작가들의 창작작업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오궁리 미술촌은 작가 전병관 선생이 유학 후 귀국한 다음 작업실을 찾던 중 해당 지역 학교 측의 배려로 1995년 폐교 직전의 오궁초등학교에 오궁리 미술촌(현, 사단법인 오궁문화센터)를 설립하면서 조각, 한국화, 서양화, 설치미술, 판화, 서예 분야 예술가(대학교수 5명, 직장인 3명, 전업작가 1명)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이 본격화 된 사례다<sup>39)</sup>.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창작스튜디오로 볼 수 있는 사례로 1995년 지역에서는 드물게 세계적 규모의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개최됨을 계기로 지역의 작가들을 지원하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당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과에서 기존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팔각정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sup>40)</sup>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내 위치한 팔각정창작스튜디오는 스튜디오 6실을 갖추고, 만 25세 이상 45세 이하인 미술 전업 작가 중 주 4일 이상 스튜디오 이용 가능자에서 선발한 장, 단기 거주 작가 각 3명을 초청하여, 프p젠테이션, 전시, 세미나, 오픈스튜디오와 출판물 발간, 작가 홍보, 네트워크 사업을 펼쳐왔다. 이곳은 광주시립미술관 큐레이터가 관리한다.<sup>41)</sup>

연 도	파견자	기 간	파견지	지원액
1992	김수자	92.9.1~93.8.31	뉴욕P.S.1미술관	20,350
1993	하용석	93.9.1~94.8.31	"	20,921
1994	김영진	94.9.1~95.8.31	"	21,084
1995	박화영	95.9.1~96.8.31	"	19,921
1996	오상길	96.9.1~97.8.31	"	22,512
1997	신현중	97.9.1~98.8.31	"	31,255
1998	김승영	—	"	8,212
1999	김승영	99.9.1~2000.8.31	"	24,727
2000	윤영석	2000.9.1~2001.8.31	"	33,951

3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창작환경지원-왜 작업실 정책인가? - 사립창작스튜디오의 현황과 실태,' 『월간 문화예술』, 2005.4월호, p30

39) 같은 책, p34

40) 같은 책, p37.



이러한 창작환경 변화 속에서 당시 문예진흥원은 충남 논산과 인천 강화에 방치된 폐교를 미술창작실로 리모델링하면서 예술가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을 시작하였다.

즉, 1997년 9월, 1차로 충남 논산시 양촌면 산직리 566의 2 양촌초등학교 장원분교를 미술창작실로 만들기 위해 임차한 후, 리모델링하여 창작실 2동과 숙식실 1동, 작품 보관창고 3개, 체육시설 및 샤워실 1동을 갖추고 이 곳에 입주하여 창작 작업을 희망하는 입주 작가들을 선정하였다. 이곳은 논산 시내에서 승용차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하였다. 당시 문예진흥원에서는 창작실마다 수도시설과 취사시설을 마련하여 숙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참가자의 입주 신청 자격은 최근 5년간 4회 이상 개인전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30~40대 젊은 작가로서 약 36명이 신청하여 최종 10명의 입주 작가를 선정했다. 작가 개인당 작업공간은 25평이고 임대기간은 1997년 9월1일부터 1998년 6월15일까지였다. 신청 작가의 입주 여부는 당시 문예진흥원 미술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며, 임대료는 없지만,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했다.<sup>42)</sup>

당시, 입주식에는 문화체육부 차관, 충남도지사, 부교육감, 논산시장, 한국미협 이사장, 미협 충남지회장, 건양대 총장, 논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여할 정도로 사회적인 관심이 대단하였었다.

동 사업의 취지는 “우수 젊은 미술가들의 작품 제작 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실제 담당자들이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강원, 충청 지역의 활용 가능한 폐교를 찾기 위해 여러 달 동안 현장을 돌며 해당 교육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나눈 결과 최종적으로 이곳의 폐교를 확보하였다고 한다.<sup>43)</sup>

논산에 이어서 문예진흥원은 2차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넙성리 459-1 신성초등학교를 임대하여 개수공사를 통해 창작실 2개동 8실(1실 25평), 창고, 사택, 체육장의 시설을 갖춘 창작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을 지원하였다.

폐교를 활용한 두 창작 공간을 개관한 다음 해인 1998년, 논산미술창작실 입주작가협의회는 ‘오픈스튜디오 및 세미나, 논산미술창작실 순회전’을 개최하였으며, 강화미술

41) <http://www.artmuse.gwangju.go.kr/>

4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월간 문화예술」, 문화예술마당, 1997. 9월호, p152

4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월간 문화예술」, 1997. 11월호, p142

창작실 입주작가 협의회는 ‘입주작가협의회회전’과 ‘강화미술창작실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하였다. 또한, 논산과 강화의 입주작가협의회에서 공동 주최로 “미술창작실 입주작가협의회회전”을 그해 5월8일부터 5월20일까지 2주일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전관에서 개최하는 등 개관 초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sup>44)</sup>

1998년에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싹지 구 사옥에서 시작된 싹지 창작 스튜디오가 2000년 홍대 근처에 복합문화공간인 ‘싹지 스페이스’로 이전하여 운영됨으로써 기업에서 지원, 운영하는 차별화된 레지던스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공간은 타 레지던스 공간과 달리, ‘실험적인 성향의 젊은 작가와 외국인 작가를 초청하여 운영한다’는 점과 ‘작가들의 거주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작품발표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외 미술가와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 국제 미술계에 한국 미술을 소개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았었다.<sup>45)</sup>

이상과 같은 국내 미술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당시 문화관광부는 1998년 ‘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각 시도별로 2~3개의 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특화된 창작스튜디오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표함으로써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당시 문화관광부의 ‘창작스튜디오 확충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서울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와 경기 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였다. 현대적 의미에서 국가가 설립한 첫 미술창작스튜디오라는 점에서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의미는 매우 크다.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설립 후 6년도 채 안된 짧은 역사 속에서 급속도로 성장하여 이미 ‘국제레지던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립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지역 창작 스튜디오 사업 그리고 각종 개별 주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사 프로그램의 설립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sup>46)</sup>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sup>47)</sup>

44) 그러나, 1999년 문예진흥원은 창작실의 지역이관을 통해 지방문화의 활성화와 창작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미술창작실의 지역이관방향을 정하고 논산과 강화 미술창작실의 운영 주체를 해당 지역으로 이관하였다.

45) 「한겨레 신문」, ‘아휴! 싹지스페이스, 싹지스페이스는 내년 3월 폐관하고 작가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싹지 농부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함, 2008.9.11, 임종업 선임기자

46) 정재원(창동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매너저),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과 성과, 그리고 개선방안,’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자문회의>자료, 2008.7.8.

47)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설립목적, 조직, 예산, 운영방식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내용은 뒷장에서 다시

2000년 대유문화재단이 경기도 광주에 창작공간과 거주 공간 등 본격적인 레지던스 설비를 갖추고 ‘영은미술관’과 ‘경안창작스튜디오’(현재 영은창작스튜디오)’를 개관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대유문화재단은 ‘레지던스 프로그램(Artist-in-Residence)’을 통해 아티스트 커뮤니티 형성에 많은 무게를 싣고 있다. 평면 스튜디오 7동, 입체스튜디오 5동, 판화공방, 도예공방, 숙소 공간 등을 갖추고 오픈스튜디오 전시회, 기획전, 외부 전시 참여, 국내외 비평가-미술사가-큐레이터 공동 담론 워크숍,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sup>48)</sup>

2004년, 당시 참여 정부는 2008년까지 2,000개의 창작스튜디오를 조성 하겠다는 ‘새 예술 정책’을 발표하고, 당시 예술계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2004년 5월, ‘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18호’를 통해 창작스튜디오 운영규정을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국립, 공립 그리고 사립스튜디오까지 합하면 전국적으로 4~50여개 이상의 크고 작은 창작스튜디오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금호미술창작스튜디오가 개관하였으며, 2006년 가나아트는 장흥아뜰리에를 설립, 스튜디오를 외부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장흥아뜰리에는 경기도 장흥에 국제적 예술가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되었으며, 사설 갤러리인 가나아트에서 운영하고 있다. 부근의 조각아카데미와 부산, 뉴욕, 파리에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거주기간은 기본이 2년, 장기 입주의 경우 3년 이상이다. 스튜디오 56실 이상을 갖추고 프로모션 및 가나아트와 계열사 고객, 기타 고객에게 작품소개 및 마켓팅하고, 장흥아트벨리 페스티벌이라는 지역행사에도 참가한다.<sup>49)</sup>

2007년 이후 서울특별시, 청주시, 영천시, 서울문화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문화재단에서 공립 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고 각각 ‘난지도 창작스튜디오’,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영천 미술창작스튜디오’, ‘청계천 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국립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48) <http://www.youneunmuseum.org/>

49) <http://www.ganaart.com/>

(가) 일반 현황<sup>50)</sup>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국가의 기초예술분야 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새 예술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에 설립된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이다. 현재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미술작가가 창작활동에 필요한 작업공간과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작가들의 작품을 각종 전시 등을 통해 소개하며, 지역연계프로그램, 유네스코 추천작가 입주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당초 운영 목적이 첫째, 입주 작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창작 환경조성을 조성하는 것과, 둘째, 참여 작가의 창작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셋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 넷째, 국내외 미술창작스튜디오 간 교류 및 자료 수집을 통한 창작활동에 대한 기여 등임을 보면, 이곳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입주 작가에게 좋은 창작여건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당초 주 목적이었던 창작 작업실 제공의 차원을 넘어 국제적 스튜디오를 지향하며, 해외 작가들과 국내 작가들 간, 참여 작가와 미술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목적을 두고 있다.<sup>51)</sup>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조직은 운영프로그램 기획, 실행을 위해 프로그램 매니저 1인과, 시설관리업무 전반을 위한 시설관리팀장(시설관리인원, 전기기계2명, 경비2명, 청소1명)과 지역/학교 연계프로그램, 자료수집 등을 위한 담당자가 있어, 기술자와 다수의 큐레이터, 홍보담당자, 사서 등을 갖춘 해외의 전문적인 레지던스 공간에 비하면 매우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레지던스를 운영하기 위한 주요시설로서는 스튜디오 14실(46~72m<sup>2</sup>), 전시실 1실(132m<sup>2</sup>), 옥외작업실(191m<sup>2</sup>), 사무실, 공동취사장, 샤워장, 주차장 등이 갖추어져 국내의 타 레지던스 시설과 비교하면 매우 좋은 여건이다.

국가는 이곳의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23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을 투자하였다. 2006년도 연간 총 운영예산은 10억원 규모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약 3억원, 그리

50) 창동미술스튜디오 프로그램 매니저 정재원씨와의 현장 인터뷰 및 내부 자료(2008.7.18)

51) 국립현대미술관, '제10절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2006 연간보고서(2006 Annual Report, The Art Museums in Korea)』, pp229-246

고 시설관리를 위해 7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시각예술 전 장르에 걸쳐 25세에서 49세까지의 현대 미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입주 작가로 선발되며, 2005년 상반기부터는 해외의 작가를 공모하여 6개국 9명이 단기 입주 작가로 선발되었다. 또한,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는 27개국 4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장학프로그램인 ‘유네스코 아쉬버그 장학프로그램’에 참여<sup>52)</sup>하고 있으며, 아시아 현대미술의 공동성장을 목표로 한 ‘아시아작가초청프로그램(Asian Artists' Fellowship Program)’을 통하여 이란, 방글라데시, 몽고, 터키, 네팔 등 아시아국 작가를 선발하고 있다. 입주 작가들에게는 작업실 제공 및 생활비, 작가 프로모션을 지원하며, 입주기간동안 개인전과 평론가 초청 공동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두드러진 현상은 2005년 국제 교환입주 프로그램, 2005 아시아 초청작가 프로그램, 2006 유네스코-아쉬버그 장학연수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외국 작가를 초청하고 있다는 점<sup>53)</sup>이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칠레, 중국, 방글라데시, 이란, 몽골, 터키, 스페인, 핀란드, 뉴질랜드, 프랑스, 독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이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국내 신진작가들에게 외국작가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해외 미술계의 흐름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으며, 해외에 우수한 한국 현대미술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 (나) 국제교류활동

2004년 이후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국제미술창작스튜디오 연합기구인 네덜란드의 Res Artis와 미국의 AAC에 가입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2005년부터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지에 위치한 해외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스튜디오 교환입주를 지원하여 미술창작스튜디오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제 교환 교류의 대상기관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암마인 스튜디오, 독일 뒤셀도

52)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상자를 1차 선정한 후 유네스코국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들을 선정하여,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에 3개월간 입주, 지원 한다.

53)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05~2006년의 창동 4기의 국내 작가 대비 국외 작가 작가비율이, 17명(68%)과 8명(32%)에서 2006~7년 창동 5기의 경우는, 국내작가 14명 46.7%, 해외작가 16명 53.3%의 거의 대등한 비율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르프시 스튜디오, 핀란드 헬싱키 HIAP, 싱가포르 Sculpture Square, CEAAC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현대미술센터, 뉴질랜드 Christchurch Gallery(국립현대미술관,한국국제교류재단,뉴질랜드Asia 2000재단 공동 주최), 중국 심천시 화원 등 다양하다.

우리 정부가 주관해 오고 있는 아시아 작가 초청 프로그램(Asian Artists' Fellowship Program)을 통하여 이란, 방글라데시, 터키, 몽골, 네팔 등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인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테헤란 국립현대미술관, 방글라데시 국립미술관, 이스탄불 문화예술위원회, 몽골문화예술위원회, 네팔예술협회 등 초청 대상국의 국립미술관 또는 문화예술기관장으로부터 작가를 추천받아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아쉬버그 장학연수프로그램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도 관심을 끄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세계 27개국 48개 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1차 심사는 회원 파트너 기관에서 심사하고, 최종 심사는 유네스코 국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발(항공료는 유네스코에서, 파트너 기관 개별 작업실 및 숙소 및 월 100만원 재정지원)하게 된다.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들을 볼 때, 예술위원회와 함께 협력하여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즉, 예술위원회는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의 주요 문화 기관들로부터 자국의 가능성 있는 예술가를 추천받아 1차 선정하고, 국립현대미술관 혹은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가 최종 심사하여 해당 국가의 우수한 예술가들을 초청하거나, 국내 작가들과 상대국의 작가들과 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 지난 11월5일, 면담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암마인 스튜디오의 레지던스 운영 담당자인 우슬라 헥크씨(Ursula Heck)는 최근 시 외곽의 항공폭격대피시설인 병크를 개조한 자신들의 새로운 레지던스(Kulturbunker)공간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현했다. 프랑크푸르트시 문화부는 1990년 이후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갤러리아(Budapest Galèria)와 오스트리아 쾰른부르크 쿤스트러하우스(Salzburg Künstlerhaus)와의 작가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하여 왔다. 현재 서울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오스트리아 비엔나, 벨기에 안트베르펜, 영국 하트필드의 허터포셔대학(University of Hertfordshire) 등 8개 지역과 레지던스를 통한 작가교류를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제레지던스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기관들 중 국가간 기관교류를 통해 작가를 초청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점을 비추어 볼 때 참고가 많이 되는 부문이다.

(다) 2008년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sup>54)</sup>

지난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와 주변 지역에서는 제 6기 입주 작가들의 작품과 작업공간을 지역민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 2008 - 레드 카펫(Red Carpet)’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작가를 포함하여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장, 단기 체제한 작가 29명의 작품들이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안팎에서 작품을 전시하여 지역민과 미술관계자들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오픈스튜디오는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가 국내 작가들을 포함하여 각 국으로부터 초청한 작가들의 작업실과 작품들을 지역과 국내의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주요한 행사이다.

2008년의 경우,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장기 입주 작가로서 김기라, 김윤희, 문성식, 박능생, 박용석, 안강현, 안두진, 이상원, 조습 등의 작가가 소개되었다.

이들 중 작가 김윤희는 예술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독일 베타니엔 창작스튜디오에 참여한 사진작가로서, 10월13일 현장 방문 인터뷰에서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를 통해 작가가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과 작가의 작업이 밖으로 알려지는 과정이 모두 중요하다. 작업을 해 나가기위해 (재)인천 문화 재단처럼 참여 작가에 대한 창작 지원을 해 준다면 창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작가의 작업이 알려질 수 있도록 평론가와 큐레이터 등 전문가와의 교류가 가능하고 레지던스 공간의 위치가 외부 소통과 유리한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레지던스 기관들이 해외 미술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 상호 작가 간 교류전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창작 지원과 네트워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가 문성식은 역시 예술위원회에서 기획, 추진하였던 2005년 제51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였던 작가로서, 입주 후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안 공간 루프 공동기획의 ‘Point’전을 개최하였다.

작가 박능생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수상자로서, 입주 후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파트너 기관인 중국 ‘Vis-a-Vis Artlab’ 레지던스에 2개월 간 교환 입주 작가로

54) 2008 창동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오픈스튜디오-Red Carpet> 2008.10.9~10.13



참여한 후 귀국 보고전 ‘Ting Bu Dong’을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에서 개최하였다.

작가 박용석은 2008년 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지원대상자이자, 씬스페이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입주 후 앞서 살펴 본,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문화부가 운영하는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스튜디오와의 교환 입주프로그램 한국 측 참여 작가로 독일에서 3개월 체제 후 ‘박용석 귀국보고전’ 개최하였다. 그는 지난 10월 15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05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시회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하게 된 이후, 독일 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상황에서 프랑크푸르트 문화부가 운영하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레지던스와 국립현대미술관과 작가 교환 약정 프로그램을 맺었다. 양 기관간의 협력 약정에 의해 양측 공동 부담으로 소정의 항공료와 창작지원금을 받고 약 3개월간 체류하면서 작업을 하였다. 개인적으로 2005년도에 참여한 뉴욕 아트 오마이(Art OMI) 레지던스가 3주간의 짧은 기간동안 매일 2명의 비평가들이 방문하여 프리젠테이션과 창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했으며, 세미나와 주요 미술관, 박물관 견학, 오픈스튜디오 등 네트워킹이 레지던스의 중심 프로그램이었던 반면에, 이곳은 작가의 창작 작업 지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었다. 독일 국내의 참여 작가들은 참가비를 부담하여야 했으나, 국제교환프로그램 참여 작가들은 오히려 창작지원금을 받고 작업할 수 있었다.”라고 하였고, 다음날 2차 인터뷰에서 “국내 레지던스의 경우, 작가 선발에 있어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등 유럽에는 ‘프로젝트형 레지던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주 작가 선발 시 작가 경력(포트폴리오) 중심에서 벗어나 개별 작가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자료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레지던스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의 어느 레지던스는 레지던스 측에서 총비용의 60%를 부담하고, 입주 작가가 40%를 부담하는데 참여 작가에게는 부담해야 할 40%를 다양한 지원금 및 후원금을 통해 조달하도록 요구한다.”라고 하여 전문 레지던스 공간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작가 이상원은 금호 영 아티스트로 선정된 젊은 작가로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교류재단, 아시아-뉴질랜드재단 공동 기획의 국제교환입주 프로그램 작가로 선정되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아트센터에서 2개월 간의 프로젝트를 진행,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에서 귀국 보고전으로 ‘Pattern of Life’전을 개최하였다.

작가 조습의 경우, (재)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정공모 사업인 ‘예술역량



강화활동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참여하였다.

아시아 초청작가 프로그램(Asian Artists Fellowship Program)의 일환으로 참여한 외국 작가는 베트남 작가 딘콩닷(Dinh cong Dat)과 인도 작가 지지 스카리아(Gigi Scaria)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퍼시픽 장학연수프로그램(Asian Pacific Artists Fellowship Program)을 통해 참여한 작가는 태국 작가 사라웃 चु티윙페티(Sarawut Chutiwongapeti)와 대만 작가 수웨이 리(Szuhui Lee)이었다.

사라웃 चु티윙페티는 1996년 태국 출라롱콘 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이후 일본, 미국, 캐나다, 유럽 각국과 남미 국가들,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100여회의 전시 참여 경력이 특이하며, 한국과는 2007년 경기도미술관의 기획전시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어,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시아퍼시픽 장학연수프로그램에 지원, 선정되어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에 6개월 간 입주하였다. 입주 기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과 대안공간 루프와의 공동기획전 'Point'전과 '2008 창원 아시아 미술제'에 참여하였다.

수웨이 리는 2007년 대만 예술촌 레지던스(Taipei Artist Village) 참여 작가 및 일본 이바라키의 ARCUS 주재 아시아문화위원회(Asian Cultural Council) 수상 작가였으며, 2008년도 미국 버몬트(Vermont) 스튜디오에 아시아 예술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입주 기간이 종료되면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되어있다. 그녀는 10월13일 현장 인터뷰에서 “일본, 대만,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험을 통해 공통의 문양(태극)을 발견했으며 이 문양이 내 작업의 핵심”이라며 아시아 국가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체험이 그의 작품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제교환 입주프로그램(International Exchange Studio Program)으로 참여한 작가는 독일 작가 알프레히트 빌트, 뉴질랜드 작가 피오나 아문센, 중국 작가 셴예과 리강이었다.

알프레히트 빌트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 문화부 스튜디오와의 국제교환입주프로그램 독일 측 참여 작가로 한국의 박용석 작가와 상호 교류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우리 사회 ‘노숙자들의 모습’을 중심 테마로 잡고 프랑크푸르트, 파리, 뉴욕, 그리고 서울이 가지는 공통적 사회 현실과 서울만의 특징을 ‘제가유, 이렇게 될 줄은...(I didn't expect this to happen to me)’라는 사회 풍자적 사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피오나 아문센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교류재단, 그리고 뉴질랜드-아시아 2000 재단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교환입주프로그램 참여 작가로 선정되어 창동 미술창작 스튜디오에 2개월 간 체류하게 되었다. 그는 그가 바라 본 청계천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있다.

센예과 리강은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와 중국 베이징의 국제레지던스 기관인 'Vis-a-Vis Artlab'과의 후기 국제교환 입주프로그램 참여 작가로 선정되어 한달 간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에 체류하면서 작업하였다.

그밖에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의 단기 입주 작가(6개월)로는 장석준(2006년 예술위원회 뉴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작가), 정승(2008년 예술위원회 신진예술가 프로그램 지원작가), 이종건, 봉인옥, 류현미 등 한국 작가들과 우지 한도코예코(인도네시아), 마리안 차키(헝가리), 요그 오베르그펠(독일), 움베르토 두크(멕시코), 탄난씨(말레이시아), 안드레 헤머(뉴질랜드), 루이스 칸틸로(콜롬비아) 등 외국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 (라)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기타 주요 행사<sup>55)</sup>

오픈스튜디오 이외의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행사들로서는 입주 작가들의 프프젠테이션과 외부 전문 패널의 토론이 중심이 되는 '입주 작가 공동 워크숍'과 관련 특별 강연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계 현안사항에 관한 전문가 토론인 각종 세미나와 전시 기획, 갤러리 운영, 미술시장운영 등이 있고, 미술계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입주 작가들의 작업 역량을 증진시키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작가교육 세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관화교실, 미술체험교실, 스튜디오 견학과 작가와의 대화 등 지역 내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방학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 중장년 대상 지역 문화프로그램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 3) 국립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서울특별시와 서울시립미술관을 통하여 2007년 이래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55) 국립현대미술관, 앞의 책, pp229-246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도 지역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거나 아파트를 임대하여 팔각정,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등 공립형태의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창작스튜디오를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지역으로는 청주시와 영천시와 있고, 성주군 등 기타 많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등을 임대, 공공예산으로 시설 개조하여 창작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07년 3월, 청주시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sup>56)</sup>를 개관하여, 미술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입주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매우 주목할 일이다. 서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그 만큼 그 지역민들의 문화적 인식이 성숙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역시 공간의 기본 운영 목표를 ‘국내외 작가들에게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동시대 예술의 담론을 창출해 내는 것’<sup>57)</sup>에 두고 있다. 또한, 이 공간은 직접적인 작가 지원방식에서 벗어난 작가와 평론가, 큐레이터의 교류를 통한 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려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작가와 지역주민과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간임을 알리고 있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개인창작공간 운영 이외에 오픈 스튜디오, 작가 프레젠테이션과 세미나, 입주 작가의 개인전이나 단체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입주 작가의 각종 자료들을 국영문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관련 기관에 홍보하는 사업과 입주 작가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미술프로젝트 및 지역 학생 대상의 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는 15실(각 54㎡)의 스튜디오, 3실의 교육 전시실, 교육실, 로비와 카페테리아, 사무실, 로비와 휴게실, 화장실, 침실, 주방,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스튜디오는 입주 작가들을 위해 24시간 개방되고 있다.

정상수 학예사와의 인터뷰<sup>58)</sup>에서 “청주와 충북권에는 국공립미술관이 하나도 없어서,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를 청주시 문화부에서 관리하고, 청주시립도서관의 하부 부서로 직제가 구성되어 있다. 직제를 보면 청주시립도서관장, 계장, 2인의 학예사의

56) <http://www.cjartstudio.com/>

5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홍보 자료

58) 김별다비(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인터뷰 내용 발췌

구조이며, 17명의 입주 작가 중 10명은 청주권 작가, 타 지역 작가가 7명이고, 경쟁률은 청주권 작가의 경우 2:1, 타 지역 작가의 경우 5:1 정도이며, 운영 예산은 연간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고 하였다.

지난 2007년 12월13일부터 12월30일까지 개최된 200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제1기 입주 작가 오픈스튜디오 자료를 보면, 국내의 신생 창작스튜디오 공간에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 알 수 있다.

200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제1기 입주 작가 오픈스튜디오 자료를 통하여 권준호, 서정두, 한성수, 진시영, 박병희, 정의, 서석순, 이충우, 김종칠, 이경화, 사운택, 이창수, 김사환, 이진희, 장준석, 성경희 등 오픈스튜디오 참가 작가의 작품 소개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씬스페이스의 큐레이터, 충무아트홀 큐레이터, 독립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서예가, 갤러리 이안 큐레이터,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등 미술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비평문을 함께 실고 있다.

또한,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참여 작가들의 경우 이미 레지던스 경험이 있는 작가들이 많은 반면에, 개성이 뚜렷하고 우수한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참여 작가들의 대다수가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이외의 레지던스 참여 경험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에서의 창작스튜디오 공간이 가지는 중요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 중심의 문화적 편향이 심한 상황에서 지역의 레지던스 공간이 잘 운영된다면 반드시 서울이나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청주에 이어 경상북도 영천시에서도 미술작가들의 창작공간을 위해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를 개관<sup>59)</sup>하였다. 영천시 교촌동 298-9번지 일대 2천168㎡ 부지에 28억9천만원(국비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천 372㎡ 규모로 9개의 창작실과 대/소 전시실, 세미나실, 휴게실을 갖추었다. 이 곳은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희망 작가의 신청을 받고 영천 지역 작가 5명과 지역 외 작가 4명 등 총 9명의 작가가 입주하였다.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입주 작가들을 위한 개관 기념전, 입주 작가 워크숍, 전문가 초청 세미나, 입주 작가 개인전 개최 등과 시민 문화예술 교육, 공공미술프로젝트, 국제교류전 등이다.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주변 지역은 청소년수련관, 민속박물관, 야외공연장, 여성복

59) 「영천뉴스24」 (<http://www.yc24.kr>)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4월25일 개관전’, 2008.3.31, 이원석기자

지회관 등 문화관련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어 영천의 문화적 중심 지역으로 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는 경상북도와 중국 하남성간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중국화, 서화, 서법화, 조각, 서예, 문인화 등 경상북도-하남성 작가의 작품 134점의 교류전을 개최하였다. 지역의 창작스튜디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작가의 창작 공간 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 수요 역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겠지만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개성이 뚜렷한 창작스튜디오 공간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난지도 창작스튜디오’는 2007년 서울시에서 창작작업실이 없는 ‘신진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하여 작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작업실 중심 레지던스 공간이다. 이곳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8개의 스튜디오 공간, 2개의 원형 전시장, 야외 작업장 등 28명의 입주 작가가 있다. 대한민국 국적 만 40세 이하 국내외 거주 미술 작가들 가운데, 전용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서류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이곳은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가 관리한다.<sup>60)</sup>

2007년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청계천 창작스튜디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계천 활성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 기간은 1년이다. 3실의 스튜디오와 휴게실을 갖춘 이곳은, 오픈스튜디오, 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학생 연계, 작가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록 및 출판,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서울시 청계천 관련 문화예술 프로젝트와 재단에서 기획하는 연간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공모한 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sup>61)</sup>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재원에 의해 조성된 공립 형태의 창작스튜디오<sup>62)</sup>들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고 있다.

60) 서울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http://nanjistudio.seoul.go.kr>

61) [http://www.sfac.or.kr/cheonggye\\_studio](http://www.sfac.or.kr/cheonggye_studio)

6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컨설팅지원센터협력단 online.arko.or.kr/국내레지던스 및 양건열 외,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200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록자료, 관계자 유선 인터뷰, 인터넷 자료 등 참조

63) 2008.11.19 최재우 대표 전화인터뷰, “당시 군의회 부의장의 제안과 지역 예술가들의 요구가 합치되는 부문이 있었고,

지역	창작스튜디오명	특징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달예술인촌	○2001년 폐교활용, 지역미술작가 중심
	○대구미술광장	○2000년 대구 달성군 용계초교 정대분교 폐교 활용, 사회미술교육원 운영
경기	○화성시 창문아트센터	○2001년 폐교활용, 농촌체험마을운영
	○안성문화마을	○2001년, 안성 구 대문초교 폐교 활용, 도예체험, 학교연계체험프로그램 운영
	○양평군 예술창작스튜디오	○폐교활용, 양평군청에서 조성, 체험학습, 도예, 국악 중심
강원	○평창 무이미술창작스튜디오	○폐교활용, 평창군청 조성, 운영, 건물무상임대, 2004년 당시 행자부 지원으로 아트숍 등 건립, 도예, 서예, 문화강좌 중심으로 운영
	○강릉 제비리미술인촌	○2001년 폐교 활용, 전통가마, 도내 봉사활동 장소로 등록, 문화센터, 체험프로그램 있음. <a href="http://www.jebihome.hihome.com">www.jebihome.hihome.com</a>
	○박수근마을창작스튜디오	○ 강원도 양구군 소재 ○ 박수근미술관에서 운영, 국내작가 중심
	○정선미술관	○ 정선군에서 소유하여 무상임대, 작가 거주
경북	○제천예술창작스튜디오	○2000년 문화부 1억원 등으로 조성, 도예실, 전통무용실, 풍물, 제천 예술인마을 문화학교 운영
	○내곡예술촌	○1997년 폐교 활용, 전문작가(화가, 조각가) 창작스튜디오 및 현장체험학습장으로 활용.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sup>63)</sup>	○2000년 폐교 활용, 도예실, 회화, 도예, 풍물, 연극, 금수현대미술제, 청소년전통문화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있음. <a href="http://www.arkkumsu.or.kr">www.arkkumsu.or.kr</a>
	○구미 예술창작스튜디오	○2000년 폐교 활용, 시비 2억원로 조성. 도자기 공예, 평생교육원(금오공대 협동), 다도, 문화체험행사, 연극연습실, 구미교육청 지정 아트타운 특기적성 장소로 활용
	○상주 상주예술촌	○2002년 폐교 활용, 국비 1억, 시비 1억로 조성, 청소년 예술캠프, 연극, 음악, 회화 중심으로 운영
	○호당미술창작스튜디오	○경북 영천 소재
경남	○김해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1999년 폐교 활용, 김천시청, 마사회 1억, 지자체 1억으로 조성, 김천교육청 지원, 문화체험, 도예연수 프로그램 운영. <a href="http://www.gimcheon-e.go.kr">www.gimcheon-e.go.kr</a>
	○김해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	○2000년 시비 2억, 마사회 기금 2억으로 조성, 김해시청 시비로 스튜디오 운영비 등 기본적인 관리비 충당. 판화실, 사진작업실, 도자기실, 동.서양화실, 조형작업실, 조각실, 공예실, 전시실, 카페테리아, 도자가마 있음.
	○박찬갑스튜디오	○2002년 폐교 활용, 경남 산청군청 운영, 판화실, 국제조각심포지엄,

		인근 한방단지와 함께 조각공원 조성, 조각가 박찬갑씨를 초대작가로 입주하여 스튜디오 운영
	○진해미술창작스튜디오 예술촌	○ 2004년 진해시에서 임대하여 조성, 작가 6인, 3단체 입주
	○가인예술촌	○ 전문 행정 인력 있음
	○의령, 합천, 사천 예술창작스튜디오 등 지자체에서 조성, 운영	○1997년 폐교 활용, 밀양시가 밀양교육청에 임대하여 무상 제공
충남	○논산미술창작스튜디오	○1998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조성, 논산시청으로 이관
충북	○방곡도예원,	○1997년 조성, 너부리 가마, 방곡도자공예교육원 운영
	○청원마동창작마을	○폐교활용, 마사회 기금 1억 등으로 조성, 자연체험, 미술체험 학습 프로그램 있음.
	○진안예술창작스튜디오	○2002년 폐교 활용, 국비 1억, 군비 1억(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비)로 조성, 폐교 무상임대 5년 계약(진안교육청과 진안군청), 도예실 등 시설운영비 군에서 지원, 도예체험교실있음.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2002년 조성, 미술인, 연극인, 가스가마실, 장작가마동, 도예학교, 마당불축제, 연극학교 등 프로그램운영 <a href="http://www.mujuart.net">www.mujuart.net</a>
전북	○정읍시 예술창작스튜디오	○정읍시에서 구군청건물을 개조하여 조성, 예총 위탁운영계약(2년) 작가 거주는 없고, 전시공간과 교육공간, 사무실, 창고있음. 시내 전시공간부족으로 이곳은 현재 주로 전시공간과 시민문화체험교육공간으로 활용, 기획전 “우리집 소장전”개최, 시내 300여 예총 회원 중 2~30대 작가 2~30명 내외로 젊은 예술 인력 부족(정읍예총 기획국장 인터뷰)
제주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08년 신설

#### 4) 국내 민간운영 창작스튜디오 현황<sup>64)</sup>

아래는 지역의 몇몇 대표적인 민간 운영 창작스튜디오 현황을 조사한 것에 불구하고, 이밖에도 조사되지 않은 창작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며 새로운 공간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	창작스튜디오명	특징
----	---------	----

문화관광부와 성주군에서 매칭하여 폐교를 리모델링, 창작스튜디오로 활용, 조건은 지역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작가들의 창작작업실로 활용. 시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하여 ‘작가운영위원회’에 위탁운영토록함. 전기세, 전화료, 보험료 등 기본관리비로 800만원지원하고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500만원지원, 군내와 거리상 상설프로그램은 어렵고, 학생들의 예술체험과 강사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 레지던스 공간은 학교내 사택이나 학교주변의 우체국 건물의 가정집 등을 활용”

64) 사실 이곳에서 언급된 민간운영의 예술촌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뷰 과정에서 알게 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최근 3개의 자생적인 예술촌이 생겨났고, 경남의 경우만 해도 삼진미술관, 구북예술촌, 사천예술촌, 도산예술촌, 정수예인촌, 해오름예술촌, 화몽예술원, 황토학교 등 수많은 예술촌들이 존재하고 있고 2005년엔 이들 경남 예술촌간의 협력을 위해 ‘경남예술촌협회’가 창립되기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술촌이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	○쌈지스페이스	○1998년 (주)레테데코 쌈지에서 조성한 민간의 대표적인 미술 전문창작스튜디오로 큐레이트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도 운영.
광주	○의제 창작스튜디오 <sup>65)</sup>	○2006년 의제문화재단에서 조성 운영 ○의제 허백련 선생의 예술관과 철학에 바탕 ○만25세이상 국내외 미술작가 ○숙박시설지원. 창작 워크숍, 공공미술 프로젝트, 개인 창작 전시지원, 한국문화체험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월 90만원 체제비 지원(모든 참여작가)
부산	○오픈스페이스 배 <sup>66)</sup>	○작가들이 운영하는 대안공간으로 2000년 아트인오리에서 창작, 전시 공간으로 운영, 2006년 오픈스페이스 배로 개칭 ○매년 공모 스튜디오, 숙소와 전시공간 제공 ○재원 : 위원회, 부산시, 기금마련 경매전, 지역미술인과 후원자 비영리 법인 ○1층 입주작가 숙소 2층 아카이브 세미나룸 10평, 스튜디오 40평 3개, 15평 3개 2007년 장기입주작가 3인 5년 모두 부산 출생자, 2007년 단기 입주 작가 3인 6개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미술아 놀자(4만5천평 숲체험프로젝트, 200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 ○2007 아트인시티 공모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산 안창마을 추진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2007년 아트팩토리 숲으로 개관(재활용전문기업 ‘서봉리싸이클링’에서 공장을 개조, 다원예술분야 레지던스로 활용)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로 개칭, 시각예술중심
경기	○장흥아뜰리에	○2006년 가나아트센터에서 조성, 운영
	○영은미술창작스튜디오	○2000(제)대유문화재단 영은미술관
	○금호창작스튜디오	○2005년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에서 조성, 금호미술관 운영(경기도 이천) ○입주기간 1년(평면, 입체 등 미술 중심), 5명 내외 ○1개동 9개실, 기타 편의시설
	○아름다움 만들기	○경기도 가평 소재(구 계곡분교) ○장애인 예술 공동체로 운영, 천연염색, 환경교육 등
	○왕곡천예술인마을	○경기도 의왕시 내 예술인 마을, 자체 운영위원회 운영. ○숲속테마예술제 개최
	○스톤앤워터, 현대도예문화원, 한수문화원, 우음도 생태문화학교, 밀머리미술학교, 비닐하우스 AA, 구산오픈스튜디오 등	
	○정선호촌미술관	○1998 폐교 활용, 청소년캠프장, 목공예실, 도예실, 도자체험장,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원	○후용공연예술센터	○2001년 폐교 활용, 극단 노들 운영
전북	○오공리예술인촌	○1995년 설립된 민간창작스튜디오



충북	○ 청주복합문화공간 HIVE	
충남	○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경남	○ 마산아트센터	○ 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연구원』 부설로 운영되는 사회적 문화공동체 ○ 갤러리와 야외조각전시장, 창작스튜디오, 판화공방, 도예공방, 휴게실 게스트하우스 구비 ○ 2008년 전국예술촌연합전 개최(전국 25개 예술촌 참여)
	○ 마산구북예술촌, 남해해오름예술인촌 등	
전남	○ 담양예술창작스튜디오	○ 2002 폐교 활용 조성, 염색실, 국악실, 공예실, 서예실, 문예아카데미 운영

65) <http://www.uijaeart.net/>

66) <http://spacebae.com>



본 장에서는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국제레지던스’사업 운영상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사항들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술위원회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 사업 현황 분석과 지원 대상 사업의 성과 분석,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현황 검토, 예술위원회의 창작기반조성을 위한 창작스튜디오공간 관련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한 후,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 제1절 국제레지던스 사업의 쟁점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창작스튜디오 공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가 있다. 국제레지던스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하며, 국제레지던스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작스튜디오공간’ 또는 ‘레지던스공간’ 자체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예술정책’<sup>67)</sup>에는 ‘창작스튜디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언급되어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존 창작스튜디오의 공간 제공 역할을 확대 발전시켜 개방적, 적극적 개념의 창작 스튜디오 확충으로 예술창작 인력의 교류와 거점 마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첫째, 창작 스튜디오 개념 미비 및 법적 근거 부재 등으로 대안 공간적 성격으로 운영되거나 미술관 부설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점, 둘째, 법적 근거 미비로 창작스튜디오 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효과가 미흡하여 소수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다수에 대한 공간지원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지속적인 신규 조성에도 불구하고 창작스튜디오 간 프로그램 정보의 교환 등 협력체계가 부족하여 공·사립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부실을 언급하고 있다.

새 예술정책은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첫째, 문화예술진흥법 상 창작스튜디오 설치 근거 조항의 법 제정을 통해 창작스튜디오의 개념과 등록 여건을 규정하고 정책 대상화함과 동시에 건축법상에도 근거를 마련하여 창작스튜디오 확대와 각종 지원 혜택 부여하는 방안, 둘째, 국립 창작스튜디오 창설 및 국제 창작스튜디오 조성을 위해 국립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공간제공 외에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셋째, 광역단위 공립창작스튜디오를 가급적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67) 문화관광부,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예술의 힘」, 2004, pp210~214

지역에 조성하여 미술인에게 필요한 공간 제공에 주력, 보급하는 방안, 넷째, 민간 창작스튜디오에서 신진미술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지원하고, 민간 창작스튜디오를 공공문화시설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고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다섯째, 전국 및 해외 창작스튜디오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내 책자 발간하여 정보 제공하고, 전국 창작 스튜디오 협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새 예술정책에서 언급한 포괄적인 내용들과 지금까지 검토해 온 국내외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들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공통된 쟁점 사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는 비단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의 전략 목표 속에서만 다루어질 성격인가의 여부다. 왜냐하면, 국제레지던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국내의 레지던스 공간 혹은 창작스튜디오공간 운영의 제도화와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의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국가 문화 정책적 선언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예술위원회 사업 속에 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의 창작스튜디오 혹은 레지던스 공간 운영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위원회의 중장기적 전략목표 속에서 예술 활동의 중요한 창작기반인 ‘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이 현실화될 때,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을 전략목표로 하는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의 큰 틀 속에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특성화 전략과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창작스튜디오’, ‘예술촌’, ‘레지던스’, ‘해외레지던스’, ‘국내레지던스’,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등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됨으로써 개념 간 혼란이 많다는 점이다. 국내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스 공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폭발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명칭을 가진 관련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예술창작스튜디오, 아트 스튜디오, 예술스튜디오, 문화예술촌, 미술촌, 예술촌, 연극촌, 예술창작촌,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Artist-in-Residence Program), 비영리 대안 공간 등 유사한 명칭들이 문화예술계 현장뿐만 아니라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범주 내에서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레지던스’ 개념이 혼선을 빚는 이유는 국내외 예술 창작 작업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개념 자체의 진화에 따라 과거와 미래의 시각과 입장들이

다양하게 공존하기 때문이며, 그동안 주로 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공연예술분야에서도 이러한 논의와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위원회가 정책대상으로 삼는 ‘국제레지던스’와 ‘레지던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대상으로서 기존에 사용해 온 ‘예술창작스튜디오’, ‘예술촌’, ‘예술창작촌’ 등은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 개념이며 ‘레지던스’는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 개념으로써 ‘레지던스’를 언급할 경우 ‘창작스튜디오’로 가급적 통일하고,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한 경우, ‘레지던스’가 아닌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통일하여 명칭 하는 것이 더욱 명확할 것이다.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가 거주(레지던스)공간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스를 혼동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이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작가 거주와 관련된 사업들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예술위원회의 정책대상이 좀 더 분명해 질 수 있다.

실제로 국립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와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 영천 예술창작스튜디오, 광주광역시 양산동 미술창작스튜디오, 팔각정 미술창작스튜디오 등 시각분야의 국공립 창작 레지던스 공간은 ‘창작스튜디오’라는 명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스튜디오’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공간(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지원 사업과의 모호한 경계로 인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왔다.

특히, 시설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는 민간예술단체가 운영하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더욱 그러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술위원회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민간단체 중에는 본격적인 ‘레지던스’시설을 갖추 공간은 매우 부족하며, 이들의 주 설립 목적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인 경우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동안 이 사업에 지원을 신청 단체들은 본격적인 ‘창작스튜디오’ 공간이라기보다는 예술협회, 예술단체, 예술센터, 재단, 미술관, 기획사, 극단, 문화원, 예술인 마을, 청소년센터, 대안공간, 미술연구소, 복합문화체험장, 보충대리공간, 연극마을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였다. 예술위원회 내 ‘창작스튜디오’공간 지원 사업

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즉, 국내의 ‘창작스튜디오 공간’ 자체의 기반은 약한 가운데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활성화 되고 있는 앞뒤가 전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위원회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의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특성화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주된 운영 공간인 ‘창작스튜디오’를 튼튼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sup>68)</sup>

셋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sup>69)</sup> 2006년 이후 예술위원회가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을 통해 창작스튜디오와 관련한 사업을 지속하여 왔다. 현재,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창작스튜디오’와 ‘국제레지던스’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사업 운영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창작스튜디오 공간’과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이 개념 상 명확히 구분된 후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레지던스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고 장기적인 전략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일회성 국제레지던스 사업’ 혹은 ‘레지던스 성격을 가지는 단기 프로젝트 형태의 국제교류성 사업’과의 구별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르별 특화가 된 사업이거나 학제 간 통합, 지역 별 특수성 등이 잘 고려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특화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고 공공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이 공간들이 2005년을 전후 하면서 다양한 국내외 교류 거점으로 활용되기를 요구받고 있으며, 공간 자체도 스스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결국, ‘창작스튜디오’ 개념에

68) 박신의 ‘작업실 지원정책의 유형과 접근의 다양성,’작가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창작스튜디오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다소 아폐가 있다.”...“이제 창작스튜디오 정책을 논할 때, 개념 자체를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창작스튜디오를 지원하여 건립할 경우, 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 레지던스를 목표로 하는 스튜디오와 작가의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스튜디오가 그것인데, 이제부터는 이 둘을 혼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지 말고 ...이제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작가의 안정적인 작업실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집중하여 고민하자는 것이다.”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사업, p.187

69) 예술위원회 국제레지던스 사업팀인 국제교류팀에서 2006년 동 사업을 “시각예술을 제외한 타장르의 경우 아직 레지던스의 개념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고, 특히 문학의 경우 ‘문화예술국제교류’유형과의 차별성이 떨어질. 레지던스의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나, 개념이 정착되고 있는 과도기임을 감안하여 공연예술분야의 레지던스 참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을”이라고 자제평가하고 있다.

는 본래의 기능인 ‘창작 작업 공간 제공’과 새로운 시대 요구인 ‘국내외 교류 거점 공간’이 혼합되어 지원 대상과 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95년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예술창작촌, 작가공동체로서의 창작스튜디오라고 기록되고 있는 ‘하제마을’의 경우, 작가들의 창작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에 설립되었으나, 2005년을 전후하여 외국의 작가(하제마을 단기프로그램으로 초청된 미국 국적의 Alan van every)를 초청하여 해외 교류를 시작한 이후 ‘창작스튜디오’의 성격을 단순한 작가들의 예술창작공간에서 점차 국제교류공간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하제마을에서 외국 작가 초청 등을 통한 레지던스 운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을 “적극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고립된 지역성을 극복하고 창작에 대한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 작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함과 아울러 이를 통한 상호 교류에 비중을 두어 입주 작가들의 해외 활동을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현실적인 목적”에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sup>70)</sup>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역시 건립 초기에는 국내 작가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몇 년 사이에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현재 이곳에 거주하면서 작업을 하는 외국 작가들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역시 현재로서는 운영 초기이므로 국내와 지역작가가 중심이 되겠으나, 향후에는 외국 작가들을 초청하여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씬지스페이스나 영은창작스튜디오, 후용아트센터, 장흥아뜰리에 등 2000년 이후 민간단체에서도 과거 어느 정도 레지던스 운영 경험에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폐교를 개조하여 ‘예술창작촌’, ‘예술인 마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예술가 거주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위원회 내 소위 이들 민간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뚜렷한 지원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레지던스 발전의 초기 단계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또는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예술가들에게

70) 바람부는연구소, 「경기지역 문화예술인 창작촌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연구보고서, 2006, p101

삶과 작업 공간이 되는 ‘창작스튜디오’의 기본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특히, 지역 중심의 ‘국내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와 지원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과거, 1997년 문예진흥원에서 시도한 ‘미술창작실 조성 및 운영’ 사업의 대상인 인천 강화의 미술창작실은 현재 문을 닫았고<sup>71)</sup>, 충남 논산의 미술창작실은 공간 자체가 지역 교육청의 재산인 관계로 더 이상의 임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sup>72)</sup>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론적으로, 예술위원회가 직접 전국을 대상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폐교의 경우, 접근성과 지역과의 특수성 등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으므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심층적인 사전 기획 단계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창작스튜디오 지원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경우, 기존에 추진한 사례들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당시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작스튜디오나 레지던스 공간 운영에 있어 ‘폐교’ 자체의 공간적 불안정성이다. 당장은 지역 예술가를 위한 창작 작업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의지 등 지역 행정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문을 닫고 있는 학교, ‘폐교’<sup>73)</sup> 자체에 대한 국가 정책적 방향과도 무관하지 않는 사안이다.

아직까지는 지역의 많은 창작스튜디오가 소유 주체의 문제, 임대 등 공간 불안정, 다양한 지역 행사 참여 등으로 창작 작업에 안정적으로 장기간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창작스튜디오 내 전문운영시스템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인

71) 하지만, 현재 인천 강화의 미술창작실은 문을 닫았다. 2008.10.22일, 강화군 예술 지회장(이회근 지회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그곳은 종교관련 단체가 해당 폐교를 강화군 교육청으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어 강화의 미술창작실은 문을 닫았다. 현재는 강화군내 개인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심원미술관, 독성예술센터, 코스모스갤러리 등 몇 개의 공간을 작가의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독성예술센터’는 강화군내의 전업 작가 12인이 단체 명의로 각자 부담하여 1천 8백만원에 ‘구 독성초등학교’를 교육청으로부터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작업공간으로 어렵게 운영해 나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인천광역시와 강화군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의 경우, 정작 지역 문화예술인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본래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상의 단계부터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72) 2008.10.22일, 현재 논산 미술창작실의 운영을 맡고 있는 작가협의회 회장(안의종 교수)은 전화 인터뷰에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잘 운영되어 온 논산 미술창작실이 현재 학교 소유자인 교육청으로부터 공간 임대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였다.

73) 「좋은뉴스」(news.isegye.com), 블로그포스터, “07년 12월, 기획예산처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3천16개교로, 원래 있었던 1만4천452개교의 20.8%에 이르렀다. 이중 초등학교는 9천174개교중 31.9%인 2천928개교가 폐교됐다. 거의 3개교 중 1개교 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중학교는 3천122개교중 2.4%인 76개교, 고등학교는 2천156개교중 0.5%인 12개교가 각각 사라졌다. 이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폐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007.12.12.



레지던스 공간으로써 운영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창작스튜디오 내 성향과 성격이 다른 여러 장르의 작가가 함께 공간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지향점과 운영방안 등을 결정하는 전문기획자가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는 당시 문예진흥원 미술회관팀장인 김찬동의 분석<sup>74)</sup>은 지금도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의 창작스튜디오가 양적인 증가에 반해 특성화된 곳이나 활성화된 곳이 부족한 것이 문제이며, 그 원인이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식이 낮아 그에 따른 미션과 프로그램, 시스템, 활동이 경직되어 있다(양건열)’는 지적<sup>75)</sup> 역시 적합하다.

넷째, 국제레지던스 사업에 있어, 레지던스 공간의 지리적 위치, 시설 임대나 위탁 운영 등 공간 소유권의 문제, 전문 기획 인력 존재 유무 등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기관 간의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 지자체와의 다양한 협조 방안 개발이 논의 될 수 있다. 최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사업과 예술위원회의 예술 정책적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 협력형’ 사업들과의 연계선상에서 ‘창작스튜디오’ 지원은 여러 가지로 상생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각 지역의 공간운영을 위한 재원을 다양화하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며, 정보제공과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로서 기능하면서 실질적인 지역 문화 예술의 창작 여건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위원회가 확보한 해외 주요 문화기관간의 협력 네트워크 망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유럽권, 아시아권, 남미권, 오세아니아권 등 권역 별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교류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는 예술위원회의 다른 국제교류사업들과 유리된 사업이 아니라, 국제교류의 종합적인 전략 방향에서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이다.

## 제2절 국제레지던스 지원 사업 현황

74) 김찬동, ‘국내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미술과 담론』, 2002년 여름

75)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개선방안,’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 1차 정책포럼 자료, p10

## 1. 국제레지던스 지원 사업 개괄

예술위원회 국제교류사업 중 하나인 국내 단체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의 목표는 ‘해외 예술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다.

사업의 초창기 취지는 국내 지역별 주요 문화시설 운영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창작 레지던스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을 국제문화예술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며 해외작가 참여 기회 제공 및 교류협력을 강화를 위한 창구로 활용하는 데 있었다.

이상의 사업 취지에 따라 2006년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문학, 미술, 공연예술 등 국내 창작촌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조직한 단체에게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의 경우, 19개 단체가 19개 사업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 평균액 8천7백 만 원, 총 사업비 평균액은 1억5천2백 만 원(총 사업비 대비 약 57%)이었다. (사)민예총 충북지회의 ‘동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 (재)의재문화재단의 ‘백만인이 키우는 무진이프로젝트’, (주)가네샤프로덕션의 ‘폐포밍아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노리단의 ‘2006 노리단 소리노리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4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단체 당 평균 5천만원(지원총예산 2억원)을 지원하였다.

2007년의 경우는, 12개 단체가 12개 사업에 대해 지원 신청하였고, 신청 평균액 8천3백 만 원, 총 사업비 평균액은 1억4천1백 만 원(총 사업비 대비 약 58%)이었다. (사)민예총충북지회의 ‘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 쿤스트독의 ‘국제 창작 스튜디오(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통의동프로젝트’,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의 ‘2007 아시아-프랑스 광대 교류전’, 창문아트센터의 ‘창문아트센터 레지던스(생태마을 만들기)’, 그리고 극단 노뜰의 ‘2007 후용공연예술센터 아티스트-인-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5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각각 평균 4천9백만원(지원총예산 2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의 경우, 10개 단체가 10개 사업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하였고, 신청 평균액 8천2백 만 원, 총 사업비 평균 1억6천2백 만 원(총 사업비 대비 약 50%)이었다. 청주북함문화체험장의 ‘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창작 네트워크’, (사)국제 아동청

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의 2008년 국제레지던스 ‘대한민국, 다시 승천하는 아시아의 龍’,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위터의 ‘2008 새로운 공동체운동을 실천하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극단 노들의 ‘노들 후용공연예술센터 아티스트-인-레지던스 2008’ 등 4건의 사업에 평균 5천5백만원(지원총예산 2억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장르별, 지역별 신청단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문학	시각	연극/무용	음악/전통	복합
서울		<b>06</b> 접는미술관 Lost in town Studio <b>07~08</b> 씬시스페이스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b>07</b> 쿤스트독미술연구소 국제창작스튜디오(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	<b>06</b> 달라에듀테인먼트제1회 세계가면&인형극축제 <b>08(사)</b> 한국무용협회 ICPR 국제커뮤니케이션 퍼포밍	<b>06</b> 백호청소년문화협회 백호국제청소년음악캠프 <b>06</b> 가곡협회 중후 <b>06</b> 북촌전통문화원 Hi soul in Asia	<b>06</b> 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공 뉴미디어실크로드(국제포럼) <b>06</b> 스페이스바바 코시안 <b>06~07</b> 노리단 소리노리터레지던스 프로그램 <b>06(주)</b> 가네사프로덕션 퍼포밍아트국제레지던스 <b>08</b> 다원예술레지던스센터 완두콩 운영사업
광주		<b>06 (재)</b> 의재문화재단 백만이 키우는 무진이프로젝트 <b>07(사)</b> 에뽀II 국제문화예술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지원(대지의호흡소통)팔각정, 양산동			<b>08(사)</b> 민족문화작가회의광주전남지회 광주문화중심도시네트워킹구축(전남대)
경기		<b>06</b> 헤이리국제창작레지던스 <b>06(재)</b> 영은미술관 YIAIR(Yo ung artist in <b>07</b> 창문아트센터 생태마을만들기-창문아트센터레지던스프로그램 <b>07~08</b> 대안예술공간 스톤앤위터 국제재래시장 레지던스 프로그램	<b>07(사)</b>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세계가 함께-하는 우리문화 워크숍(화성민들레연극마을) <b>08(사)</b>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한국본부 대한민국, 다시		

			승천하는 아시아의 용(화성민들레연극 마을)		
강 원			06~08 극단노뜰 후용 공연예술센터 국제예술가 캠프		
충 북		06~08(사)민예총충북지회 "HIVE(청주북함문화체험)" 동아시아레지던스창작네트 워크운영	06(사)한국민족극운 동협회 동아시아연극인 프로젝트 마당		
충 남		06~08(사)한국자연미술가협 회 야투스튜디오레지던스프로 그램			
경 북			06금수문화예술마 을 CITY OF KOREA 한국전통연희의 세계화 07~08(사)한국민족 극운동협회 광대교류전(금수예 술마을외)		
경 남			06~07(재)통영국제 음악제 통영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06 클레이아크김해미 술관 국제레지던스프로 그램운영지원		

## 2. 국제레지던스 지원신청사업 현황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2006년 이후 예술위원회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단체별 신청 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개별적인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한 특징은 아래 표에서

다루었고, 지원 신청 단체 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단체들의 경우는 다음 나 항목(‘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선정 단체 사업 수행 현황)에서 다루었다.

2006년 지원 신청한 19개 사업은 먼저, ‘국제레지던스’ 개념에 대한 혼선이 있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국제행사 참관 및 국내포럼 개최(뉴미디어 실크로드)’, ‘국제적 축제 개최(제1회 세계 가면과 인형극 축제)’ 등 국제 행사성 사업의 신청이 있었고, 새롭게 네트워크를 구축(동아시아 연극인 프로젝트-마당, 동아시아 AIR 창작 네트워크, Cry of Korea)하거나 다문화 현상 등 사회문화적 이슈와 관련된 프로그램(코시안), 지역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접는 미술관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국제레지던스, 백만이 키우는 무진이 프로젝트)등과,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는 워크숍 중심의 사업(퍼포밍아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등의 ‘프로젝트성’ 사업의 신청이 많았다. 특정 음악원 출신을 초청하여 음악캠프를 운영하는 사업(백호 국제청소년 음악캠프)과 음악 관련 축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사업(통영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있었다. 또한, 우리 전통 선비 및 규방 문화를 특징으로 한 레지던스 프로그램(Hi, seoul in Asia), 전통 상류사회 음악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중후(Gentlesong))과 자연미술운동을 특징으로 하는 레지던스(야투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놀이를 중심으로 한 레지던스(노리단 소리노리터 국제레지던스), 각국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YIAIR 프로젝트)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사업들도 있었다.

2007년 지원 신청한 12개 사업 중 연속 신청한 사업은 ‘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 ‘노리단 소리노리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야투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재)통영국제음악제의 ‘TIMG 국제레지던스’ 등 4개 사업으로 이중 ‘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가 지원 대상 사업이었다. 또한 2008년 지원 신청한 10개 사업 중 ‘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은 3년 연속 신청하여 지원대상이 되었고, ‘야투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은 3년 연속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원 대상에서 계속 제외되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 연속 신청한 사업으로는 ‘노뜰 후용공연예술센터 아티스트-인-레지던스 2008’과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의 ‘마당극 세계화를 위한 광대 교류전’이었으며, 각각 2007년과 2007년 및 2008년에 지원대상이 되었다. (사)국제 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의 경우, 2007년에 ‘세계와 함께하는 우리문화 워크숍’으로 신청, 지원받지 못했으나 2008년 국제레

지던스 ‘대한민국, 다시 승천하는 아시아의 龍’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되었다. 대안예술 공간 스톤앤위터의 경우도, 2007년과 2008년 연속 신청하여, 결국 2008년 ‘2008 새로운 공동체운동을 실천하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이 되었다. 2008년엔 무용분야에서도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2008 ICPR 국제커뮤니케이션 퍼포밍)하여 신청하였으며, 다원예술분야에 특화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다원레지던스 센터-완두콩)도 있었다. 이상에서 보면, 2006년 이후 생성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변화, 발전시키며 지원 신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신청 단체가 소수에 불과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단체가 매우 부족한 점을 보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엔 기초적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간 문제에 있어 폐교 등의 창작스튜디오 이외에 전문적인 자체 ‘레지던스’ 공간을 갖춘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다른 단체의 거주 공간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로, 레지던스 전문인력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역시 드물었고, 개별적 초청으로 입주 작가를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신청한 사업들과 선정된 사업들의 프로그램 영역이 단순한 국제교류성 사업과 개별적 프로젝트성 사업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과 특화된 프로그램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현재,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신청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매우 폭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006년 지원 신청 사업 현황>

사업명	뉴미디어 실크로드(국제포럼: 아시아 뉴미디어 실크로드)
신청 단체명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중심장르	·다원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해외 뉴미디어아트 행사 참관 교류. ·국제 뉴미디어아트 단체·작가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국내 국제포럼 개최 ·아카이브 구축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뉴미디어 행사, 뉴미디어 아트센터/대안 공간 참관 및 답사 ·기획자, 작가, 활동가 인터뷰 및 기록/관련 연구물 수집 ·관련단체 기획자, 활동가 초청/국내에서의 국제포럼 추진

	·연구자료 출판 및 아카이브 구축
주요설비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프랑스, 한국(홍익대학교)
전문인력 유무	·총책임, 기획 :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
사업명	동아시아 연극인 프로젝트 ‘마당’ (East Asia Theatre Project-Madang)
신청 단체명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중심장르	·연극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동아시아에 한국의 마당극을 알림. ·전통 연회를 표현 방법으로 하여 기층 서민들의 리얼리티를 그린 대용 공연 장르에 대한 이해를 높임 ·동아시아 젊은 연극인들의 교류와 연대의 틀을 구성 ·조직 단계에 있는 East Asia People's Theatre Association을 한국의 주도적 관여와 참여로 진행하고 이 조직의 주요 사업으로 동아시아 연극인프로젝트 ‘마당’을 정례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대만, 홍콩, 북경, 상해, 일본의 동아시아 젊은 연극인들의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동북아 젊은 연기자와 트레이너를 대상 ·3달간 합숙하며 워크숍, 세미나, 발표회 진행 ·각 국의 고유 공연 양식 소개 ·각국 참가자를 20여명으로 제한
주요설비	·청원 예술공장 두레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지자체보조금/·개인기부금
사업명	2006 백호 국제청소년 음악캠프
신청 단체명	백호청소년문화협회
중심장르	·음악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모차르트 음악원 출신의 다양한 클래식악기 다국적 연주가들을 초청, 국내 연주가들과의 공동 워크숍, 연주회 및 청소년 국제음악캠프를 개최 ·국제 민간 예술네트워크의 발판을 마련 ·참가자들이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2006 백호 국제 청소년 음악캠프-2주 수료단위 1기~4기 음악캠프방식으로 운영. ·악기별 공동워크샵->실내악 공동지도->협연(캠프&공식연주회)->주 중 국립국악원 참관
주요설비	·도봉숲속마을 수련원 야외음악당 외 1개 거처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 /·자체자금 /·기업협찬금
사업명	Hi seoul in Asia
신청 단체명	북촌전통문화원
중심장르	·전통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한국 전통 선비 및 규방문화의 국제 홍보 ·해외문화의 이해와 수용 ·국제문화교류 네트워크 형성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미술품 공예품 전시 2회 ·전통복식: 한국 전통복식 재현 및 재해석 작품 20점, 패션쇼 2회 ·워크숍 -전통미술의 교류와 협력 2회 -전통공예의 교류와 협력 2회 ·체험학습 -공예품체험 -미술-궁중장식화 체험 ·레지던스체제 협력: 북촌한옥마을의 3개 Guest House와 전주한옥마을과 협력하여 한국전통가옥에서의 생활을 체험함.
주요설비	·북촌문화센터, 국립민속박물관, 전주한옥마을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후원)	·자체자금
사업명	제1회 세계가면&인형극축제
신청 단체명	달라에듀테인먼트
중심장르	·문화일반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우리나라에서 가면과 인형극 알리고, 세계의 가면과 인형극 소개를 위한 '세계 가면&인형극 축제'를 개최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공연 및 워크숍
주요설비	·나루아트센터
전문인력 유무	·General Director ·Artistic Director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 /·자체자금 /·기업협찬금
사업명	야투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사)한국자연미술가 협회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p>·국제적인 작가교류를 통해 한국의 자연미술 운동을 소개하기 위함</p> <p>·국내 자연미술 및 현대미술 작가들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p> <p>·풍부한 미학적 토대 위에서 자연미술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함</p> <p>·세계 자연미술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로서 역량을 강화</p> <p>·지역의 주민과 학생들로 하여금 새롭고 수준 높은 미술문화를 체험하도록 함</p> <p>·지역 미술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대안적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실험한다.</p> <p>·인근에 건설되는 행정복합도시에 특성화된 미술의 생산 및 연구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준비한다.</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p>·일반프로그램(General Program):국내의 작가들을 초대하여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개별작업 프로젝트 및 공동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p> <p>-개별작업(Personal Art Project)</p> <p>-공동작업 프로젝트(Cooperation Art Project): 음악, 문학, 무용 등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 공동작업을 수행</p> <p>-세미나(Seminar): 환경관련 과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등이 참여하는 자연과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유치하여 예술가들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p> <p>-오픈스튜디오(Open studio): 작가, 학생, 미술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업실을 공개하고 레지던스 기간 중에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토론</p> <p>·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p> <p>-자연미술 감상프로그램: 레지던스 참여작가 및 자연미술 작가들의 작품 감상</p> <p>-작가와의 만남: 레지던스 참여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연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임</p> <p>-자연미술 체험 교실: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작가와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p> <p>·특별 프로그램</p>

<p>-사계절 연구 캠프: 레지던스 작가 및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정 기간(2박3일) 자연 공간에서 숙식을 하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p> <p>-전시기획 워크숍: 국내외 전시기획자, 미술평론가 그리고 미술관 관계자들이 작가들과 함께 작품제작 및 전시 기획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전시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진</p> <p>-미술대학 방문강의: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미술지망생들이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대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게 하는 한 편 지역사회 대학과 학생들에게 프로그램과 비엔날레를 소개함</p> <p>-마을과 예술: 참여 작가들이 마을 농민들과 농사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서 한국의 농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의 주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미술프로젝트를 마을사람들과 공동으로 수행</p> <p>·전시회</p> <p>·‘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와의 공조</p> <p>-비엔날레 기획 및 진행을 위한 각종 회의 및 세미나 개최</p> <p>-비엔날레 행사 자료 및 자연미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운영</p> <p>-소식지 발간: 비엔날레 홍보 및 진행 내용을 점검하고 거주 작가 및 세계 자연미술 운동의 흐름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계간으로 발간</p>	
주요설비	·야투 스튜디오
전문인력 유무	·매니저, 학예사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
사업명	2006 YIAIR(Youngun artist in residency) Project
신청 단체명	(재)영은미술관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p>·세계 각국의 레지던시 프로그램들과 협력하여 국제 작가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의 본격적인 토대를 구축</p> <p>·세계 각국의 미술작가 및 큐레이터, 평론가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창작, 학술,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 예술활동의 계기와 활발한 미술담론 생산의 장을 마련</p> <p>·초청 작가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지역(지역민, 학교, 장애단체, 기타 문화단체 및 기관 등) 참여프로그램으로 초청 작가들에게는 한국문화를 깊이와 다양성을 경험하고 이를 창작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보다 생활 가까이에서 예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p>·2005.3.17-7.10 영은2005레지던시</p> <p>·2004.3.18-7.11 영은2004레지던시</p> <p>·2003.8.13-10.5 영은2003레지던시</p> <p>·2002.9.5-10.20 영은2002레지던시</p>

프로그램내용	·창작공간지원: 오픈스튜디오, 작업결과물 영은미술관에서 전시 ·장르교류 ·학술 -해외작가 공동워크숍(Shall we d(discussion) -세미나( 국내의 창작스튜디오의 현재와 미래) ·전시프로그램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한국문화체험
주요설비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지역 학교 및 기타 공간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후원)	·사업수입/·자체자금
사업명	중후(Gentlesong)
신청 단체명	가곡협회
중심장르	·전통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아시아 5국 상류사회의 음악을 교류함 ·한국의 중후한 선비음악을 해외에 홍보함 ·해외 예술인을 통하여 한류의 지속 발전에 기여함 ·한국전통가곡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반을 조성함 ·가곡협회의 성장발전을 도모함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예술활동: 전통음악 중에서 궁중음악 등 상류사회의 음악을 위주로 공연함. 한국의 전통가곡과 함께 공연함 ·레지던스계획: 15일 체제, 5개국 팀 운영. 75일 레지던스 활동, 20일 준비함. 합계 95일 운영. 서울 공연 1회, 지방도시 공연 1회 ·공연: 한국의 가곡성악 5곡, 가곡기악 2곡, 외국의 음악 5-8곡을 2시간 공연. 서울에서는 한국의 집 지방은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대전에서 공연
주요설비	·한국문화의 집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자체자금/·기업협찬금
사업명	코시안(KOSIAN)
신청 단체명	스페이스바바
중심장르	·다원예술(대중)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 아시아 사진작가들의 참여와 함께 그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아시아 혼혈인들의 존재를 예술인의 시각으로써 재조명.
지속성	.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p>·장수초등학교/무주 무풍초등학교 프로그램</p> <p>-작가들의 작품제작 촬영: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작품제작, 혼혈어린이 가정방문, 장수초등학교 방문</p> <p>-운영지역의 일반인 참여프로그램: 일반/혼혈 어린이들의 각국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자동카메라 또는 1회용 카메라를 이용한 작품제작 참여</p> <p>·인천차이나타운 프로그램</p> <p>-10월 중 인천 자장면 대축제 참여: 중국인의 직접적인 자장면 행사 참여와 그곳에 거주하는 중국계 한국혼혈인들, 그리고 한국인들과 아시아 각국 사진작가가 함께 엉려진 한국 속의 중국문화 체험</p>
주요설비	·Spacevava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
사업명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p>·경남지역의 문화와 도시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영입, 도시의 문화발전 그리고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p> <p>·건축도자 레지던스를 통해 국내외의 유능한 작가들을 초청, 그들의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창작활동 및 국제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장르 간, 지역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 분야의 발전적 미래를 제시</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p>·일일작업시간: 24시간(어시스트 지원: 10:00-17:00)</p> <p>·프로그램 구성</p> <p>-작품제작</p> <p>-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p>
주요설비	·경남 김해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연수관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
사업명	2006통영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재)통영국제음악제
중심장르	·음악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현대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주입하고 있는 아시아 음악문화의 신질서 창조와 한국적 음악 자산의 세계화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획

	·참여 음악가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간 음악 정신과 예술적 감흥에 기인하여, 그들이 자국이나 세계 각국으로 건너가 건설하게 될 문화예술의 토양에 한국적 정서라는 거름을 심어주기를 바람.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사업계획</li> <li>-외국의 음악인을 초청해 그들의 창작활동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국내 젊은 음악가들의 연계로 더욱 뛰어난 창작품의 탄생을 이루도록 함</li> <li>·행사 사업계획</li> <li>-한국 문화의 체험 교육: 기초 한국어, 한복입기, 한국인의 식사예절 등 간단한 교육을 할 계획</li> <li>-윤이상 심포지움, 윤이상의 작품세계 소개</li> <li>-세미나-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고찰</li> <li>-아시아 각국의 현대음악 현황과 가야 할 방향: 초청되어 온 참가자들이 아시아 각국의 현대음악의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함으로써 그 속에서 따로, 또 같이 가야할 아시아 현대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li> <li>-2006통영국제음악제 참관</li> <li>-TIMF양상블의 워크샵, TIMF양상블 “한국 작곡가의 밤” 참관 및 한국 작곡가들과의 만남</li> <li>-세미나-세계 현대음악의 성향과 아시아인의 정체성</li> <li>-국내 유수 음악대학 탐방 및 수업참관</li> <li>-홈스테이 프로그램: 아시아를 이끌어갈 젊은 음악가들 간의 교류를 위해 통영에서 서울로 이동해 행사가 진행 될 때 시행</li> <li>-음악회 개최:“아시아의 음악가들”</li> </ul>
주요설비	·서울대학교, 통영시민문화회관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자체자금/·지자체 보조금/·기업협찬금
사업명	헤이리 국제 창작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사)헤이리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별된 다양한 국제적 예술가들에게 우수한 공간과 창작여건을 제공하여 그들의 창작욕구를 고양시키고, 예술가는 새로운 경험, 신선한 시도, 공동작업과 다양한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교류의 역량 이상의 결과물을 창조</li> <li>·창작을 위한 최대한의 자유와 여건을 보조하고, 전시, 공연 등 예술인의 표현과 결과물 발표를 위한 실질적 기회를 부여</li> <li>·헤이리 작가들과 국제적인 입주작가들과의 친밀한 교류와 소통을 시도하고, 이곳에서의 모든 활동을 국내외 주요 예술미디어매체와 비평가들에게 적극</li> </ul>

	소개, 홍보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p>·교류네트워크: 370 헤이리 회원과 교류, 헤이리 PAN(pan Artistic Network)참여.</p> <p>·헤이리의 300여 문화예술 인프라스트럭처 활용: 박물관, 갤러리, 음악감상실, 공연장, 소극장, 다목적홀, 녹음실 영화촬영소, 체육관, 서점, 카페, 레스토랑 등</p> <p>·헤이리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및 참여: 전시, 공연, 강좌, 워크샵, 체험프로그램</p>
주요설비	<p>·금산갤러리-창작스튜디오, 구삼재, 동화나라-레지던스, 리앤박 갤러리-레지던스, 갤러리 모아-창작스튜디오, 모티브#1-레지던스, UV하우스-이구동성소극장-레지던스, 갤러리 이비템-레지던스, 진아트-레지던스, 김정재조각공방-창작스튜디오, 한향림 갤러리-레지던스, 갤러리 회원-레지던스, HAS III-레지던스(총 13개 공간)</p>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자체자금/·국제기금/·기업협찬금
사업명	'Cry of Korea'-한국 전통연희의 세계화
신청 단체명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
중심장르	·문화일반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국내의 예술인들의 국제적인 레지던스 활동을 통하여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민간 예술네트워크 조직의 기반을 다진다. 사업을 통해 창작된 예술물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고, 지역문화인프라 향상에 기여를 한다.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p>·한국전통연희 워크샵</p> <p>-한국의 전통연희의 이해와 원리</p> <p>-마당극의 원리와 연기</p> <p>-탈 연기의 원리와 탈춤의 극적 재구성</p> <p>-탈춤의 현대적 재구성</p> <p>-탈 제작의 기본 원리와 탈춤의 극적 재구성</p> <p>-탈춤의 현대적 재구성</p> <p>-탈 제작의 기본 원리와 제작</p> <p>-굿의 원리와 재현</p> <p>-전통 풍물연희</p> <p>·공연: 워크샵 후 성과물 공연</p> <p>·문화체험: 정월대보름행사 참가/영산줄대기기 참관/설 맞이 행사</p>

참가/전통공연초청관람/전통문화체험	
주요설비	·금수문화예술마을
전문인력 유무	·기획실장 ·운영실장 ·무대감독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지자체 보조금/·기업협찬금/·개인기부금
사업명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LIT(Lost in Town) Studio	
신청 단체명	접는미술관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p>·LIT studio는 지역사회에 문화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성있는 예술가들이 작은 단위의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동일 미션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교류프로그램</p> <p>·입주작가로 선정되면 스튜디오와 숙소, 항공료를 지원받고 참여기간동안 지역주민, 국내예술가들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동네에 거주</p> <p>·LIT studio는 동네에 관한 여러 형태의 문화적 접근을 실험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연구 공간으로 운영된다. 동네를 주제로 연구, Show,출판, 국제교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의 공간인 동네를 재발견, 재해석하여 문화컨텐츠로 개발하고자한다. 즉, 일상적인 장소에서 재발견한 지역의 특수성을 문화컨텐츠로 개발하려는데 있다.</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2005 프리레지던스 프로그램, 서울
프로그램내용	<p>·미션1: “여행용가방” 기수별로 새로운 미션 제공.</p> <p>-명륜동에서 발견한 콘텐츠를 활용한 여행가방을 기획제작</p> <p>-동네여행을 통해 발견한 매력을 상품화(미래적인 상품)</p> <p>·발표방식</p> <p>-프로그램 참가 후 전시 발표회의 형태로 그 결과를 평가받도록 함</p> <p>-결과물을 대중에게 공개하여 그 결과를 평가받도록 함</p> <p>-오픈스튜디오, 미션“여행가방” 발표전시(공항)</p>
주요설비	·명륜동 한옥, 학교, 공공기관(동사무소, 새마을금고, 경로당, 문화센터)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기업협찬금
<2007년 신청단체 현황>	
사업명	2007 노리단 소리노리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내 노리단
중심장르	·문화일반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세계 각지에서 놀이와 학습과 예술을 통합적으로 작업하면서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해 온 작업자와 예술가들을 초대 ·도시 환경에 적용 가능한 멀티 패러다임-플레이 그라운드 모델 제시하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공간, 주체, 프로그램에 변형·확산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 구축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2006 노리단 소리노리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6.8 강원도 평창 무이예술관 레지던스 프로그램 워크숍 진행
프로그램내용	·참가단체별 악기제작 공개 워크숍과 쇼케이스 ·공동창작(설치형 모델, 이동형 모델, 세라피 모델로 세분)과 커뮤니티 예술을 주제로한 세미나 ·지역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마을 꾸미기 프로젝트 운영 ·한국문화정책 체험 프로그램(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교육문화교육진흥원 등과 교류)
주요설비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
사업명	반자본주의 예술운동을 실천하는 국제 재래시장 레지전시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대안예술공간 스톤엔워터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나라의 다양한 창작공간, 레지던시, 대안공간의 작가들을 초청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사라져가고 있는 재래시장과 지역 경제공동체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며,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미시 공동체의 자생성, 공동체성을 재생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마을 만들기과 경제 공동체 운동 촉발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창작워크숍 -석수시장 내 다양한 공간을 이용한 설치 및 기록 작업(석수시장 프로젝트에 참여) -안양천 프로젝트 등 안양천 변 환경미술 프로젝트 작업(안양천 프로젝트에 참여) ·참여작가 워크숍 -안양 공공미술 프로젝트(APAP)답사 및 토론 -아시아 디자인 네트워크(DNA)에 대한 소개와 새로운 교육운동의 가능성 ·외부 워크숍 -1부: 문화예술교육: 동시대 미술의 매개와 정책적 지원 -2부: 예술과 정치: 미시적 공동체 문화운동의 다양한 가능성 -3부: 새로운 공공미술: 문맥속의 예술의 확장을 위하여



	·결과발표 전시: 다양한 형태의 담론과 이를 위한 실천적 방향모색의 결과물, 토론 영상, 리서치 과정 기록
주요설비	석수시장 내 빈 점포, 스톤엔워터 공간
전문인력 유무	·프로그램 매니저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
사업명	세계가 함께하는 우리문화 워크숍
신청 단체명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중심장르	·연극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세계 각국에서 젊고 열정적인 작업자 및 한창 활동 중인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농업에서 파생된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농촌 활동을 체험하게 한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수업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워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화성과 서울에서 공연 추진 ·화성에서는 지역민을 위한 발표를 하게 되고 서울에서는 ‘제4회 아시테지 겨울 연극제’ 자유 참가작으로 초청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주요설비	·화성 민들레 연극마을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
사업명	쌈지스페이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쌈지 스페이스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국내외 신인 작가들에게 스튜디오 공간 및 국내외 미술관계자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작가로서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위한 현실적 환경 조성을 목표 ·참여 작가들간 정보와 영향을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창조지지를 진작 ·한국의 젊고 실험적인 작가의 작가적 역량 강화를 돕는 제반 프로그램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획자와의 네트워크를 보조함으로써 작가의 쌍 방향적 국제적 활동기회를 확대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2001년부터 시작. 매 해 오픈스튜디오전 개최
프로그램내용	·창작활동지원: 국내외 신인 작가들에게 스튜디오 공간 및 국내외 미술관계자와의 교류의 기회 제공. 7명의 국내작가(1년)와 12-15명의 외국 작가(또는 그룹, 3개월)를 초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가역량 강화 프로젝트: 참여작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비평가들, 선배작가 등과 1:1미팅을 통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비평, 경험과 조언 전수</li> <li>·국제강연회: 국내외 석학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동시대 미술의 현주소와 작가들의 과제를 강연회를 통해 알아본다. 일반 공개행사</li> <li>·레지던시 교환프로그램: 한국작가와 외국작가를 상호교환하는 3개월 프로그램. 2007년에는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두어 진행</li> <li>-상하이 비즈 아트: 전시와 레지던시를 동시에 교환. 사진 리서치를 위한 각 기관 큐레이터가 레지던시 교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드 게이트, 베이징: 한국작가 1인과 중국작가 1인의 상호교환</li> <li>-도쿄 원더 사이트, 도쿄: 한국작가 1인과 일본작가 1인의 상호 교환</li> </ul> </li> <li>·오픈 스튜디오 및 전시: 오픈스튜디오, 전시, 작가와의 대화, 공연, 도록</li> <li>·미술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참여작가 프리젠테이션: 비평가, 큐레이터, 이론가, 대학교수 등 미술관계자를 초대하여 스튜디오프로그램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소개</li> <li>·국내외 신진 큐레이터 레지던시: 한국의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외국 큐레이터 1인 35서 이하 국내 신진 큐레이터 1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 전시기회 제공 가능</li> <li>·관객과의 소통, 문화학습: 자원활동가들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외국작가들 보조</li> </ul>
	주요설비	·쌈지스페이스, 베이징 레드게이트, 도쿄 원더사이트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
사업명	야투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사)한국자연미술가 협회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제적인 작가교류를 통해 한국의 자연미술 운동을 소개하기 위함</li> <li>·국내 자연미술 및 현대미술 작가들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li> <li>·풍부한 미학적 토대 위에서 자연미술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함</li> <li>·세계 자연미술 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로서 역량을 강화</li> <li>·지역주민과 학생들로 하여금 새롭고 수준 높은 미술문화를 체험하도록 함</li> <li>·지역 미술대학과의 교류를 통한 대안적 미술교육의 가능성을 실험함</li> <li>·인근에 건설되는 행정복합도시에 특화된 미술의 생산 및 연구기지로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준비함</li> </ul>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프로그램(General Program):국내외 작가들을 초대하여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개별작업 프로젝트 및 공동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연구 진행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li> </ul>	

<p>-개별작업(Personal Art Project)</p> <p>-공동작업 프로젝트(Cooperation Art Project): 음악, 문학, 무용 등 다른 장르의 작가들과 공동작업을 수행</p> <p>-세미나(Seminar): 환경관련 과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등이 참여하는 자연과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를 유치하여 예술가들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p> <p>-오픈스튜디오(Open studio): 작가, 학생, 미술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레지던스 작가들의 작업실을 공개하고 레지던스 기간 중에 제작된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토론</p> <p>·교육 프로그램(Education Program):</p> <p>-자연미술 감상프로그램: 레지던스 참여작가 및 자연미술 작가들의 작품 감상</p> <p>-작가와의 만남: 레지던스 참여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하여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자연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임</p> <p>-자연미술 체험 교실: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레지던스 작가와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p> <p>·특별 프로그램</p> <p>-사계절 연구 캠프: 레지던스 작가 및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일정 기간(2박3일) 자연 공간에서 숙식을 하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p> <p>-전시기획 워크숍: 국내외 전시기획자, 미술평론가 그리고 미술관 관계자들이 작가들과 함께 작품제작 및 전시 기획과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전시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진</p> <p>-미술대학 방문강의: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미술지망생들이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대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게 하는 한 편 지역사회 대학과 학생들에게 프로그램과 비엔날레를 소개함</p> <p>-마을과 예술: 참여 작가들이 마을 농민들과 농사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서 한국의 농사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의 주민들의 삶을 반영하는 미술프로젝트를 마을사람들과 공동으로 수행</p> <p>·전시회</p> <p>·‘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와의 공조</p> <p>-비엔날레 기획 및 진행을 위한 각종 회의 및 세미나 개최</p> <p>-비엔날레 행사 자료 및 자연미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 운영</p> <p>-소식지 발간: 비엔날레 홍보 및 진행 내용을 점검하고 거주 작가 및 세계 자연미술 운동의 흐름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 계간으로 발간</p>	
주요설비	·충남 공주시 신평면 동원리 자연미술의 집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자체자금
사업명	국제 문화예술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사)에뽀끄

중심장르	·문화일반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국제문화예술 작가들을 초청, 국가간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창작 활동을 지원 ·지역의 유능한 인재의 발굴과 작가 양성을 통해 국제화 속에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의 방향 모색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국제 미술의 허브로서 역할과 성숙된 문화발전의 동력을 끌어내는 생산자로서의 미래상 구축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세계를 향한 문화인적 교류 인프라구축 ·국제문화중심도시 공주의 정체성 확보 ·인권과 평화를 기반으로 한 공공 프로젝트와 빛고을광주 문화마인드 확산 등 사내의 예술
주요설비	·경복문화원, 팔각정, 양산동창작스튜디오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

사업명	2007 TIMF국제 레지던스
신청 단체명	(재)통영국제음악제
중심장르	·음악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통영국제음악제, 경남국제음악콩쿠르를 중심으로 시즌 축제를 진행해온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고향 통영과 연계하여 아시아권의 신진음악인들을 초청,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한국현대음악의 우수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전통문화의 소개와 준비된 행사의 참여 및 참관을 통해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소통하게 함.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프로그램내용	· 외국의 신진음악인을 초청해 창작활동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국내 연주단과의 작업을 통해 음악회를 개최 -작곡: 3개월의 프로그램기간동안 완성도 있는 1곡 이상의 창작을 원칙으로 한다. -악기: 다루어 본 적이 없는 아시아 현대 작곡가의 작품 1곡 이상을 연주한다. -각국의 음악적 특징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고찰 -윤이상 음악의 특징을 중심으로 심포지움 개최: 윤이상 탄생 90주년 기념 공연 참관 및 심포지움-윤이상의 작품세계 -한국문화교육
주요설비	·통영을 중심으로 서울, 마산, 대전, 전주 등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자체자금/·지자체보조금/·기업협찬금

## &lt;2008년 신청단체 현황&gt;

사업명	광주문화중심도시네트워크 구축
신청 단체명	(사)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중심장르	·문학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문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 모델제시 ·한류의 지속 확산 및 문화협력을 통한 동반자 이미지 구축 ·아시아권 문화의 상호교류와 문화 생산물의 가치 공존 생산 ·한국을 홍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유력인사 인력풀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지속적 네트워크 과정의 발전 모델제시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언어연수 프로그램 운영(6개월) ·지역문화예술단체실무자간의 정기적 간담회(3차) ·지역문화활동 향유 평가 및 발표회(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18 민중항쟁 관련 주요 문화행사 및 활동에 직접 참여(1개월)</li> <li>·5월 문학제 참석</li> <li>·지역문학관 프로그램 참석-토론회 개최(2회, 오월문학관)</li> <li>·대학, 청소년문학팀과의 교류 간담회 개최(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등 각 1회)</li> <li>·한국문화답사-국립광주박물관, 시립민속박물관, 비엔날레전시관, 조태일문학관 등(2회)</li> <li>·한국전통문화답사-보성강골마을, 안동하회마을, 순천낙안읍성 등(3회)</li> <li>·섬진강여름문화학교 참가</li> <li>·태안사 템플스테이(4박5일)</li> <li>·청년작가포럼과 함께하는 '젊은 문학인의 밤'(북구 향토문화센터)</li> <li>·한국전통문화체험(쪽물염색, 한지공예, 목공예, 강진청자마을 방문(2회))</li> <li>·한국시인들과 함께 만드는 시노래음반제작(3개월)</li> <li>·홈스테이(1개월)</li> <li>·휴양림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공연(1회)</li> <li>·한국 전통춤, 음악, 무예, 서예 체험(3개월)</li> <li>·아시아인의 눈에 비친 사진전(10일, 자미갤러리)</li> <li>·초청작가 간담회(3회)-사업 초기, 중기, 후기 성과 및 평가</li> <li>·한국작가 아시아작가 공동작품집 발간(1회)</li> </ul>
주요설비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
사업명	마당극의 세계화를 위한 광대교류전
신청 단체명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중심장르	·연극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이 아시아 문화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동북아 아시아 배우 연기훈련으로 중국, 홍콩, 일본, 한국의 연극인들이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미나와 워크숍, 공연을 위해 합숙하며 진행하는 축제</li> <li>·한국의 마당극과 유럽의 거리극이 갖는 양식적, 가치적 유사성과 발전 방향을 가늠하여 세계 보편적 창작 양식을 실험</li> </ul>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2007.7.16-9.8 아시아-프랑스 광대 교류전
프로그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컨셉: 마당극을 중심축에 놓고 각 국의 연극 양식으로 변화, 수용하는 문제에 대한 워크숍 진행</li> <li>·한국 마당극 메소드 워크숍</li> <li>-한국 전통연희의 현대적 재창조/이영미(연극평론가)</li> <li>-탈 연기와 탈춤/황해순(부산예대 교수)</li> <li>-마당극의 열린 연기/강사 최재우(연극연출가)</li> <li>-기타</li> <li>·아시아 전통연희 메소드</li> <li>-대만의 민중극 메소드/종차오(대만, 어사인먼트 대표)</li> <li>-일본의 민중연희의 현대적 변용/리카 다이조(일본, 연극 연출가)</li> </ul>

	-홍콩의 인형극 제작/목치우(홍콩, Play Back Theatre대표) ·유럽의 거리극 워크숍 -거리춤과 움직임/Jean-Antoine Bigot(프랑스, Ex-nihilo예술감독) -거리극의 원리와 제작 실습/Bruno CARLUCCI(프랑스, 연극연출가) -거리극의 연기 메소드/Delphine(프랑스, 연극연출가) ·공연: 참가단체 및 배우 작품 공연, 워크숍 후 성과물 공연
주요설비	·경북 성주 금수문화예술마을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지자체보조금/·기타 국고 및 공공기관 지원금 ·개인기부금/·자체부담금
사업명	쌈지스페이스 스튜디오
신청 단체명	쌈지스페이스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국내외 작가들에게 스튜디오 공간 및 미술관계자와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작가로서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위한 현실적 환경을 조성 ·한국과 외국의 작가들이 서로 정보와 영향을 교환하도록 함 ·젊고 실험적인 국내외 작가의 작가적 역량 강화를 도우며 동시에 기획자와의 네트워크를 보조함으로써 작가의 쌍방향적 국제적 활동기회를 확대함.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1998-2007 레지던스 프로그램(2001년부터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내용	·창작활동지원(2008.1-12): 국내외 신인 작가들에게 스튜디오 공간 및 국내외 미술관계자와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작가로서의 발전과 해외진출을 위한 현실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한국과 외국의 작가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정보와 영향을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창조적지력을 진작시킨다. ·작가역량 강화 프로젝트(총 18회): 참여 작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적당하고 미술 전문인으로서의 자질과 지식을 기르는 기회제공을 취지로 한다. -내부 워크숍: 비평가들과 1시간에 걸친 비평을 통해 자기 작품에 대한 전문적, 다각적인 비평을 받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senior 작가들에게 경험과 조언을 듣는다. -공개강좌-텍처데이(매달 마지막 수요일): 작가가 현대미술의 흐름과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앞으로의 작업과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를 초대, 강연형식으로 진행한다. 일반대중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강연내용은 연말에 자료집으로 출판한다. ·레지던스 교류 프로그램: 장기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해외의 레지던스 기관을 선정하여 주제를 협의하고 이에 따라 작가를 선정, 상호교환하여 레지던스에 참여시킨다. 한국 작가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초대 외국 작가들과 한국 작가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p>·미술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참여작가 프리젠테이션(1회): 비평가, 큐레이터, 이론가, 대학교수 등 미술관계자만을 초대하여 스튜디오프로그램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p> <p>·오픈스튜디오 및 전시</p> <p>·국내외 신진 큐레이터 레지던스: 한국의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외국 큐레이터 1인, 35세 이하 국내 신진 큐레이터 1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쌈지 스페이스 학예팀과 정기적인 미팅과 토론을 통해 전시기획을 발전시키며 쌈지스페이스에서의 전시기획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외국 큐레이터의 초청은 한국미술의 바른 소개와 한국작가의 해외진출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p> <p>·해외작가 한국문화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외국작가들은 1인의 자원활동가와 만나게 된다. 해외작가들은 한국의 관광지, 유적지, 주요 중심지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작품의 영감이 되는 자료를 제공받으며, 작품제작과정에 도움을 받는다. 한편 자원 활동가들은 외국어를 연습하고 작가들의 작품제작과정을 배울 수 있다.</p> <p>·국내외 작가들 간의 네트워크(총19~22회): 매달 프로그램 참여작가들이 모여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집중 비평, 생각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작업 발전에 기여한다.</p> <p>·큐레이터-작가 네트워크: 작가에 따라 전시 또는 이슈에 맞는 국내외 큐레이터와의 미팅을 주선하여 네트워크 확대와 전시참여, 해외진출에 기여한다. 한편 국내외 큐레이터는 작가선정과 자료확보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주요설비	·서울 쌈지스페이스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자체부담금
사업명	야투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p>·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외국 자연미술가를 초대하여 교류함으로서 국제적 '자연미술'네트워크를 형성한다.</p> <p>·자연미술의 발상지인 공주와 야투를 소개하고, 국제적인 스튜디오로 발전시킨다.</p> <p>·한국'자연미술',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컨텐츠의 위상을 알린다.</p> <p>·야투스튜디오사업의 결과를 국제 심포지엄 등에 적극 소개함으로서 자연미술운동 확산의 계기로 삼는다.</p> <p>·국내 소도시 지역민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국제 자연미술 중심도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육성한다.</p> <p>·현재 야투스튜디오가 있는 원골(자연미술인마을)을 자연미술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미술문화예술교육 상품으로</p>	



	<p>개발할 수 있다.</p> <p>·야투스튜디오 레지던스프로그램은 더욱 활발한 국제교류와 함께 학문적인 완성을 촉진하여, ‘자연미술’을 ‘민중미술’, ‘백남준’, ‘태권도’ 등과 같은 고유화된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으로 자리할 수 있다.</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p>·개별, 공동, 학술, 전시,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p> <p>-초청작가가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제공</p> <p>-사업 기간 중 열린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방문(지역민, 미술인, 학생)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p> <p>-초청작가들의 특성과 개성을 활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수립, 운영</p> <p>-체험학습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시하여 자연미술에 대한 발상과 이해를 도움</p>
주요설비	·야투스튜디오(자연미술의 집)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자체부담금
사업명	다원레지던시 센터-완두콩
신청 단체명	다원레지던시센터 완두콩
중심장르	·문화일반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p>·각기 다른 장르, 문화와 문화가 서로 충돌, 교류, 융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다원예술의 모태역할을 하고자 함.</p> <p>·&lt;다원예술 레지던시 센터-완두콩&gt;은 Arts Admin, ST Spot을 포함한 총 6개 국제레지던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레지던시 아티스트에게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제작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궁극적으로&lt;다원예술 레지던시 센터-완두콩&gt;은 아비뇽 페스티벌을 비롯한 세계무대에 소개될 혁신적인 작품을 생산해냄으로써 세계 자원예술을 리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자 함.</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p>·2006.6 퍼포밍아트 국제 레지던시 기획</p> <p>·2006.11 문순프로젝트(국제 아시아-유럽 레지던시 프로그램)기획</p> <p>·2004.10 현대예술 레지던시 워크숍&lt;국제연교류&gt; 주최</p>
프로그램내용	<p>·다원예술 제작환경 조성: 연극, 시각예술, 현대무용, 음악, 문학, 영화 등 장르구분 없이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총 20인의 아티스트(해외 10인, 국내 10인)를 완두콩 레지던시 아티스트로 선정하여 약 3주간(기간 조정가능)의 레지던시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레지던시 아티스트들은 브레인스토밍과 생산적인 공동작업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제작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국내예술계의 역동적인 생산현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예술가들의 실험적 구상들이 실질적으로 프로덕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작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이런 제작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신진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국외 아티스트들과의 시차 없는 예술교류를</p>

	<p>도모하며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공동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공연 및 전시: 레지던시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을 우경예술관, 전시관 및 그 외 야외 공간에서 공연 및 전시를 프리젠테이션 한다. 이때 일반 관객은 물론 국내외 아티스트, 저널리스트, 비평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레지던시 아티스트를 프로모션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에 대한 담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p> <p>·워크숍: &lt;완두콩&gt;레지던시 아티스트들의 거주기간 동안 국내 아티스트, 전문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아티스트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든다.</p> <p>·자료 및 출판: 연간 2분기로 &lt;완두콩&gt;레지던시 아티스트의 활동 및 작품을 홍보하기위하여 리플렛을 제작하여 국내외 3만부 이상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연 1회 레지던시 아티스트들의 제작과정, 작품, 제작의도 및 비평 등을 수록한&lt;완두콩 도록&gt;을 출간한다.</p> <p>·아티스트 컨설팅: 국내 및 해외 아티스트에게 제작, 공동제작, 해외투어, 유통, 마케팅 등에 대한 1:1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p> <p>·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술계의 프로듀서, 프로젝트 매니저, 기획자 등을 초청하여 작업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p>
주요설비	·다원레지던시 센터-완두콩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기업협찬·후원금/·민간재단/·자체부담금
사업명	2008 ICPR 국제 커뮤니케이션 퍼포밍
신청 단체명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중심장르	·무용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p>·한국의 공연예술계에 작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실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p> <p>·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예술가와 한국예술가들이 만나 작업을 통해 미래의 공연예술에 대한 제작 시스템, 주제, 작업과정을 풀어나가는 다양한 방향성에 접근을 실험</p> <p>·문화충돌에서 창출되는 작업들과 한국에서의 공연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 이를 통해 국제공동작업 분야의 풍부한 네트워킹 구축과 자원화를 실현</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프로그램내용	<p>·다양한 예술장르(무용, 영상, 설치미술, 연극 등)를 아우르는 국제공동작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5개국 10인의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예술가들이 한국에 체류하며 예술 창작의 열정을 쏟아내게 될 것이다.</p> <p>작업과정은 제작발표회, 워크숍, 포럼, 공연, 영상 다큐멘터리 등으로 구성되며 각 프로그램은 명확한 주제와 다양성을 지향한다. 한국을 중심으로 일본, 홍콩, 대만, 중국 등 5개국의 공연예술기관과 네트워킹 협약을 통해 국제공동작업의 자원화를 실현하고 공연예술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p>

주요설비	·LIG극장, L스페이스,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기타 국고 및 공공기관 지원금 ·기업협찬, 후원금/·개인기부금/·자체부담금

### 3.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 수행현황

2006년 문예진흥기금 지원 대상인 국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당시 예술위원회 국제소위원회 박신의 교수의 현장 방문 후 제출한 사업 평가 의견에 의하면 동 사업들은 “(시설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조건을 갖고 있는 편(동아시아 AIR 창작네트워크, 소리노리터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워크숍 및 프로젝트를 위한 일시적 시설활용(퍼포밍 아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백만인이 키우는 무진이 프로젝트)으로 나뉠 수” 있지만, “프로젝트 자체가 목적인 경우와 교류와 네트워킹이 목적인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추후 레지던스 사업의 목표치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칫 레지던스 사업이 단기 채류를 통해 일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준이거나, 시설 운영의 여건이 불분명하여 안정적인 작업과 체험을 갖기 어렵게 될 경우,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시각예술과 공연 등의 특성을 살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시설을 보유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는 경우, 다년간 지원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sup>76)</sup>

2006년 이후 심층적인 현장평가가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2007년과 2008년 역시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다만, 지원 신청 사업들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가고 있다는 점과 몇 몇 단체는 지속적으로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 점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거쳐 예술위원회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한 단체의 사업성과는 아래와 같다.

사업명	동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	2006년
신청 단체명	(사)민예총 충북지회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동아시아 작가들을 초청, 청주 복합문화체험장 창작스튜디오의 국내	

76) 박신의, ‘2006년도 레지던스 사업 종합평가의견서,’ 예술위원회 내부자료

성격	<p>입주 작가들과의 공동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3~6개월)을 통한창작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발</p> <p>·AIR프로그램 결과물들의 스튜디오 공개 및 공동전시, 그리고 외부 사업(축제, 세미나)참여를 통한 각 국가 간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류</p> <p>·지역의 문화예술 공동체와의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의 국제화에 기여</p> <p>·레지던스 작가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동아시아 창작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p>작가선정방식 및 초청작가 현황 (자체, 추천, 협약)</p> <p>·</p> <p>신청 시기 및 방법</p>	<p>·참여작가</p> <p>- 국내작가 11인</p> <p>- 동아시아 5개국 6인(동아시아</p> <p>작가-일본1명/인도네시아1명/중국1명/베트남1명/태국2명)</p> <p>○ 후원 : 위원회, 청주시, (사)충북민예총,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p>
운영위원회 유무	·(사) 민예총 충북지회
홍보방법	<p>·언론보도</p> <p>-지역: 충청리뷰(CBI뉴스), 중부매일, 새충청일보, 한빛 일보,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문화예술 웹진“생생” 등 총 14회 기사화</p> <p>-중앙: 조선일보, 연합뉴스, 킨더뉴스 등 3회에 걸친 중앙언론에 보도</p> <p>·방송보도: 청주 KBS '문화현장' 2회 방영, 충북방송(HCN), 문화프로그램 1회 방영 및 이외 다양한 뉴스에 방송</p> <p>·국제 언론 보도: 베트남 온라인 뉴스에 게재</p> <p>·현수막/인쇄물 등</p>
거주기간	·2006.7.1-2006.11.30
프로그램내용	<p>·충북복합문화체험장 “동아시아 AIR창작 네트워크” 운영</p> <p>·7회 2006충북아트페어 국제 부스전 참여 및 특별전 개최</p> <p>·한국 민족문화 현장체험 프로그램-“2006 충북 민족예술제 체험”</p> <p>·반전 전시 및 워크숍 참여</p> <p>·청주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제 1회 “청주 안덕벌(유목) 예술제 개최” (특별 기획프로젝트)</p> <p>·청주 복합문화체험장 AIR 프로그램 하반기 오픈 스튜디오 -HIVE ASIA-</p>
작가지원내용	·항공권, 숙박료, 식비, 재료비, 보험료, 작업실
전시·공연 연계여부	<p>·공연: 2회(2일)</p> <p>·전시회: 4회(28일)</p>

전체평가여부 및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지던스 작가의 각 국 간의 특성에 맞는 교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질적 국제교류 피드백이 요구됨</li> <li>·한 해 프로그램 운영과 실재를 통하여 차후 사업에 적용할 다양한 프로그램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됨</li> <li>·전국 미술 창작촌 및 스튜디오와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또한 국내 문화관계자(기획자, 큐레이터, 학예연구사 등)들의 우선적 네트워크의 선행을 요함</li> <li>·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지역적 실행은 지역의 문화인력 재생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li> <li>·지역 미술문화에 초석을 놓기 시작한 국제 레지던스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앞으로 2,3년간의 꾸준하고 지속적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li> </ul>	
주요설비(사업 장소)	·청주 복합문화체험장 - HIVE 창작스튜디오	
전문인력 유무	·큐레이터 1명, 디렉터 1명	
재원조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수입: 22,045,600원</li> <li>·문예진흥기금: 49,200,000원</li> </ul>	
총 소요액	71,245,600원	
지원액	49,200,000원	
사업명	백만인이 키우는 무진이프로젝트	
신청 단체명	(재)의재문화재단	
중심장르	·다원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문화도시 조성 실천사례제시</li> <li>·지역 주체의 힘만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 마련</li> <li>·유흥공간의 재생화에 대한 시범 사례 제시</li> <li>·레지던스의 다양한 모델 제안</li> </ul>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2006년
작가선정방식 및 초청작가 현황 (자체, 추천, 협약) · 신청 시기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작가(프랑스 2명/독일1명/이탈리아 1명/독셈부르크 1명/초청작가-태국 1명)</li> <li>·국내작가16명</li> <li>·설치감독 6명</li> <li>·워크숍 참여 대학생 13명</li> </ul>	

운영위원회 유무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기획·운영기관)
홍보방법	·대외홍보 -젊은 세대 중심의 문화도시만들기 조성 실천 사례와 지역 주도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높았음. '훼손'사건 직후 공공미술 훼손에 대해 언론에서 다룬. 컬러뉴스를 제외하고 중앙언론과의 접촉은 성과가 없었음. <무진이 프로젝트>가 지역 공공미술의 사례로 소개된 '2006아시아아트포럼'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태국·영국 큐레이터들에게 프로젝트 소개 ·대내홍보 -광주 소재 대학교(4년제 해당) 및 도심일대 현수막, 포스터 설치 홍보, 무진이프로젝트 온라인 카페 홍보, 대학생 대상 오프닝 파티 초청장 발송 등
거주기간	2006.9.11-2006.10.18
프로그램내용	·공원프로젝트: 광주 문화도시 만들기 풀뿌리 사업'백만인이 키우는 무진이프로젝트' -9월 22일~10월 13일/광주 목구 용봉동 용흥어린이공원 -전시작품은 <무진이의 성장공간>과 <전남대 후문의 공간진단과 대안>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음. 전시 오프닝 날 홍대 클럽 카고의 DJ GURU, 초청작가 왓산, 라오클랑의 퍼포먼스, 동네북 상상놀이단의 연주, 주류파티 등으로 꾸려 프로젝트를 더욱 풍성하게 채움 ·롯데화랑 '무진이의 세상' -9월 23일~10월 18일/ 광주 롯데화랑 -'무진이가 사는 세상'은 외국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좀더 깊이 볼 수 있던 자리임.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작가들이 그간 작업했던 결과물의 연장선상에서 '무진이'를 재해석함. ·워크숍 -공공미술의 현주소1: <6월 8일 '플라잉 시티'의 사례 발표> 전용석(플라잉시티 대표)씨가 대학(원)생들과 함께 국내 공공미술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플라잉시티의 활동을 중심으로 공공미술의 현황을 보여줌 -공공미술의 현주소2: <9월 27일 '공공미술의 현주소'에 대해>아트인시사업 '중흥동 프로젝트'와 연계, 작가들을 주축으로 한 워크숍에서 프랑스 남부지방의 예술촌 사례와 밀머리미술학교 활동사례를 소개하면서 의견을 교류함. 강호숙(큐레이터)와 박찬국(참여작가)씨가 발제자로 사례를 제시함
작가지원내용	·재료비, 항공료 등
전시·공연 연계여부	·공연: 2회 ·전시: 2회 ·세미나·강좌 등 행사: 2회

전체평가 여부 및 결과	<p>·‘성장하는 도시 캐릭터’를 설정해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방식을 지역에서 시도한 점은 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차별점임. 특히 ‘성장’ ‘도시캐릭터’는 작가들의 관심을 끌게 한 요인이었음. 프랑스에서 마르셀 뒤샹의 후계자로 인정받는 프랑스 제라르 폴랑띠에보 작가가 무진이 컨셉을 듣고 68혁명당시 구상한 캐릭터 디자인을 40년 만에 광주에서 공개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임</p> <p>·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대학생, 신진작가들과 행사에 참여했던 유럽 작가들과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 한국출신 강호숙 코디네이터와 지역의 기획자, 예술가들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됨. 베르트 타이스와 마리에프 쉴츠가 주도한 &lt;OUT워크숍&gt;에서 나왔던 작품들은 스위스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할 예정임. 제라르 폴랑띠에보 작가 또한 광주 체류경험을 소재로 한 작품을 2006년 11월 독일 뒤셀도르프 개인전에서 선보임</p> <p>·지역에서 대학원생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거의 없었음.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으로 타 대학 전공학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외부에서 큰 관심을 보였음. 현장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이 기획·운영을 담당하면서 원활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지만 현장과 이론이 결합된 밀도 높은 학습의 장이었음.</p> <p>·그간 버려졌던 공원을 외국작가와 국내작가들이 참여해 문화공간으로 재생한다는 점에서 관찰구청과 상가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음. 관공서는 프로젝트 참여주체들의 적극성과 자발성에 의미 부여하며 행정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였음</p> <p>·‘훼손’사건은 지역 주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후속 사업기획에 참여하게 한 결정적 동인이었음. 무진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전문가들-박만우(2006부산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문승현(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이 후속 프로젝트를 기획함. 후속 프로젝트의 컨셉을 ‘무진이의 성장통’으로 결정함</p> <p>·무진이프로젝트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관련된 풀뿌리형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과 프로젝트 내부 인력이 아닌, 외부 참여자들(워크숍 대학생들과 전문가들)의 릴레이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음</p>
주요설비	·용흥공원 내 경로당 2층 건물, 광주 롯데화랑
전문인력 유무	·기획위원, 자문위원, 컨셉설계, 큐레이터, 기획·운영팀
재원조달방식 (후원)	<p>·자체자금: 36,658,000원</p> <p>·문예진흥기금: 60,000,000원</p> <p>·개인기부금: 6,000,000원</p>
총 소요예산	102,658,250원
지원예산	60,009,949원
사업명	퍼포밍아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신청 단체명	(주)가네사프로덕션
2006년	

중심장르	·다원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21세기를 주도하는 새로운 현대예술의 '다원(interdisciplinary)'적 특성을 개발하고 장르간의 '경계영역'을 실험하며,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퍼포밍 아트 분야에 있어서 국제교류의 미팅 포인트 역할을 할 것이며, 국외 유사 레지던시 프로그램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작가선정방식 및 초청작가 현황 (자체, 추천, 협약)	·9월 11일-9월 30일: Hahn Rowe(미국/작곡가)와 국내 풍물놀이패 4인+국내 예술인 8인 ·10월 5일-10월 10일: Christian Rizzo(프랑스/안무가) ·10월 16일-10월 21일: Stefan Kaegi(스위스/작가) 와 국내 연극인 및 시각예술 작가들 ·10월 30-11월 14일: Raimud Hoghe& Luca Giacomo Schulte(독일/안무가)와 국내 무용가 ·11월 7일-11월 21일:Jay Chung & Takeki Maeda(미국, 일본/작가) 와 타 장르 국내외 아티스트 ·11월 19일-12월 2일:Nadia Lauro(프랑스/프로젝트&세트 디자이너)와 국내 아티스트
신청 시기 및 방법	·11월19일-12월 3일:Alexis Vailant(프랑스/큐레이터) & Julian G. Richter(비주얼 아티스트) 와 국내 작가 ·12월 3일-12월 17일: Andre Erlen(독일/연출가), Paul Hendrixse(네덜란드/비주얼 아티스트), Daniel Young(홍콩/안무가), Florian Malzacher(모더레이터), Sally de Kunst(큐레이터), Arco Renz(벨기에/안무가), Seul Gi Lee(프랑스/비주얼 아티스트), Roller Jochen(독일/안무가)
운영위원회 유무	·(주)가네샤프로덕션
홍보방법	·유인물, 현수막 등
거주기간	·2006.9.11-2006.12.18
프로그램내용	·Residency 1(9월 11일-9월 30일/LIG극장):이미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는 일렉트로닉 뮤지션인 재미 작곡가 Hahn Rowe를 초청, 한국에 거주하는 풍물놀이패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 마련 ·Residency 2(10월 5일-10월 10일/LIG극장): 새로운 작업을 위한 리서치를 위해 해외 아티스트가 한국에 거주하며 실험적이고 새로운 예술형식을 연구 개발하여 이를 통해 현대예술을 리드할 수 있는 신작을 제작하고 개발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Residency 3(10월 16일-10월 21일/토탈미술관):2006 아비뇽 페스티벌에 초청된 젊은 작가인 Stephan Kaegi를 초청하여 그의 작품의 특징인 Lecture Performance를 진행. 또한 한국에 거주하며 워크숍을 통해



	<p>한국의 건축가, 무용가, 연출가, 극작가, 미술가들과 만남으로서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관련된 새로운 Lecture Performance를 구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연구</p> <p>·Residency 4(10월 30-11월 14일/LIG극장): 국제적인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간의 공동작업으로 공연작품 제작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문화와 아티스트 리서치를 통해 공동작업자를 선정하여 작품을 개발</p> <p>·Residency 5(11월 7일-11월 21일/인사미술공간): 국제적인 현대 아티스트 Jay Chung을 초청,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의 문화와 아티스트들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수 있는 환경제공</p> <p>·Residency 6(11월 19일-12월 2일/토탈미술관): 새로운 작품을 위한 장소 선정을 위해 한국에 거주하며, 새로운 작품에 협업할 국내 작가들을 리서치 한다. 장소 리서치와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된 장소의 특성을 살리는 사이트 스페서픽한 퍼포먼스와 인스톨레이션을 개발하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p> <p>·Residency 7(11월 19일-12월 17일/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다원예술 프로젝트 구상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비주얼아트, 영화, 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 큐레이팅에 관한 액처 및 국내작가들 리서치와 워크샵 진행</p> <p>·Residency 8(12월 3일-12월 17일/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문순 프로젝트는 벨기에의 Klupstuk, 네덜란드의 Simon Dove, 독일의 Hebbel Theater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연출가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공동작업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프로젝트</p>
작가지원내용	·숙박비, 항공료, 작업실
전시·공연 연계여부	·세미나, 강좌 등 행사 수: 7회 ·총 작품 수: 7개
전체평가여부 및 결과	<p>·다원예술은 국내의 언론계에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레지던스 및 워크샵의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은 것이 현재 국내의 분위기 인 듯하다. 그러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계의 교수님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고 예술관련 전공자들이 크게 관심을 보였다.</p> <p>·다원예술이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극장이나 미술관의 형식이 아닌 대중적인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프로젝트임이 이번 레지던스 워크샵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다원예술 프로젝트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를 그대로 작업의 형태로 풀어나가고 있음으로 차후에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p>
주요설비	·토탈미술관, 안산문화예술회관, 인사미술공간, LIG아트홀, C9생생
전문인력 유무	·공연계, 시각예술계 코디네이터
재원조달방식	·사업수입: 2,000,000원

(후원)	· 자체자금: 44,880,266원 · 문예진흥기금: 89,600,000원 · 기업 협찬금: 55,000,000원	
총 소요예산	190,280,266원	
지원예산	89,600,000원	
사업명	2006 노리단 소리노리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2006년
신청 단체명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內 노리단	
중심장르	· 문화일반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 세계 각지에서 놀이와 학습과 예술을 통합적으로 작업하면서 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해 온 작업자와 예술가들을 초대해서, 도시환경에 적용 가능한 멀티 패러다임-플레이그라운드 모델을 제시하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공간, 주제, 프로그램에 변형·확산할 수 있는 제작 시스템을 갖춘다.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2006.8 무이예술관 무이아트페스티벌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작가선정방식 및 초청작가 현황 (자체, 추천, 협약)	· Andrew McCullough(미국/대안학교 출신) · 바바라 리마(브라질/모던댄서) · Hubbub(호주/퍼포먼스 순회 공연단) · 본드 앤더슨(미국/음악가) · 루이스 켈러(미국/음악가) · 린지 폴락(호주/음악가) · Mark Enslin(미국/디자인 어 소사이어티 멤버) · Carol Hwang(미국/디자인 어 소사이어티 멤버) · Jeff Glassman(미국/디자인 어 소사이어티 멤버)	
신청 시기 및 방법		
운영위원회 유무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센터	
홍보방법	· '세계의 식탁 프로젝트' 메일진, 하자 웹 곳곳에 공지 · 대형걸개/포스터 · 영등포 인근 아파트 반상회	
거주기간	· 2006.8.21-2007.1.31	
프로그램내용	· 대안교육 현장에서의 다문화 경험/8월 21일-8월24일 - 다문화 청소년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여러 이유로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민 부모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서로가 다른 문화권의 부모 사이에 태어난 경우 등이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 우리 사회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아이덴티티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p>·브라질리언 댄스/9월1일-9월 30일,11월 15일-12월 9일</p> <p>-브라질은 세계적인 예술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전통적인 음악과 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번 워크숍을 통해 아프리카 기원인 브라질 전통 춤, 음악(아프로 브라질리언 댄스, 오리샤 댄스, 삼바)을 접하고, 몸의 표현과 리듬을 발전시킨다.</p> <p>·허벌스튜디오의 스프로킷 제작/8월 28일-10월 5일</p> <p>-예술이 미학 내부의 폐쇄된 논의를 넘어 공공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공공의 문제에 관해 심도 깊게 다가가고 있는 지금, 엘리트 예술의 창작지원과 향수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향유할 수 있게 사용 환경을 새로이 구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시간과 과정이 일상의 소통 위에서 자연스럽게 창조되는 지역 공동체문화의 모델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공공성 시대의 당위성이 하드웨어(소리노리터 설치악기)와 소프트웨어(소리노리터 활용모델) 인프라로 구성하고자 한다.</p> <p>·사운드 플레이의 악기제작/10월 1일-10월 20일</p> <p>-제작악기 종류: 베이스 메탈라폰, 테너/소프라노 메탈라폰, 소프라노 마림바, 악거 드럼</p> <p>·린지폴락/11월 6일-11월 11일</p> <p>-하자센터 노리단에서 만들고 있는 다양한 악기를 새로운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화작업자를 설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이번 워크숍은 지속적인 마을의 축제를 통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자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creative commons"를 점점 더 확장하고자 한다.</p> <p>창조적인 공유지라 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뛰어난 재능과 훌륭한 신념을 가졌다 해도 혼자 작업해서는 다양한 차이를 가진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시작된다. 각자 가진 노하우와 정보와 인맥을 식탁위에 올려놓고 공유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동작업의 모델을 실천한다.</p> <p>협력은 경쟁보다 효과적이고 창의적인전략이다. 프로와 아마추어, 장인과 도제, 어린이와 어른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만남들이 열리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 각지의 소리디자인 작업자들과 '마을 속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워크숍이다.</p> <p>·The school of Designing a Society/11월 11일-1월 27일</p> <p>-The school of Designing a Society의 다양한 학습과정에 대한 질문들을 하자의 마을 만들기과 연계하면서 일, 놀이, 학습, 돌봄이 있는 창의적인 마을을 위하여 관동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각자의 문제의식들을 시작으로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다. 사회 재활력화와 마을 만들기에서 creative professional group은 혹은 '디자이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의논을 개진 할 것이다.</p> <p>·피진컬렉티브/8월 22일-1월 30</p>	
--	--	--

	-Pidgin collective는 다양한 장르 및 계층의 사람들의 유연한 집합체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차이와 같음을 바라보며 그 관계의 진동을 연구하는 집단이다. -진행내용: 하자 Artist-in Residence프로그램 전체 시각, 공간 디자인 작업/기록	
작가지원내용	·항공료	
전시·공연 연계여부	·공연: 7회(7일) ·전시: 7회(120일)	
전체평가여부 및 결과	·지역 예술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라고 만들어 가는 시간과 과정이 일상의 소통 위에서 자연스럽게 창조되는 지역 공동체 문화의 모델을 부각 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하자센터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공공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프로젝트의 합리적 지원과 창의적 운영에 노력할 것이다.	
주요설비	·하자센터 및 서울의 문화 공간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후원)	·사업수입: 121,996,251원 ·문예진흥기금: 50,411,915원	
총 소요예산	173,408,166원	
지원예산	60,000,000원 *집행금액: 50,411,915원	

  

사업명	쿤스트독 국제 창작 스튜디오(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쿤스트독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예술현장 통의동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봄까지 종로구 통의동의 도심 재개발 예정지인 옛 보안여관 및 인근가옥 세 동을 젊은 작가들의 창작, 거주,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여 창작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예술현장 통의동은 도심 재개발 과정 중 한시적으로 비어 있는 건물을 작가들의 스튜디오로 활용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 공공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 ·예술현장 통의동은 미술에 있어서의 소멸성과 한시성에 대한 실험을 한국미술의 창작환경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이 과정을 통해 지역민들과의 새로운 미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미술의 존재방식에 있어서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	2007년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작가선정방식 및 초청작가 현황 (자체, 추천, 협약)	·한국: 고인숙, 권남희, 박진호, 박형철, 손한샘, 우금화, 이명진, 이진준, 차기울, 최익진 ·외국: 미켈리스 네콜라이데스(사이프러스), 베르튼 할베허(독일), 콘도 유카코(일본), 파트릭 잠봉(프랑스), 론 샌들러(미국)
신청 시기 및 방법	
운영위원회 유무	·쿤스트독미술연구소
홍보방법	·언론기사 -한국일보, 경향신문, 월간 아트 앤피플, 미술세계, 월간 마리끌레르, 월간 Heren, 월간 VoiLa, 월간 까사리빙
거주기간	·2006.9.1-2007.5.30
프로그램내용	·2006.9: 작가입주, 작가별 프로모션 방법 확정, 1차 보도자료 배포, 통의동 골목길 프로젝트 기획회의 ·2006.10: 2차 보도자료 배포, 1차 세미나, 심포지엄 기획회의, 통의동 골목길 프로젝트 기획안 확정, 10월 오픈스튜디오 ·2006.11: 통의동 골목길 프로젝트 시작, 3차 보도자료 배포, 11월 오픈스튜디오 ·2006.12: 심포지엄-심포지엄 평가 및 출판물로 자료화 준비, 4차 보도자료 배포, 12월 오픈스튜디오, 2차 국외작가 합류(콘도 유카코(일본), 파트릭 잠봉(프랑스)) ·2007.1: 출판물 원고 및 도판 수집, 5차 보도자료 배포, 1월 오픈스튜디오 2007.2-4: 작가별 작업과정 점검 및 프로모션, 주제별 학술행사(세미나), 월별 오픈 스튜디오 2007.5: 결과물 전시(스튜디오, 갤러리 쿤스트독), 관계자 및 작가 참여 심포지엄, 작가 철수 ·2007.6-11: 전체사업 평가, 자료집 발간 종료
작가지원내용	
전시·공연 연계여부	·전시: 4회(38일) ·행사: 4회(4일)
전체평가여부 및 결과	·기획·구성: 쿤스트독 국제창작스튜디오의 기획 의도는 일상적 삶의 중심에 위치한 도심재개발 지역의 문화·예술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작가들의 새로운 주제의식에서 파생되는 능동적 작업태도와 사회적 기여에 관한 것이다. 이런 기획은 주어진 상태 및 상황에 대한 유연한 판단과 적응이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쿤스트독 국제창작스튜디오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주어진 주제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했으며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했고 나아가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수용의 폭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관객개발: 일차적으로 지역민들의 수동적인 입장을 능동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통의동 골목길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이는 지역민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작가적 행위라는 전제하에 각 골목에

	<p>작품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스탭들은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 조출한 음식과 함께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아해 하던 주민들은 점차 협조적으로 되었으며 설치된 작품들의 의미를 놓고 작가들과 소통했고 적극적인 관객이 될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미술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었던 이 프로젝트의 주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 관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통의동 골목길프로젝트 진행 중에는 3000부의 리플릿이 소진되어 다시 2000부를 준비해야했다.</p> <p>·마케팅·홍보: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작가들의 창작행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미술의 사회적인 기능에 관한 담론형성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 마케팅은 좀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었으며 따라서 별도의 홍보팀을 구성하고 미술관계자외의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그 방법으로 각 관청을 통한 공지와 통장, 반장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했고 그 결과 지역민들의 전향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p>	
주요설비	·서울 통의동	
전문인력 유무	·프로그램 매니저, 큐레이터, 언론홍보, 홍보, 마케팅, 오픈스튜디오 기획, 통의동골목길 프로젝트 기획, 오경비학술행사 기획	
재원조달방식 (후원)	·자체자금: 78,652,270원 ·문예진흥금: 45,000,000원	
총 소요예산	123,652,270원	
지원예산	45,000,000원	
사업명	2007 아시아-프랑스 광대 교류전	2007년
신청 단체명	(사)한국민족극 운동협회	
중심장르	·연극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p>·한국이 아시아 문화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한 동북아 아시아 배우 연기훈련으로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젊은 배우들이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미나와 워크숍, 공연을 위해 합숙하며 진행하는 축제이다.</p> <p>·한국의 마당극과 유럽의 거리극이 갖는 양식적, 가치적 유사성과 발전 방향을 가늠하여 세계 보편적 창작 양식을 실험한다.</p>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작가선정방식 및 초청작가 현황 (자체, 추천, 협약)	<p>·고신(중국/산동대학교)</p> <p>·요시모토 다이스케(일본/극단 천공요람)</p> <p>·남기성(한국/놀이패 한두레)</p> <p>·김현근(한국/극단 함께사는세상)</p> <p>·최재우, 김창우(한국/ 한국민족극운동협회)</p>	

신청 시기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단 프핀(프랑스/12명)</li> <li>·Sarah DARNAULT(프랑스/극단 루탱)</li> <li>·극단 함께사는세상(한국/7명)</li> <li>·이석규(한국/놀이패 한두레)</li> <li>·윤원기(한국/열림터)</li> <li>·극단 연극촌사람들(한국/5명)</li> <li>·성광옥(한국/프리랜서 퍼포머)</li> <li>·임정득(한국/좋은친구들)</li> <li>·서승아(한국/극단 천공요람)</li> <li>·이현애(한국/금수문화예술마을)</li> <li>·백상춘, 최업윤(한국/프리랜서)</li> </ul>
운영위원회 유무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홍보방법	
거주기간	·2007.7.16-2007.9.8
프로그램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1부-아시아 광대의 교류</li> <li>·&lt;아시아 전통연희 메소드&gt;</li> <li>·-경극의 몸짓과 기호</li> <li>·-부토의 몸짓과 기호</li> <li>·제2부 - 한국과 프랑스 광대 교류</li> <li>·&lt;한국 전통연희 메소드&gt;</li> <li>·-몸짓, 맘짓, 탈짓</li> <li>·&lt;마당극과 유럽 거리극 워크샵&gt;</li> <li>·-마당극 30년 거리극 30년</li> <li>·-마당극의 연린연극</li> <li>·공연: 참가단체 및 배우 작품 공연, 워크샵 후 성과물 공연</li> </ul>
작가지원내용	·항공료, 숙식비, 작업관련 등
전시·공연 연계여부	·공연: 3회(3일)
전체평가여부 및 결과	
주요설비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문화예술마을 /충북영동군 자계예술마을
전문인력 유무	
재원조달방식 (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수입: 3,800,000원</li> <li>·자체자금: 14,244,000원</li> <li>·문예진흥기금: 50,000,000원</li> <li>·기업협찬금: 3,000,000원</li> <li>·개인 기부금: 11,600,000원</li> </ul>
총 소요예산	82,644,000원
지원예산	50,000,000원

사업명	창문아트센터 레지던스(생태마을 만들기)	
신청 단체명	창문아트센터	
중심장르	·시각예술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후기 산업사회의 환경과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과정에서 대두된 “생태마을(Eco-village)만들기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풀무원 공동체가, 문당리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공동체가 문화적으로 국제적 연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생태마을은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창문 아트센터는 화성의 역사,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생태마을을 구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작가선정방식 및 초청작가 현황 (자체, 추천, 협약)	·센터입주작가(5명):김원기(회화), 백기영(영상), 박천희(조각), 송재준(판화)	
· 신청 시기 및 방법	·국내 초청작가: 양수정(조각, 설치), 윤현욱(설치), 이일우(사진), 전재철(설치영상), 이원정(영상)	
	·해외초청작가: 폴프 랑겐 한스(조각), 호르헤 이달고(퍼포먼스), 자크리트 카라카트(회화), 루카즈 판코(드로잉), 르블랑 슬로양(사진)	
운영위원회 유무	·창문아트센터	
홍보방법	·	
거주기간	·2007.10.1-2007.11.30	
프로그램내용	·생태마을워크숍 -각 나라 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사례를 소개하는 워크숍 -국내 생태마을 운영 관계자를 초청해서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토론하는 워크숍 ·Gen Education Programm(생태마을 관계자 워크숍) -전 세계 생태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인 Gen의 교육프로그램 중 대표 강좌를 선택하여 진행 ·결과발표 전시 -레지던스 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화성 수화동의 마을 만들기 작업에 대한 상상도, 주요 개념도 커뮤니티 활성화 전략, 프로그램 기록영상 등 포함	
작가지원내용	·창작 및 워크숍 공간 지원, 항공료, 2개월간 체재비 작가 당 50만원 지원(국내/국외 모두 지원)	
전시·공연	·전시: 1회(8일)	

2007년



연계여부	·행사: 1회	
전체평가여부 및 결과	.	
주요설비	·경기도 화성시 창문아트센터	
전문인력 유무	·디렉터, 인턴 큐레이터	
재원조달방식 (후원)	·자체자금: 10,000,000원 ·문예진흥금: 41,000,000원	
총 소요예산	51,000,000원	
지원예산	41,000,000원	
사업명	2007 후용공연예술센터 아티스트-인-레지던스	2007년
신청 단체명	극단 노뜰	
중심장르	·연극, 무용, 미술, 극작, 음악	
사업 주 목적 및 성격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소수의 인원으로 밀도 있는 워크숍개최,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컨퍼런스를 제공하는 등 창작기반을 지원하고, 외국 아티스트들의 한국 거주를 통해 문화 공간 및 문화예술체험을 창작적 요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거주기간의 오버랩 일정으로 만나게 되는 다른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및 작업공유의 기회를 매개한다.	
지속성 여부(사업연혁)	.	
작가선정방식 및 초청작가 현황 (자체, 추천, 협약) · 신청 시기 및 방법	·모집방법 -국내예술가들은 온·오프라인 회원과 연극잡지를 통한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예술가들은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싱가포르 서브스테이션, 폴란드 그로우스키의 협조와 홍보를 통해 모집을 하였다. ·예술가선정 -공정한 선정을 위해 외부심사위원(예술경영지원센터 우연,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오성화, 연출가 원영오)을 위촉하여 총 29명의 신청자 중 15명(국내3인, 해외거주 13인)을 선발하였다. ·참여작가 -총 15명(이스라엘, 터키, 세르비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한국)	
운영위원회 유무	·극단 노뜰	
홍보방법	·인쇄물 홍보, 현수막, 인쇄매체 광고 등	
거주기간	·2007.6.1-2007.12.27	
프로그램내용	·워크숍	

	<p>-Physical session(Matejka): 창작과정 안에서 배우/무용가의 개인적 표현을 탐색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 퍼포머의 진실에 대한 탐구를 한다.</p> <p>-Singing session(Ditte Berkeley): 노래를 통해 목소리와 창조하는 소리의 분야를 발견하기 위한 작업이다.</p> <p>-The hearing(Grzegorz Ziolkowski): 호흡과 움직임을 통해 공동화함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p> <p>·컨퍼런스: 젊은 예술가 창작지원(오세형), 예술가 공동창자(Kiratani Natzco), 폴란드 연극 창작활동사례(Ditte Berkeley/Matejka), 공동창작사례(Ditte Berkeley/Matejka), 비주류 공연예술창작활동의 전망(오성화), 스로토프스키 연극론(Grzegorz Ziolkowski)</p>	
작가지원내용	·창작공간, 항공료, 아티스트피, 숙박, 문화체협 및 한국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 지원, 창작활동비(월 500만원)	
전시·공연 연계여부	·쇼케이스:2-3회	
전체평가여부 및 결과	<p>·지역적으로는 지역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국적을 달리한 호기심과 작업과정과 만남을 통해 관객개발로서 지역민 문화체험활동의 풍부한 경험치로서 작용했고, 대외적으로는 후용공연예술센터가 공연예술레지던시 공간으로서 그 입지를 굳혔다는데 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에 작업이 가능한 공연예술 레지던시 공간을 통해 한국문화와 한국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 해외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게 한국의 요즘문화와 예술현장에서 소통하는 것들로 자기작업에 소스로 활용한다거나 작품에 활용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내 예술가들에게 역시 그 파장은 상호 보완되었다.</p> <p>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 예술가의 창작집중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작품을 통해 관객과 만나게 될 것이다.</p>	
주요설비	·후용공연예술센터(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전문인력 유무	.	
재원조달방식 (후원)	<p>·자체자금: 28,295,569원</p> <p>·문예진흥기금: 60,000,000원</p>	
총 소요예산	88,294,569원	
지원예산	60,000,000원	

### 제3절 해외레지던스 지원사업현황

## 1.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2006년부터 예술위원회에서는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을 ‘국제교류사업’에서 분리하여 특화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인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네트워크형성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 하고 예술가의 역량을 제고함<sup>77)</sup>’이며, 이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특성이 있고 명성이 높은 해외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왔다. 해외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을 가진 예술가들이 레지던스 활동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우수한 작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교류함으로써 작가의 창작 정신의 고양은 물론 작품세계의 확장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예술위원회가 지원한 국내 예술가들이 참가한 장르별 해

77) 2007년~2009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안내공고

외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국가별 참여 기관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지원 년도	프로그램	참여 기관 및 특징	국가명
<b>문학</b>			
2006	UNESCO-Aschberg "Bursaries for Artists" Program Creative Writing(Poetry & translation)해외 레지던스 문예창작(시와 번역) 프로그램	CAMAC (Centre d'art Marnay Art Center) ○ 파리에서 75m 떨어진 상빠뉴 아르텐 지방의 마네이 쉬르 세느 마을에 위치 ○ 예술가, 과학자, 뉴미디어 테크니션을 위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 ○ 예술, 문학, 인문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회화, 조각, 드로잉, 사진, 영화, 비디오, 뉴 테크놀로지, 설치 예술, 음악, 공연 등의 작업을 수용 ○ 전시회, 공공 프리젠테이션, 지역작가와의 교류 기회 제공	프랑스
	미국 IWP(아이오와대 창작 프로그램)	IWP	미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창작워크샵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집단촌/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위싱턴주립대학 내 Global-Local Community Action Institute 레지던스	위싱턴주립대학 내 Global-Local Community Action Institute	미국
2007	미국 IWP(아이오와대 창작 프로그램)	IWP	미국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베를린/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자유대학. 뮌헨대학 프랑크 푸르트 국제도서관 한국관	독일
	팔레스타인 문화 교류 워크샵	팔레스타인 라말라 알 사카키니 센터 /라말라 알 카사바 씨어터 /라말라 프렌즈 스쿨/라말라 팔레스타인 포폴러 아트센터	팔레스타인/시리아/요르단
2008	미국 IWP(아이오와대 창작프로그램)	IWP	미국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베를린	독일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네팔/인도	네팔/인도
<b>시각예술</b>			

2006	벨기에 안트베르펜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그램(Antwerpen Artist in Residence) 참가 및 국제전	<p>안트베르펜 (AIR Antwerpe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예술분야 예술가를 위한 작업환경 제공</li> <li>○ 현대예술 중심의 활발한 예술 활동과 연구를 지원하며 국내외 시각예술 네트워크와 합동 작업 후원</li> <li>○ 현지작가 및 미술관계자들에게 작품 프리젠테이션 기회 제공</li> <li>○ 매년 2명의 초대작가 선정</li> </ul> <p>안트베르펜시 소재 대안공간인 Lokaal 01Antwerpen과 연계, 작업 결과 발표</p>	벨기에/독일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레지던시 프로그램	<p>타이페이 예술촌 (Taipei Artist Vill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이페이의 중심부에 위치</li> <li>○ 시각예술, 음악, 문학, 공연예술 분야의 실험적인 작업의 자유와 기회를 제공</li> <li>○ 대만과 다른 국가들 간의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교류 도모</li> <li>○ 여러 분야의 예술가와 일반대중 간의 상호교류를 증진</li> <li>○ 지역적이고 세계적으로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시아지역 예술문화 거점 지향</li> <li>○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픈스튜디오</li> <li>-대만작가, 전시기획자, 평론가들에게 다섯 번의 작품 프리젠테이션</li> <li>-큐레이터 방문, 워크샵</li> </ul> </li> </ul>	대만
	프랑스 씨테, 파리 국제 예술 공동체 레지던스	<p>파리국제예술공동체 (Cite Internationale des Ar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5년 프랑스 문화성과 외무성의 지원으로 개관</li> <li>○ 240여개 아뜰리에와 30여개의 스튜디오를 갖춘 외국인 전용 예술활동공간</li> <li>○ 삼성문화재단은 1996년 Cite와 계약을 체결하여 15명 규모의 아뜰리에를 2060년까지 장기 임대, 운영</li> <li>○ 내부자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없이 작가 스스로 구체적인 작업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li> </ul>	프랑스
	중국 북경 스페이스 이움 큐레이터 연수 프로그램	<p>스페이스 이움 (Space iu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경 예술특구지역, 파산즈 798에 위치</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산즈 798은 중국의 옛 무기 공장 지대를 예술구로 변화시킨 곳으로 현재 전 세계 100여개의 갤러리들이 위치.</li> <li>○ 이곳은 옛 무기 공장들이 철거되고 그곳에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열면서 예술지역으로 변모</li> </ul>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라익스아카데미	네덜란드
	아일랜드 Common Groung Studio Team 더블린, 스튜디오 486 프로그램	코몬 그라운드, 세인트 앤드류스 커뮤니티 센터 ○ 더블린 시내의 남서쪽에 위치 ○ 직접적으로 레지던스 작가의 경제적 지원은 하지 않으나, 커뮤니티 센터내의 스튜디오를 무상으로 대여 ○ 네트워크를 넓혀주고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아일랜드
	중국 북경 Pickle art Center 레지던스 프로그램	피클아트센터 (Pickle art Center) ○ 중국의 대표적인 조각가 리강이 설립 ○ 베이징 소재 ○ 스튜디오 제공 ○ 개인전 장소 및 홍보 지원	중국
	미국 ISCP	미국 뉴욕 ISCP	미국
	독일 쿤스트러하우스 베타니엔 스튜디오 프로그램	쿤스트러하우스 베타니엔 스튜디오	독일
	프랑스 Centre d'art Marnay Art Center 레지던스 프로그램	CAMAC	프랑스
2007	프랑스 Ecole de Magasin(에콜드 마가장)-인터내셔널 큐레이토리얼 트레이닝 프로그램	마가장, 국립아트센터 ○ 에콜 두 마가장은 1987년 프랑스 그로노블(Gronoble)에 유럽 최초로 세워진 현대 미술 교육 기관 ○ 참가자들은 트레이닝 기간 동안 현대미술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주제와 관심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전시, 출간, 세미나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표 ○ 전시 기획 및 제작 전문화 교육에 중점	프랑스
	프랑스 씨테, 파리 국제 예술 공동체	Cite Internationale des Arts	프랑스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라익스아카데미	네덜란드
	터키 이스탄불 플랫폼 가란티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Platform Garanti Contemporary Art Center 레지던스프로그램	Platform Garanti Contemporary Art Center ○ 워크숍, 강연, 오픈스튜디오 전시를 통해 터키 지역의 예술가, 큐레이터, 그리고 비평가들과 교류	터키

		○ 이스탄불만의 독특한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예술창작활동을 목표	
	네덜란드 European Ceramic Work Center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유럽 세라믹 작업 센터 (European ceramic work centre .ekwc) ○ 네덜란드 헤르토겐보쉬에 위치 ○ 네덜란드 문화교육부의 지원 및 세라믹 산업과 밀접한 관계 ○ 매년 45여명의 예술가, 디자이너, 건축가에게 세라믹 작업실과 특수 설비와 인력 기술을 제공 ○ 레지던스 참가 작가들에게 세라믹의 기술과 예술적 가능성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네덜란드
	독일 Akademie schloss Solitude 레지던스 프로그램	독일 슈트트가르트 솔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 (Akademie Schloss Solitude)	독일
	미국 ISCP	ISCP	미국
	독일 퀸스틀러 하우스 베타니엔 스튜디오 프로그램	퀸스틀러하우스 베타니엔 스튜디오	독일
2008	네덜란드 Sandberg 아티스트레지던스 프로그램	Sandberg Institute, Amsterdam	네덜란드
	캐나다 The Banff Centre of Visual Art Self-Directed Residencies	The Banff Center inspiring creativity	캐나다
	미국 18th Street ARts Center 레지던스	18th Street ARts Center(미국 산타모니카)	미국
	네덜란드 M4 가스트 아틀리에	M4gastatelier(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독일 Glogauer Artist in Residency Program	Glogauer AIR	독일
	미국 뉴욕 CUEArtFoundation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CUEArtFoundation(미국 뉴욕)	미국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일본추쿠오카아시아미술관	일본
	미국 Painting Space 122 Artists in Residency	Painting Space 122 Artists in Residency(미국 뉴욕)	미국
연극			
2006	폴란드 Song of the Goat Theatre 레지던스	폴란드/Wroclaw/Song of the Goat Theatre	폴란드
2007	중국 화극원 및 곤극원 레지던스	중국 북경 화극원 및 강소성 곤극원	중국
무용			

2006	벨기에 Les Bains::Connective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및 공연	Bains::Connective ○ 참가자들의 예술적 실험을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www.bains.be	벨기에
	독일 Pact-Zollverein Residency/Tanzfabric	PACT Zollverein Residency ○ 2002년에 설립, 다원예술 연구 재단 ○ 전문적인 안무가, 연극인, 공연예술가들을 위해 리서치 지원 ○ 참여자가 원하는 연구소재를 발전, 실현시켜 공연예술로 표현하기까지의 기회 제공 ○ 워크숍, 전문 오픈 클래스, 심포지엄, 연구 프로젝트 운영 ○ 아티스트와 일반 대중들에게 컨템포러리 아트 특히 댄스와 퍼포먼스의 현재 예술경향, 발전, 그리고 예술적인 논쟁, 통찰 능력제고	독일
	독일 Pact-Zollverein Residency/암스테르담 research project<OIKOS>	DasArts Amsterdam, Netherlands/PACT Essen, Germany	독일/네덜란드
	호주 DIA Project 2006-2007 공동창작 프로젝트	Gosford-Sydney(호주 시드니)	호주
	일본 Session House 레지던스 아티스트 프로젝트	Session House(일본 도쿄) http://www.session-house.net/index.html	일본
2007	프랑스 PAF 해외레지던스(performing arts forum)	PAF ○ 프랑스 생 에름 우트르 와 람쿠르( St Erme Outre et Ramecourt)에 위치 ○ 예술인 자치 민간 단체 공간으로서 모든 장르의 예술 전문인, 비전문인 모두 지원 가능하며 예술 작품의 생산과 홍보로서의 공간이 아닌 예술인들과의 교류와 대화의 장을 지향 ○ 스튜디오 오픈 리허설 공개, 작업내용소개, 미술, 음악, 무용예술가들과 교류, 무용공연 형식에 관한 토론 등 운영	프랑스
	독일 Dory Park Dance Company 레지던스	Dorky park dance company(독일 베를린)	독일
2008	프랑스 PAF/Weld 레지던스	PAF/스웨덴Weld	프랑스/스웨덴
	프랑스	PAF/포르투갈오브라게단/스페인로드리게스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



PAF/포르투갈오브라제단/스페인 로드리게스 레지던스		르투갈/스 페인/독일
벨기에 de Pianofabriek 레지던스	de Pianofabriek(벨기에 브뤼셀)	벨기에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을 통해 국외에서 레지던스 활동을 하였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예술위원회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문학 분야 7인, 시각예술 분야 20인, 무용 분야에서 6인 그리고 연극 분야 1인 등 총 34명이 설문에 응해 주었다. 주요 설문 내용은 레지던스 참가자들이 레지던스 참가를 계획하면서 레지던스 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해당 레지던스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며, 레지던스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 레지던스 참여를 통한 성과와 해당 레지던스 프로그램 상 아쉬웠던 점 등이었다.

먼저, 해당 예술가들이 해외 레지던스 참가를 계획하면서 레지던스 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중복체크가 가능하게 하여 5개의 항목(레지던스 기관의 위치, 프로그램의 성격,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참가자에게 지원되는 항목, 기타)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성격과 레지던스 기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그리고 인적네트워크의 확대와 참가자에게 지원되는 항목이 고려 대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장르(응답자수) 항목	문학(7인)	시각예술(20인)	무용(6인)	연극(1인)	계
레지던스 기관의 위치	1	11	1	-	13
프로그램의 성격	4	6	4	-	14
인적 네트워크의 확대	-	3	3	-	6
참가자에게 지원되는 항목	1	3	2	-	6
기타 의견	○ 레지던스 기관의 사회적 중요도와 신뢰성	○ 작업 리서치 목적 ○ 프로젝트 목적(2인) ○ 사진초청	○ 레지던스 단체의 인지도	○ 해당 기관의 사진 초청	

둘째, 해당 레지던스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을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문학 분야의 경우, ‘완벽한 창작 공간과 숙식 제공’, ‘각국에서 다양하게 업선된 작가들의 참여와 공동생활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오래된 프로그램이 갖는 안정적 운영과 검증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작가의 시야를 넓혀 주고 창작의욕을 배가시켜준 점’,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방식’ 등과 ‘타 지역을 방문하는 등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마련된다’는 점’ 등을 손꼽았다.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참여 작가 존중과 창작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는 점’, ‘풍부한 레지던스 운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물적 인적 집중 지원과 지역 사회복지사와 지역작가들의 조인’과 ‘뉴욕, 베를린, 파리, 앤티워프, 이스탄불 등 공간 위치 상 장점과 현지 예술계에서의 위상’, ‘현지 작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인적 네트워크’, ‘게스트 크리틱 제도, 큐레토리얼 등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였다.

무용, 연극 등 공연예술분야에서는 ‘새로운 작업에 대한 실험 기회 제공’, ‘수영장을 개조한 공간 등 공간 자체의 특이성’, ‘자신의 작업 세계를 알리고, 이후 공연과 연계되는 점’, ‘장르간 작가간 공동작업과 국제적 네트워크’, ‘세계의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류’ 등을 큰 장점으로 삼고 있다.

셋째,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마찬가지로 5개의 항목(언어소통, 작업환경, 기자재, 숙소, 기타)에 답변토록 하였다. 응답자들은 언어소통을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손꼽고 있다. 기자재, 숙소, 작업환경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프로그램 운영자의 역할도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장르(응답자수) 항목	문학(7인)	시각예술(20인)	무용(6인)	연극(1인)	계
언어소통	3	6	2	-	11
작업환경	1	3	-	-	4
기자재	-	2	2	-	4
숙소	-	3	1	-	4
기타 의견	○ 경비 부족 ○ 날씨 변동	○ 관계자들의 관심도 여부(2인) ○ 경제적 어려움(4인) ○ 현지적응 ○ 교통 ○ 큐레이터쉽 ○ 기관의 위치	○ 기관의 위치	-	-

넷째, 레지던스 참여를 통한 성과와 해당 레지던스 프로그램 상 아쉬웠던 점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대부분 대체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해외 레지던스에 참여한 예술가가 느끼는 편차는 각 레지던스 운영 단체의 사정에 따라 ‘참여 작가들을 위한 전시, 컨설팅 지원, 기자재 구입을 위한 매뉴얼 복지 지원 등 매우 흡족함’과 ‘참여 작가에 대한 관심 부족 등 아쉬운 바가 큼’ 등 매우 심하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문학 분야의 경우, 언어소통, 문화 체험과 작가 간 교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점, 특정지역 신변상 안전 문제, 의사소통과 숙소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점, 한국 문학에 대한 주최 측의 이해가 부족한 점, 참여 작가에 대한 현지 홍보 부족, 영어권 이외의 작가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아쉬운 점들로 언급하였다.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언어소통, 해당 지역과의 관계, 전시 진행을 위한 지원 부족, 게스트 크리티크 등 프로그램 운영 미흡, 작가에 대한 무관심, 적극적 교류 기회 제공 부족 등으로 응답하였다.

무용·연극 등의 경우는, 무대기술, 음향 테크니션의 도움 부족, 공연 시 참가자 지원 부족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 해외 레지던스 공간의 다양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상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제 레지던스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각각 강조되어야 할 부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부문이다.

특히, 언어소통의 문제, 참여 예술가들의 숙식 문제, 기자재 정보 제공 문제, 참여 작가에 대한 이해의 문제, 전시 및 공연 지원 문제, 게스트 크리티크, 작가 교류 등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 제작에 필요한 기술 인력 지원의 문제 등은 레지던스 운영 상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었다.

## 2.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외 레지던스 지원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은 예술가의 자율적인 계획에 의거해 해외의 적합한 레지던스 공간을 찾고, 참가 허락을 얻어 지원 신청을 하고, 예술위원회의 지원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도 레지던스 참가가 가능한 사업임에 반해, 미국의 ‘P.S.1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 독일 ‘콘스틀러 베타니엔(Kunstlerhaus Bethanien)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과 네덜란드의 ‘라익스 아

카데미(Rijksakademie)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예술위원회와 해당 레지던스 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각예술분야의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작가를 국제적 레지던스에 참가하도록 지원한 최초의 사례는 미국 뉴욕의 현대미술연구소에서 운영했던 'P.S. 1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보인다. 당시, 문예진흥원에서 1992년 9월부터 1993년 8월까지 미술가 김수자의 P.S.1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에 2천 3백만 원의 지원을 시작으로 2004년 P.S.1 측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 변경으로 참여가 중단될 때까지 10년 이상 P.S.1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작가들을 참여시켜 왔다.

하지만,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해, 새롭게 독일과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국제 레지던스 운영 단체와 적극적으로 교류 협약을 맺어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가. 베타니엔 스튜디오 작가파견 사업

(Kunstlerhaus Bethanien International Studio Program)

2004년, 당시 문예진흥원에서는 독일 베를린 시내에 위치한 베타니엔 스튜디오 측과 협상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 작가가 해당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약정을 맺었다. 이 약정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 사업은 현대 시각예술 분야의 신진 작가를 1년간 독일 베를린 베타니엔 스튜디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파견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유럽 예술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 베를린시의 대표적인 레지던스 공간인 베타니엔 스튜디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우리의 작가를 파견하여 해당 분야의 국제적 예술인 및 미술관계자(큐레이터, 비평가 등)들과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 차세대 작가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공식 참가 기간은 1년이며, 선정 방법은 예술위원회에서 1차로 6명 내외를 선발하고 베타니엔에 추천하면, 베타니엔 측에서 최종 1명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연간스튜디오 사용료, 파견 작가 참여경비, 왕복항공료, 참가종료 후 귀국보고 전시회 개최경비일부 및 기타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베타니엔 스튜디오의 흥미로운 점은 비영리 지위를 가진 공공기관으로서 베를린예술아카데미(Akademie der Künste Berlin)와 독일학술교류처(Deutschen Akademischen Austauschdienstes(DAAD))의 베를린 예술가 프로그램(Berliner Künstlerprogramm)과 파트너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곳은 베를린주정부(Land Berlin)로부터 재정후원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예술위원회를 포함한 해외 저명한 문화기관과 교류협정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78)</sup> 주목 할 점은 독일 국내작가가 아닌 순수 해외작가들만을 초청한다는 점과 자체 후원조달(fundraising) 활동을 활발히 하여 대부분의 재정을 충당한다는 점이다. 현재 베타니엔 스튜디오 운영 감독인 크리스토퍼 탄네르트씨는 이 곳의 궁극적 목적을 ‘국제적 작가들이 베를린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베를린의 현대예술과 문화계에 생동감 있고 신선한 자극을 주도록 하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sup>79)</sup> 베타니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은 레지던스 참가 후에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sup>80)</sup>. 베타니엔 국제레지던스프로그램의 참가 소감을 통해 작가 김윤호는 “베를린 소재의 한국문화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보다 긴밀한 교류와 접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 작가들의 경우 각기 베를린 소재 문화원과 대사관을 통한 전시나 그 나라 출신의 다른 작가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심지어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후 작품 운송을 지원해 주는 등(물론 유럽이란 근접한 지리적 요건 때문이긴 하지만) 잦은 교류를 갖는 것을 보게 된다. 한국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온 한 예술가로서의 활동 보다는, 베를린에서 작업하

78) [www.bethanien.de](http://www.bethanien.de), 콘스트할레 베타니엔과 교류 협력 약정을 맺고 있는 기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이외에도 호주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벨기에 플랑드르지역위원회(Ministerie van de Vlaamse Gemeenschap), 캐나다 예술위원회(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퀘벡 예술위원회(Conseil des Arts et des Lettres du Québec(CALQ)), 헝가리 교육문화부OKM(Oktatási és Kulturális Minisztérium), 헝가리 현대예술교류기구(ACAX-Nemzetközi Kortárs Képző), 네덜란드 시각예술, 디자인, 건축예술재단(Fonds BKVB-Fonds voor beeldende kunsten, vormgeving en bouwkunst), 노르웨이 현대미술소(OCA(Office for Contemporary Art Norway)), 뉴질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New Zealand), 아르헨티나(Fundação Calouste Gulbenkian), 스웨덴 국제예술가스튜디오 프로그램(IASPIIS - International Artist's Studio Program in Stockholm, Sweden), 싱가포르예술위원회(National Arts Council Singapore), 독일 슈어링재단(Schering stiftung), 사이프러스 UNDO, 독일 베를린-윈트호크교류재단(p.art.ners berlin-windhoek), 브라질 이토우문화원(Itaú Cultural) 등이 있다.

79) 이곳은 2008년 11월 현재, 베타니엔 건물 내 정치적 스캔 등의 문제로 인해 2009년 봄, 베를린 근교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08년 11월 10일, 베타니엔 스튜디오 운영 감독 크리스토퍼 탄네르트씨(Mr. Christoph Tannert)와의 현장 인터뷰 및 내부 홍보자료.

80) 김신일(독일, 뉴욕 등 초청 전시 등), 김윤호(제28회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수상, 베를린 아트 포럼 전시, 독일 국제사진페스티벌, 스웨덴 초청 전시 등), 이문주(베를린아트포럼, 신한갤러리 초청 전시 등)

고 있는 다른 한국인 작가들과의 공동의 활동을 통한 우리 예술의 알림은 더욱 큰 효과와 영향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한국문화원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참여 작가 김신일은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얻는 정신적인 변화와 작가에게 필요한 여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베를린에서는 새로운 예술창작의 주도가 되는 자유로운 활동무대가 보다 많이 형성되어있으므로 뉴욕보다 더욱 활기찬 현대미술을 볼 수 있고", "문화,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뿐만 아니라 작품제작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도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지역사회에 예술로써 봉사하고, 이런 행사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외국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지인과의 문화적 괴리감을 작품을 통한 대화로 좁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베타니엔 레지던스 파견 사업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도 전하는 기회"가 됨을 밝혔다. 또한 참여 작가 이문주는 "베타니엔 레지던스는 작품 활동과 연구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 작가로서의 역량을 내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 개인전을 가짐으로써 나의 작품을 처음으로 국외에 소개 할 수 있었기에 큰 의미"가 있으며, "오로지 작업실에 은둔하며 실험에 몰두 할 수 있을 시간을 가진 것은 작가활동에 필요한 귀중한 충전과 내적성장의 시간을 마련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는 등 작가가 집중적으로 작업에 몰두하고 작업에 도움 되는 직간접적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 나. 라익스 아카데미 작가파견 사업

(Rijksakademie Van Beeldende Kunsten)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던 미국과의 P.S.1 레지던스 파견 지원 사업이 초청 단체 측의 운영방식 변화로 중단되자, 2004년, 예술위원회(구 문예진흥원)에서는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와 협상을 진행하고 현대 시각 예술 분야의 신진 작가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라익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2년간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위원회는 독일 베를린 못지않게 유럽 현대예술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에 소재한 라익스 아카데미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국내 작가가 참여토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작가들의 국제적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참가기간은 2년이며, 예술위원회는 매년 국내 작가 2~3인을 지원하고 있다. 작가 지원은 참여 희망 작가가 먼저 라익스 아카데미에 신청하여 참여작가로 최종 선발되면 그때 예술위원회에서 라익스 아카데미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라익스 측의 참여 예술가 선정 방식은 1차 포트폴리오 및 작업계획서 심사 후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정하며, 대학원이나 대등한 기관을 졸업하고 3~5년 정도 활동한 작가를 선호한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참가 작가의 왕복 항공비, 라익스 아카데미 연간 후원금을 부담하고, 주최 측인 라익스 아카데미에서는 개인스튜디오제공, 작품재료비, 생활비보조, 보험, 기타 숙식할인 등 일부 간접지원을 담당한다.

라익스 아카데미의 특징은 젊고 실험적이며 혁신적인 각국의 현대미술작가들(네덜란드 및 외국작가 50명)에게 전용 작업 공간(개별스튜디오)을 제공하고 서로의 작업과정을 개방하고 때로는 공동작업을 통해 작가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오픈 아뜰리에(매년 11월, 5일간 운영)’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큐레이터, 평론가, 관람객들에게 참가 작가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자문프로그램(국제 미술 무대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는 큐레이터와 비평가, 작가들 중에서 각국의 입주 작가들에 의해 추천된 30여명의 자문단으로 구성)을 운영하여 참여 작가가 현지와 세계의 미술계에 집중소개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장점이 있다.

‘라익스 아카데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참여자였던 작가 송상희는 참관 후기에서 “라익스 아카데미는 단지 레지던스 프로그램(Artist Residency Program)이 아닌 잘 조직된 하나의 예술가 ‘시스템’이었다. 강하게 인상을 심어줬던 것은 완벽한 기술적 지원이었다. 예를 들어 불가능한 특수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면 기술 고문(technical advisor)과 간사(facilitator)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며 해결 지점을 찾아갔다. 또한 라익스 아카데미의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행사인 오픈 아뜰리에를 위해 스태프들과 기술자들이 한 달 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철저히 준비했고 모든 경제적, 기술적 부문을



협조했다. 또한 스튜디오에 있는 다양한 나라의 작가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공유 하며 생각의 폭이 다각도로 넓어 질 수 있는 중요한 경험”이었다고 밝히며 작가에게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고 있다.

#### 다. 미국 아이오와대 국제창작프로그램 참가 지원

국내 대표적인 문학 국제창작프로그램 참가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미국 아이오와대 국제창작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이다. 아이오와대 국제창작프로그램은 미국 아이오와주 아이오와대학에서 열리는 국제창작프로그램으로 문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문학을 옹호하고, 전 세계 작가들에게 교류의 기회를 주기 위해 196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 작가들을 초청, 매 년 3~5개월씩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며 토론과 심포지엄, 각종 문학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있다.

이곳에 참여하는 예술가 중 과반수는 미 국무성 초청으로, 또 다른 과반수는 작가가 소속한 자국의 준 정부 문화진흥기관의 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거주기간은 약 3개월 내외이며, 2006년 기준으로 참여 총 인원은 35명(장기 거주 작가 20명, 단기 방문 10명)이었다.

이곳 레지던스의 주요 프로그램은 시민대상프로그램(공공도서관 토론회, 시내 서점 Prairie Lights독회), 문화체험프로그램, 작가 워크숍(Writer's Workshop, 미국 내 작가 지망생 대상) 소속 대학생들과 정기적 만남 및 상담, 타국 작가들과 문화적 교우, 번역워크숍(Translation Workshop, 번역이 가지는 위치, 중요성 등 번역 전반에 대해 토론), 10일간의 여행(Ten-day-travel, 유명 작가의 문학적 자취를 살펴보는 기회 제공), 3개월 정도 독립적 개인 집필 공간 생활, 아이오와 대학의 아시아태평양연구소(PACS) 소속 학자들과 학문적 교류 등으로 구성된다.

예술위원회는 참여 작가에게 항공비, 현지 교통비, 연수비용, 숙식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미국 내 소수민족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인 아이오와대학은, 특히 중국



에 대한 관심이 커, 미국 내 단 두 군데에만 설립된 ‘중국문화센터’ 중 하나를 설립하였으나, 이곳의 한국 유학생 비율이 전체 3위임을 감안 할 때 이에 걸맞는 프로그램이 부재(특히, 한국 문화-한국문학 관련 강좌 부재)하여 현지에서 한국인 전문가가 상주할 필요성이 높고, 한국 문학작품의 영역(英譯)부족이 심각하므로 국내 번역자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시 예술위원회는 내부 평가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 제4절 예술위원회 창작스튜디오 관련 사업 현황

예술위원회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과 별도로 각 장르별 창작기반을 조성하기위해 직접 ‘문학집필실’, ‘비영리대안공간’, ‘다원예술창작매개공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 이들은 다소 성격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 공간인 ‘창작스튜디오’와 매우 유관한 공간들이다. 이들 공간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들은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불어 참고 되어야 할 사업들이다.

### 1. 문학집필실<sup>81)</sup>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문학창작에 필요한 하드웨어 공간을 지원하여 최적의 집필환경을 제공하

8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계획」, 내부자료, 2008, pp218~232

며, 문학관이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sup>82)</sup>).

세부사업들을 보면, 첫째는 ‘창작 집필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문인들에게 창작 집필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문학 창작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둘째는 ‘문학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문학관이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작 집필실의 경우, 10실 이상 집필실을 완비하고 이를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문학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창작 집필실 운영 지원(5천만 원~1억 원), 문학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5백만 원~1억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8년 창작 집필실 운영 지원 사업 대상으로 ‘(재)토지문화재단 문인창작집필실 운영사업’과 ‘(재)백담사만해마을 문인창작집필실 운영사업’이 있으며, 문학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문학관협회, 전국 22곳의 문학관을 지원하고 있다.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한 국내 대표적인 창작 집필실인 (재)토지문화재단의 문인창작집필실과 (재)백담사만해마을의 문인창작집필실은 각각 입주희망 작가들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하여 최종 입주 대상 작가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두 곳 모두 국내 문인들을 대상으로 창작 집필실을 제공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재)토지문화재단에서는 강원문화재단과 함께 별도의 ‘문화예술인 창작실’을 운영하여, 타 장르 예술가와 입주 문인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예술위원회는 전국적인 문학관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학관협회를 지원하여 전국의 문학관을 활성화 하고자 하며, 개별적인 문학관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문인들의 창작 집필실이 매우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안정적인 창작 집필실을 제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글을 쓸 때 ‘무엇’과 ‘어떻게’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다름 아닌 ‘어디서’이다.”라는 작가 이문재의 말<sup>83)</sup>처럼 문학인에게 글 쓰는 공간의 중요성은 작품의 중요성 못지않게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학관 운영과 관련한 연구 중 하나인 ‘경기문학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연구<sup>84)</sup>’에서는 문학관 운영을 위한 기본조건으로 전문인력, 재정,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주체 등 4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학예사나 전시경험자, 사서 등의 전문인력의 필요성,

82) 2008년 문예진흥기금 동 사업 예산액은 5억원.

83) 「경향신문」, “조용한 방’있습니까(시인 이문재의 글마를 책동네),’이문재, 2005.12.29

84) 박상언 등, ‘경기문학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학관 정책 연구,’경기문화재단 2006, pp.189-19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후원회 운영 등 재정 개발의 문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주체의 문제에 있어 전문운영단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구분 등 창작스튜디오와 별다르지 않은 기본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고택이나 사찰 등 창작 집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문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외 문인들을 초청하여 국내 문인들과 교류하는 뚜렷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공간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동 사업의 필요성은 예술위원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sup>85)</sup>

## 2. 시각예술 기획사업 발굴지원 사업

급변하는 예술 현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각예술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창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위원회는 ‘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지원사업’을 2008년 1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각예술기획사업발굴지원사업은 창작역량 지속화(거점화), 인큐베이팅, 다각화 사업 등 3가지 영역의 사업내용을 체계화하여 각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술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비영리전시공간지원(5억원)’, ‘인사미술공간운영(6억6천만원)’, ‘기획발굴사업지원(3억4천만원)’ 등의 세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중 ‘비영리전시공간지원’과 ‘인사미술공간운영’이 ‘창작스튜디오 공간’ 및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사업과 연관성이 있어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 ‘비영리전시공간지원사업’과 ‘창작스튜디오 공간’과의 연관성이다. 시각예술 분야 활동 거점의 기반 구축을 위한 ‘비영리전시공간지원사업’은 비영리전시 공간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미술계 현장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08년 현재, 동 사업은 민간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제한적 지원방식에서 개방형 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 거점 공간의 기반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일회성 지원 구조를 보완하고자, 한번 선정되면 2년 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08년 사업 공모 결과 22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72%인 16건이 지원대상으로

85) 2008.11월 예술위원회 문학팀 담당자(정소정)와의 인터뷰.

선정 되었다. 주요 심의기준은 프로그램의 실험성 및 기획력(작가 발굴·육성 전시기획 및 관련 프로그램), 예술현장의 파급효과(영향력) 네트워킹 활성화(국내외, 지역, 매개기능 등), 운영의 안정성(운영체제, 공간운영 등) 등 각 항목에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였다.<sup>86)</sup> 아래 표는 2008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대안 공간 사업들이다.

지역	단체명	사업명	사업장소	지원 액 (만원)
서울	(사)대안공간풀	대안공간 풀 운영 지원	대안공간 풀	4500
서울	(사)프로젝트스페이스사 루비아	프로젝트스페이스사루비아다방 운영지원	스페이스사루비아	4500
서울	갤러리정미소	갤러리 정미소 운영 지원	갤러리 정미소	3000
서울	갤러리팩토리	갤러리 팩토리 운영 지원	갤러리 팩토리	3000
서울	대안영상문화발전소아이 공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운영 지원	대안영상문화발전 소 아이공	2500
서울	브레인팩토리큐레이팅그 룹	브레인 팩토리 운영 지원	브레인 팩토리	4000
서울	아트스페이스휴	아트스페이스 휴 운영 지원	아트스페이스휴	3000
서울	대안공간루프	대안공간 루프 운영 지원	대안공간 루프	4500
서울	한국화대안공간갤러리꽃	한국화 대안공간 갤러리꽃 운영 지원	대안공간 갤러리 꽃	2500
인천	스페이스빔	스페이스 빔 운영 지원	스페이스 빔	3000
대전	대안공간반지하	대안공간 반지하 운영 지원	대안공간 반지하	1000
대구 달성	스페이스가창	스페이스 가창	스페이스 가창	2500
부산 기장	오픈스페이스배	오픈스페이스 배 운영 지원	오픈스페이스 배	3000
부산	대안공간반디	대안공간 반디 운영 지원	대안공간 반디	4000
경기 안양	대안예술공간스톤앤워터	대안예술공간 스톤앤워터 운영 지원	스톤앤워터	3500
경기 부천	대안공간아트포럼리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운영 지원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1500
평란드	company	인미공라운지	인사미술공간	1000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 ‘비영리전시공간’에서도 자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8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방식은 선정된 단체와 지원조건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2년간 지원하고, 선정된 단체는 지원기간(2년)까지 별도의 지원신청절차 없이 약정이행 여부 및 사업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규모는 공간별 연간 3천만원 - 6천만원 내외이고, 지원항목은 전시 등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체나, 공간운영, 기획인력의 인건비 등 단체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전체 지원금액의 20%)이다. 내부자료.

예를 들면, 오픈스페이스 배의 경우, 자체 공간에서 ‘오픈스페이스 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8년의 경우에는 부산, 서울, 광주, 강원, 충남, 대전, 일본, 독일 지역에서 공모 안이 접수되었고, 독일 작가가 입주 작가 들 중에 포함되었다.<sup>87)</sup> 대안예술공간 스톤앤위터의 경우도 2007년과 2008년에 해외작가를 초청하여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비영리전시공간지원’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위원회 내 시각예술분야의 유일한 공간 운영 지원이다. 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창작스튜디오’ 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원 사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비영리전시공간지원’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창작자의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보면 ‘프로그램 지원’보다 ‘공간 지원’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창작스튜디오공간’과 ‘비영리전시공간’은 성격 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영리전시공간’ 지원만으로는 ‘공간 지원’을 충족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비영리전시공간’ 사업의 성격을 ‘창작스튜디오공간’ 지원이 포함되도록 넓게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별도로 ‘창작스튜디오공간’ 지원 사업을 신설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작스튜디오’ 공간에서 거주 작가들 혹은 지역 작가들의 개인전, 기획전 등이 비영리 성격의 전시들이 개최되고 있으나, ‘창작스튜디오’는 작가들의 창작 작업 활동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사미술공간’과 ‘국제레지던스 공간’과의 연관성이다. 예술위원회 인사미술 공간 운영사업은 사업예산 6억원(2008년)으로 유망작가를 위한 복합/교류/지속형 기능체제를 구축, 아카이브와 워크숍, 출판 미디어와 프로젝트 연구개발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국내의 미술기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작가군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세부 사업으로 신진작가수첩, 레지던스 워크숍, 뮤지엄 에즈 허브, 윤복 프로덕션, 저널 『불』, 아티스트북 제작, Activating Korea IASmedia, 출판미디어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콜렉션, 아카이브 프로젝트, 아카이브연구개발 및 관리운영, 관객개발 프로젝트, 홍보물제작, 라운지 프로젝트, 모니터링, 공간운영과 인턴쉽 제도 등 다양하다. 이러한 각종 워크숍, 프로덕션, 출판/미디어, 아카이브운영, 관객개발사업들을 통해 국내외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가고 있다.

87) <http://www.spacebae.com/>

별개처럼 보이는 이곳의 프로그램들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신진작가수첩’ 프로그램은 작가선정, 교육, 전시, 비평에 이르기까지 5개월간 큐레이터와 작가간의 멘토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큐레이터 및 평론가들의 다각도의 평가를 받는다. 이점은 비록 거주는 하지 않지만 작가의 작업에 대해 전문가의 비평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단체에 소개하고,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 참여 지원 등을 통한 간접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곳에서 운영중인 ‘레지던스 워크숍 프로그램’은 신진작가의 뉴 프로덕션을 해외레지던스와 협업 하는 방식으로 신진작가지원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해외 기관과의 대등하며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의 방식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방식의 국제간 협력은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모델을 찾는 데 크게 참고 될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뮤지엄 애즈 허브’ 프로그램은 해외 미술기관 간 장기(2년)적 국제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이며 해외에서의 전시 이후 연속으로 한국에서 귀국 보고전과 도록을 출판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미술공간의 국제적 지명도를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 홍보 효과가 탁월한 해외 작가의 아시아에서의 첫 신작 제작과 개인전을 기획하는 소위 ‘윤복 프로젝트’의 기획은 인미공 윤복 프로젝트 기획팀, 윤 복 스튜디오, 뉴욕의 작가 전속화랑 안톤 쾨 갤러리 세 파트너 간의 협업으로 진행하여 국제간 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미술공간에서는 ‘저널 볼’<sup>88)</sup>발간, 작가들의 프로덕션 개념으로서의 아티스트 북 제작과 미술전문 ‘아카이브’를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현대미술전반에 대한 자료 제공 센터로 시각예술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포트폴리오 콜렉션’ 사업은 국내 작가의 작업 내용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보장을 위하여 포트폴리오 제작비용을 지원하여 작가가 직접 제작한 포트폴리오를 수집, 실질적인 작가의 소개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포트폴리오제작 대상자는 신진작가 발굴지원의 측면에서 그간 신진작가수첩을 진행한 큐레이터 및 신진작가에 관심이 있는 큐레이터들을 통해 추천받아 추진하고 있다.

인사미술공간은 별도의 인턴쉽 제도를 통해 기획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력을 실무

88) 2005년도부터 진행된 국영문 혼용 전문지로서 매호 아젠다와 책임편집자를 선정, 전문필자와 작가들이 참여하는 아티스트 페이지로 구성

를 통해 기획자로 성장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인사미술공간 인턴쉽제도와 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의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간에서 요청하고 있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력 양성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3.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사업

‘다원예술매개공간’과 ‘국제레지던스 공간’과의 연관성이다. ‘다원예술매개공간’ 지원사업은 예술위원회가 다원예술분야의 기획사업 중 위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다원예술 창작기반사업으로서 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다원예술매개공간운영단(비상근위원 3인)과 운영단 내 사무국(예술감독 등 상근 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술위원회와 운영단은 약정서를 체결, 중요업무(프로그램 구성 등)는 예술위원회의 승인 하에 추진하고 있는바, 공간의 위치는 서울 서교동, 약 40평인 오픈스페이스이다.

이곳의 주요 사업 내용은 첫째, 다원예술 담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토론 형식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둘째, 예술가 및 단체에게 시연이 가능한 공간과 진행인력을 지원하고 결과물(영상, 출판물 등)을 공유하는 외부 제작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비록 ‘다원예술매개공간’이 해외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국제레지던스 공간은 아니지만, 이곳은 다원예술의 거점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시도하는 실험적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원예술분야의 활동은 아시아 권역 국가들 중 특히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다원예술 분야의 활동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원예술분야의 특수성 상, 다양한 예술 장르가 협업하게 되고, 공연과 전시 등 결과에 못지않게 예술가 간 협동하는 창작 작업 과정이 중요하므로 ‘다원예술매개공간’은 주요한 다원예술분야의 ‘창작스튜디오’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향후에 이 공간을 중심으로 다원예술분야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에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파급효과도 매우 높을 것이다.

### 제5절 국제레지던스 지원사업 성과와 문제점

2006년 예술위원회는 현장의 수요와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국내 단체들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신설 후 2008년까지 13건의 사업에 6억 8천여 만 원을 지원해 왔다.

그간 지원을 받아 수행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많지는 않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충북민예총 주최로 청주복합공연장 HIVE에서 운영해온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인 ‘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는 매년 좋은 평가로 운영비 지원을 받고 본격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한, 극단 노플의 주최로 후용공연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내 몇 안 되는 공연예술 전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역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분야



로 특성화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체를 놓고 볼 때 국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국제 레지던스 공간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며 운영 시설의 불안정성과 재정 지원의 다각화가 부족하여 장기적 전망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둘째,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받고 사업을 수행한 대부분의 단체들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국제간 네트워크 형성하고 국내외 예술가간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한 예술가 자신들의 작업에 자극을 받고 있으며, 이후의 전시나 공연으로 발전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이 개최된 지역의 공동체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홍보하여 다양한 문화적 양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상당한 성과<sup>89)</sup>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대개는 초청 작가와 개별적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며, 기관과 기관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의한 국제 교류 활동은 부족하다.

셋째, 그 간의 사업을 통해 사업 수행 주체인 국내 민간단체들의 국제레지던스 사업에 대한 추진 역량이 크게 향상 되었다.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전문적인 문화예술기획 및 행정인력을 자연스럽게 양성되고, 지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매뉴얼이 마련되었고, 지역의 문화 인력을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아시아라는 특정 지역의 젊은 작가를 초청하여 우리가 속한 아시아를 상호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고, 향후 실질적 국제 창작교류 네트워크의 기반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안덕별 예술제 등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백만인이 키우는 무진이프로젝트’는 프로젝트형 레지던스 방식을 지역에서 시도한 점이 특징이었으며, 프로젝트 참여 작가들 간의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버려졌던 공원을 국내외 예술가들이 참여해 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의 부흥이라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퍼포밍아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다원예술분야처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의 관심을 끌어내었고, 특히 다원예술이 극장이나 미술관의 형식이 아닌 대중적인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이번 레지던스 워크숍을 통해 검증하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2006 노리단 소리노리터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을

8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선정 단체 사업 수행 현황, ‘성과보고서, 2006~2007.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콘스트독의 ‘국제창작스튜디오’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상호 소통과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에 관한 수용의 폭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하고 있다. 극단 노뜰의 경우, 사업 장소였던 후용공연예술센터가 공연예술 중심의 국제레지던스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아, 국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국적을 달리한 참가자에 대한 상호간의 호기심이 컸고, 지역과 유리되지 않은 작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상시 전문 인력을 통해 운영하는 단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에서 창작스튜디오나 레지던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은 수준에 있다.

예술위원회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반면, 공간에 대한 기본 인프라의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의 과정이 국제레지던스 사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식화한 도입부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국제레지던스 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약의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다음 단계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 제4장

### 국내의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제1절 : 국제레지던스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략

1. 거시적 관점
2. 미시적 관점

## 제1절 :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략

예술위원회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주로 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사업의 범주에서만 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업은 예술위원회 국제교류 담당 팀의 한 사업이고, 국제교류사업 이외의 사업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실, 언뜻 보기에는 국가 간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교류사업 중 하나인 ‘국제레지던스’는 예술위원회가 주요한 예술창작기반으로 생각하는 ‘창작스튜디오’공간과는 별다른 연계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내’사업과 ‘국제’사업은 서로 다른 범주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온 바처럼 ‘창작스튜디오’공간과 ‘국제레지던스’공간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국립 창동미술스튜디오나 광주광역시의 미술창작스튜디오, 하계마을의 예술창작촌처럼 ‘창작스튜디오’공간에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자연스러운 발전 경로를 보면, ‘창작스튜디오’ 공간이 기본적인 창작 작업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입주 작가들 간 교류와 해외 작가들의 초청, 교류가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국제레지던스’공간으로의 변모를 시도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을 알 수 있다.

국제레지던스 공간의 활성화는 창작스튜디오의 활성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좋은 창작스튜디오가 많아지고 이들 공간 운영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시도하게 되어, 일부가 ‘국제레지던스’공간으로 활성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레지던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국내의 ‘창작스튜디오’ 혹은 ‘레지던스’공간의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거시적인 관점, 즉 예술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난 외부 조건과 미시적인 관점, 즉 예술위원회 내 사업 운영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거시적 관점

첫째,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법적 제도화 방안<sup>90)</sup>이다. ‘창작스튜디오’에 관한 법적

90) 허윤선,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의된 개념규정과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지원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82

제도화 논의는 ‘문학관’이나 ‘비영리 대안공간’등의 법적 제도화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이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대다수 창작스튜디오는 ‘미술관 부대시설’이거나 ‘공연장’등 애매모호한 성격의 뚜렷한 법적 자격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창작스튜디오’와 관련된 항목의 문예진흥법 개정과 관련 규정 제정<sup>91)</sup>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행 법규로는 ‘창작스튜디오’가 문화시설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예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예진흥법 시행령에 ‘창작스튜디오’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창작스튜디오’ 공간 지원과 육성 조항이 마련된다면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다.<sup>92)</sup> 이를 위해서 직접적인 법 개정 요구가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예술위원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술옹호’캠페인을 펼칠 필요가 있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창작스튜디오’와 같은 중요한 ‘예술창작기반시설’과 ‘문화생산시설’에 대한 지역적 의미를 일깨우고, 이러한 공간이 지역민들의 삶과 생활에 미치는 본질적인 영향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형성해 나가야 한다. 결국, 지역에 또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창작스튜디오’설립이 아니라, 주민 삶의 근본 방식을 변모시킬 수 있는 ‘문화생산거점’으로서 ‘창작스튜디오’가 논의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담론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별로 ‘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하여 ‘예술창작기반’에 대한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각 지역별로 수많은 창작스튜디오, 예술촌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수많은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생태지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sup>93)</sup> 이러

91) 양건열, ‘미술창작스튜디오 지원정책 개선방안’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 1차 정책포럼 자료, p18. 및 문화관광부,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예술의 힘』, 2004, p210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문예진흥법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와 관련 별표 1에 의하면 문화시설의 종류는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공연시설과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등의 전시시설, 도서관, 문고 등 도서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문화보급 전수시설, 그리고 6항에 그 밖의 문화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92) 허윤선, 앞의 책, “중앙 정부는 예산시스템 개혁을 통해 많은 예산을 지역으로 이관하게 되었고 미술창작스튜디오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련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였다. 따라서 현재 문화관광부 주도의 관련 정책은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각 지역별 실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미술창작스튜디오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p81

한 연구는 조사 범위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한꺼번에 조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위원회가 현재 추진 중인 ‘지역협력형’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재단등과 공동으로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조사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축제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문화발전에 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심포지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 문화단체 간 지역문화 생태계에 대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도 적극 추진해 볼 수 있다.

셋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써 ‘창작스튜디오’공간 지원을 ‘지역 협력형’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 ‘창작스튜디오’의 대다수가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으므로, ‘창작스튜디오’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지역주민’과 ‘지역의 자치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의욕들과 달리 지역의 문화재정 상 한계, 전문 인력 부족 현상, 유관된 정보의 부족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창작스튜디오’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93)</sup>

2008년도 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 중 하나인 ‘문예진흥기금 지역 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연구’에 따르면, 전문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향수 사업들은 활발하나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가장 취약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어서 예술위원회와 지역간 협력 가능한 사업들로서 ‘문화예술 인프라지원사업’과 ‘문화예술 전문 인력사업’을 들고, 문화예술 인프라지원사업들 중 ‘예술전용공간 지원’사업과 ‘비영리 전시공간 지원’사업을 예로 들고 있다. 또한, 동 보고서를 위한 지역의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자, 지역 예술인 및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지역협력사업 추진 시 지역별 지원 희망 분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심층면접을 통해 ‘레지던스나 광역간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인 교류사업과 ‘광역단위별 예술 창작촌 지원’사업을 언급하여 지역협력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sup>95)</sup>

93) 허윤선, 앞의 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국립, 공립, 사립 미술창작스튜디오간의 역할 분담과 역할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미술창작스튜디오의 특성화를 도모하고 중복된 투자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p83

94) 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전문가 자문회의’, ‘창작스튜디오’운영 담당자와의 인터뷰, ‘창작스튜디오 참여 작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된 문제들이다.

9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연구」, 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협력연구과제

게다가, 최근 정부 주도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촌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다양한 국가적 차원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위원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sup>96)</sup> 지역의 ‘창작스튜디오’는 문화예술적 자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거점 공간이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결국, 기본적인 ‘문화예술 인프라’ 중 하나인 ‘창작스튜디오’지원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지역과 협력을 통해 우선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레지던스’공간 운영의 가능성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미시적 관점

### 가. 직접 사업 개선 방안

#### 1) 레지던스 전담팀 조직화

전국적 영향력과 파급효과 등 동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예술위원회 내 ‘창작스튜디오 혹은 레지던스’전담팀을 조직화하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의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스공간 관련 사업을 추진 할 팀을 조직하여, 조직 스스로 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목표를 먼저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예술위원회의 ‘창작스튜디오 혹은 레지던스’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전략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만 해도 ‘국제레지던스’ 전문 공간을 안정화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하는 것인지, 사업추진방식을 ‘일반 공모 방식’으로 계속 추진해 갈 것인지, ‘기획 공모 방식’으로 특화해 갈 것인지, 담당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 할 것인지, 사업 협력의 주 대상은 어디이며,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 등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레지던스’관련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기획해 나갈 수 있도록 전담팀을 조직화

02), 2008, pp24~27

9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농활성화 방안」, 예술위원회 예술정책 연구(협력연구과제 03), 2008, 참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전담팀은 예술위원회의 창작스튜디오 혹은 레지던스 관련 사업을 모두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즉,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국내레지던스 프로그램,’ ‘해외레지던스 참가지원 사업,’ 등과 ‘문학(창작집필실, IWP창작스튜디오참가지원사업),’ “시각예술(베타니엔, 라익스아카데미 창작스튜디오참가지원사업 및 비영리전시공간지원 사업),” “다원예술(다원매개공간)” 등에 분산되어 있는 국내외 모든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레지던스 전담 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사업 신청 단계로부터 해당 지역 여건, 지역 자치단체의 창작스튜디오 지원 현황,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을 포함한 ‘레지던스 중장기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토록 하고, 초청 작가 프로필과 교류 기관 현황, 과거 사업 실적 및 큐레이터 등 전문 인력 현황을 명시하도록 함으로 써 심사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2) ‘창작스튜디오 공간’ 지원 사업 재설계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 공간’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여, 새로운 사업 틀 속에서 ‘국내(지역, local)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과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개념이 혼란해 지자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역시 혼란해 졌다. 당초 우수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목적과 더불어 ‘창작 기반 시설로서의 국제레지던스’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창작스튜디오 공간’ 개념이 초기단계에서 진화해 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창작 공간’운영에 대한 지원 요구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사업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창작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작가들의 창작 작업 공간인데, 이 공간들이 담당할 기본적인 여건과 역할이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이 ‘국제교류거점’이나 ‘지역 활성화’ 등 다른 목표들이 덧붙여져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작스튜디오’에 관련된 주체 간에는 서로 간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다. 입주하려는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창작스튜디오’를 작품의 인큐베이팅, 창작 장비 협조에



대한 기대, 타국 예술가와의 만남, 프로듀서, 기획자, 비평가, 행정가 등 네트워크 기회  
의 제공, 작품 발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반면, 공간 운영주체의 입장에서는 국제  
교류활성화, 국제네트워크 형성, 지역 활성화와 지역의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중심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예술가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 공간 지원’을 재설계함으로써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방식’으로서의 사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 공간  
지원’ 사업 속에서 국내의 우수한 ‘창작스튜디오’들을 육성해 내고, 이중 일정한 레지던  
스 기반과 여건을 갖춘 공간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에게 창작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동시에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이 특성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 공간 지원’사업은 공간의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이 되며, 이들 공간이 발전되어 몇 개의 공간들은 ‘국내(지역, local)레지던스 프로그램’  
과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을 재설계 할 때, 예술위원회 기존의 장르별 특화 사업인 ‘창작집필실지원(문  
학)’, ‘비영리전시공간지원(시각예술)’그리고 ‘다원매개공간지원(다원예술)’ 사업 등  
과 통합적으로 조정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3) 특성화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집중 지원 강화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창작스튜디오’ 운영 주체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 목적과 더불어 공간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성  
과 도심과의 지리적 관계 및 공간여건 등을 감안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특성화  
여부를 지원 심의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집중 지원해야한다.

현재, 예술위원회의 동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 기준은 첫째, 국제교류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국제적 파급효과, 둘째, 사업 기획력의 우수성, 셋째,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구체적 실현 가능성, 넷째, 신청인(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다섯째, 레지던스  
중장기 발전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우수성로서 전반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신청한  
프로그램이 타 프로그램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특성화하려는지 묻고 평가하

는 항목이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특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예술위원회가 공동 기획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집중 지원하여 ‘전문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육성할 수 있다면 사업의 의의가 매우 높아 질 것이다.

따라서, 2009년부터 전문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요청한 단체에게 ‘레지던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과거 ‘레지던스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경우 예술위원회에 제출하게 한 것,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다년간(2년)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2009년 문예진흥기금 국제레지던스 운영지원사업의 개선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특성화된 ‘전문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일회성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과는 구별되어 지원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레지던스 운영 지원 사업을 ‘전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과 ‘프로젝트성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유형으로 양대 구분하고, ‘일회성 단기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을 ‘프로젝트성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유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해당 단체에게 ‘레지던스 중장기 발전 계획’ 제출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가능해 진다면, 그 프로그램 운영 방식은 해외의 다양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처럼 특정 작가중심, 농촌, 어촌, 탄광 등 특수 지역 중심, 한국무용, 현대무용, 마당극, 가야금이나 타악기 등 특정 장르나 전공 중심, 예술행정가나 큐레이터 등 전문가 집단 중심, 특정 시설중심, 학제 간 통합프로그램, 특정 자연환경 중심, 공동 프로젝트 중심, 여성이나 아동 등 특정 대상 중심, 지역문화체험중심 등 다각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기획 협력형 사업으로 추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중 프로젝트성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정기 공모의 형태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전문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운영 주체가 제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예술위원회가 집중 지원하는 기획 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방식이 불특정 다수 단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 일반 공모의 형식이 아닌, 일정 여건을 갖춘 단체로 신청을 제한하는 기획공모 방식이거나, 국립 창동과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나 공립 청주, 광주

창작스튜디오 등등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건이 좋은 국내의 우수한 국공립 레지던스 기관과 상호협력약정(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등을 통해 상호 도움이 되는 부문을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일례로 예술위원회가 협력하는 해외 문화예술기관과 양 국의 작가를 상호 추천하여 1차 심의, 선정 한 후,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측에서 최종적으로 국내에 초청할 외국 작가를 선발하고 예술위원회가 그의 체제비와 항공료를 지원하고, 상대국에서도 동급의 미술창작스튜디오에 우리 작가의 체류를 지원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 예술가를 해외의 우수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동시에 해외의 우수한 작가를 초청하여 국내의 전문적인 레지던스 공간에 입주토록 하여 지원 하는 기획사업의 사례가 될 수 있다.

P.S.1, 아이오와 문학창작스튜디오, 쿤스트할레 베타니엔, 라익스아카데미 창작스튜디오 참가 지원 등 그동안 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사업들이 우리 작가를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것에 중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상호 교류를 통해 해외 작가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예술가들과 교류토록 하는데 무게의 중심을 실어야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 역시 활성화되고 발전 될 것이다.

기획협력방식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성화 방안과도 연관이 깊다. 일반 공모사업과 달리 기획협력방식으로 국내 각 창작스튜디오 공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성화가 가능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상호 약정이나 계약을 통해 다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본격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기획협력방식을 통한 레지던스 공간의 특성화는 국내의 창작스튜디오 사업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국내에 특성화된 창작스튜디오가 많아지면, 국내 작가 간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국내(로컬, local)레지던스'사업들이 활발해 질 수 있고, 예술위원회는 소위 '창작스튜디오 특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이러한 지역의 창작스튜디오를 통한 예술가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공통으로 부딪히는 가장 어려운 점은 '공간의 불안정'과 '사업 예산의 부족, 즉 재정 부족' 문제이다. 지역에서는 주로 폐교를 활용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교육청 재산인 폐교를 창작스튜디오의 운영 목적에 따라 개조하거나 증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해마다 계약을 갱신

해야 하는 관계로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또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견해에 따라 공간 자체가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이전에 지역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학교 공간이었기에 폐교를 활용한 경우, 창작 스튜디오의 본연의 목적인 ‘예술가 창작 공간 제공’ 이외에도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학습 체험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폐교의 성격이 ‘지역’과 분리될 수 없는 특수성에 의해, 순수하게 ‘작가 창작 공간’이거나 ‘국제레지던스’ 공간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모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역 중심형 국내(local)레지던스’ 공간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작가가 일정기간 거주하여 창작 작업을 하는 ‘레지던스’ 공간을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민의 문화체험과 교육장소,’ ‘지역 학생들의 예술교육장소,’ 더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 명소’요, ‘지역 문화행사의 거점’ 및 궁극적으로는 ‘지역 재생’과 ‘지역 활성화’의 방편으로 까지 확대해서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사실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 지역 재생을 위해 낙후된 지역의 유휴 산업시설들을 창작스튜디오(레지던스) 공간, 박물관, 문화공원, 미술관 등으로 개조하여 문화공간화 함으로써 지역의 사회 문화적 여건들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키는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비록, 본 연구의 중심 주제에서는 벗어나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지만, ‘창작스튜디오’나 ‘레지던스’ 공간을 연구할 때 반드시 고려되고 조사 연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sup>97)</sup> 이처럼, 창작스튜디오 공간을 ‘순수 창작 작업 공간’과 ‘지역 중심형 국내(local)레지던스’ 공간으로 구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폐교 이외의 공간들,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유휴 산업시설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의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함에 있어 이들의 ‘사업예산’ 역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문화프로그램 지원의 일환으로 몇 백만원씩 창작스튜디오의 프로그램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으나 지역 사정 상 보조액이 많지 않아, 예술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독일 콘스트할레 베타니엔이나 미국 P.S.1 등 해외의 우수기관이 자금개발담당(Fundraising)을 두고 개인 기부나 기업 후원 등을 적극 유치하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창작스튜디오 역시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서 공공기금 이외에 다양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97) 싱가포르의 ‘Art Housing’ 프로젝트는 도심의 폐건물을 국가에서 매입하여 예술가에게 작업실로 공간 임대를 하고 있는 사례이며, 싱가포르 예술위원회와 싱가포르 도시개발국이 공동으로 추진 7개 건물을 매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독일 내 퇴락한 산업지대의 대명사였던 에센의 쾰페라인 공업지대는 버려진 탄광시설들을 춤 전용공간, 국제적 레지던스 공간, 디자인 미술관, 공원 등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2010년 유럽문화수도로 지정되었다. 영국 리버풀의 ‘Creative Quarter’, 일본 ‘가나자와시 시민예술촌’, 중국 ‘798지대’, 독일 슈투트가르트 등 세계 각지에 군수공장, 산업공간 등을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변모시켜 지역과 예술을 부활시키고 있는 예는 수 없이 많다.

필요하다.

최근 일련의 변화 중 주목 해야 할 현상은,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통한 도농활성화 방안<sup>98)</sup>들에 대한 관심이다. 행정안전부, 농림부, 노동부, 산림청, 한국농촌공사, 중소기업청, 문화체육관광부<sup>99)</sup> 등 다양한 정부기관들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때, 지역의 창작스튜디오를 문화 생산을 담당하는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생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역 문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적 여건이 향상되어, 지역의 경제와 문화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국내외 창작스튜디오, 정부기관, 준 정부 기관, 지역문화재단 등 예술위원회의 협력 대상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들 기관들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 수립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야 한다.

## 나. 간접 사업 개선 방안

### 1) 전문 인력 지원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문제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해외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국내에서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입주 작가의 작업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인력, 그리고 홍보와 자금개발까지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운영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 창동 미술스튜디오 만 해도 기술 지원 인력은 전무하며, 최소 3명(시설관리 인력 제외)의 전문 인력이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을 거주시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 지원과 별도로 ‘레지던스 전문인력’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이때 굳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껏 다루어 왔던, ‘창작스튜디오’ 혹은 ‘레지던스’ 공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는 차원에

9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8년 ‘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농활성화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제 한 예로써, 행정안전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는 읍 지역에서 지역특화사업, 주민 생활편의시설 개선사업 및 문화/복지/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의 추천을 거쳐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72개 소도읍에 약 1조 7500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문화일보』, 2008.10.24, 전국 13면, 신선종기자).

99) 「충북인뉴스」, 「충북예술촌을 가다」, “경북 영동군 용화면 자계리 자계예술촌은 2004년 문화관광부의 생활친화적문화공간 조성사업기금을 지원 받아 기존의 열악했던 공간을 개선, 공연예술창작촌으로서의 기본 시설을 갖추었다. 실내소극장(150석)과 야외 공연장(300석), 단원 숙소와 휴식공간 및 전시실(20평)등이 있다.” 2007.10.8, 박소영 기자.

서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많은 인력들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전공과 기회를 살리는 것이며, 공간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된다. 사업 추진 방식은 예술위원회가 '창작스튜디오' 공간 지원 시, 지원 조건으로 전문 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증빙토록 하는 방식과 더불어 아르고 예술인력개발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들 공간의 운영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간접적으로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이 있다. 비록 간접적인 지원이지만,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 전문 인력을 통해서 공간 운영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다.

## 2) 정보 제공 및 공유 지원

예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들 중 하나는 개별적인 사업 지원에 못지않게 종합적인 소통 창구 혹은 허브(HUB)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특히, 국제레지던스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심 네트워크 역할이 중요해 진다. 각각의 레지던스 공간들이 개별적으로 국내외 레지던스 공간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얻어지는 정보와 소통창구, 교류협력 창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비록 Res Artis, ACC 등 해외에 국제레지던스협의체가 그 역할을 해주는 측면은 있지만, 국내에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창작스튜디오를 연결하여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아직 없다. 최근 문화예술계 경향을 보면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들 간, 레지던스 공간 간에 자발적인 네트워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sup>100)</sup>되고 있는 점은 주요한 변화들이다.

향후, 예술위원회가 국내 문화예술계의 중심적인 국제교류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하여 예술위원회 내 '레지던스 전담팀'을 통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국내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나 '종합정보서비스제공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술지원컨설팅센터협력단에서는 [online.arko.or.kr](http://online.arko.or.kr)를 통하여 다양한 예술지원컨설팅정보를 온라인 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온라인 공간을 본격적인 '창작스튜디오네트워크' 거점으로 하여 기본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정보' 뿐만아니라 레지던스 운영 매뉴얼 등 다양한 종합정보서비스제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창작스튜디오네트워

100) 박신의, '작업실 지원정책의 유형과 접근의 다양성', 오픈스튜디오 2007 네트워크 사업성과 보고서, pp188~189.



크'역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단체에게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간접 지원 방식이다.

### 3) 국제레지던스 공간 지원 방식의 다각화

예술위원회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과거 문예진흥원 시절의 '미술 창작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사업은 각각 일반 공모사업과 직접 사업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일반 공모사업 형태로는 사업의 기획한 바를 충분히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직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원방식에 있어 독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스튜디오 임대방식'을 제안해 본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문화부의 담당 공무원인 우슬라 헥크씨(Ms. Ursula Heck)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시내 약 40여개의 창작스튜디오를 임대하여 무상으로 작가들에게 빌려주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민간 비영리단체인 아틀리에 프랑크푸르트와 바체스 재단에서는 각각 40개와 120개의 스튜디오를 임대하여 작가들을 지원하는 데, 이들 두 단체를 프랑크푸르트시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sup>101)</sup> 우리나라의 경우, 광주광역시와 광주시립미술관을 통해 양산동의 아파트 중 일부를 임대하여 작가들의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사례가 있다. 사실,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신청한 국내 많은 단체들의 '레지던스'공간과 시설이 해외 레지던스 공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P.S.1이나 독일의 솔로스 솔리튜드(Akademie Schloss Solitude), 쿤스트할레 베타니엔, 네덜란드의 라익스 아카데미 등 몇 군데와 비교해도 시설의 규모나 여건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도 그들처럼 거대한 레지던스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막대한 예산으로 새로운 공간을 짓지 않고도 지역에 방치된 공간이나 비어있는 공간을 임대 혹은 재활용하여 '창작스튜디오'로 만드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예술위원회는 각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간들을 지역 문화 재단에서 직접 임대하거나, 활용하고 자 할 때 협력하여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국내의 많은 유희 산업시설이나 근대 문화유산 등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간 임대와 관리를 책임지고, 예술위원회는 운영비를

101) 2008.11.5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문화부 방문 담당자 우슬라 헥크씨와의 면담 인터뷰.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한, 예술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사미술공간과의 협업을 통하여 사업의 지원 방식을 다각화할 수 있다. 인사미술 공간에서는 레지던스 워크숍, 뮤지엄 애즈 허브, 포트폴리오 콜렉션, 아카이브 프로젝트, 아카이브연구개발 및 관리운영, 홍보물제작, 공간운영과 인턴쉽 제도 등 세부적인 사업들이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진작가수첩’ 프로그램은 국내의 큐레이터 및 평론가들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작가를 육성한다는 점, ‘레지던시 워크숍 프로그램’은 신진작가의 뉴 프로덕션을 해외레지던스와 협업을 통해 추진 한다는 점, ‘뮤지엄 애즈 허브’ 프로그램은 해외 미술기관 간 장기(2년)적 국제교류 및 협력 프로젝트라는 점, 인턴쉽 제도를 통해 기획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력을 실무 진행을 통해 기획자로 육성한다는 점 등 예술위원회 레지던스 전담팀과 협력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공간이 예술위원회 국제교류팀의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된 예는 없다. 하지만, 작게는 국제레지던스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 주요 작가들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해외 소개 사업에서, 크게는 국내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주요 후원, 협력 기관으로서의 예술위원회가 인사미술공간을 통하여 간접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4) 국가 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 강화

2008년 현재, 예술위원회는 국내외 20여개 주요 기관과 다양한 내용의 상호협력약정을 맺고 있다. 상호협력약정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제휴하여 예술위원회와 타 기관 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 기관에서는 서로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그간 예술위원회가 협력약정을 맺은 해외기관은 몽골예술위원회, 중국문학예술연합회, 싱가포르예술위원회 등 예술지원기구와 독일의 쿤스트할레 베타니엔, 네덜란드의 라익스아카데미 등 레지던스 공간 운영 단체<sup>102)</sup>이다.

102) 2008년 10월 현재, 예술위원회와 상호협력약정을 체결한 대상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체결일자	담당부서	체결대상처	체결 제목	비고
외국기관	2006.10.	국제교류팀	몽골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류의향서	
	2006.11	국제교류팀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	문화예술교류의향서	
	2008.7.	국제교류팀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싱가포르예술위원회 간 MOU	



이러한 종류의 협력은 2005년 이후 시작되어 2008년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매우 최근의 현상이며 앞으로 예술위원회는 상호협력약정 방식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 단체는 “레지던스 작가의 각 국 간의 특성에 맞는 교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실질적 국제교류 피드백이 요구됨”과 “전국 미술 창작촌 및 스튜디오와의 네트워크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또한 국내 문화관계자(기획자, 큐레이터, 학예연구사 등)들의 우선적 네트워크의 선행을 요함”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sup>103)</sup>

국내에서 예술위원회가 가지는 예술지원기구로서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세계 80여개의 IFACCA 회원국, ASEAN, Asian Culture Council, ASEF, Ford Foundation, Asialink 등 각종 국제기구와 연대, 협력 관계 수립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Akademie Schloss Solitude(독일), Taipei Artist Village(대만), Ecole du Magasin(프랑스), Rimbun Dahan(말레이시아), Sanskriti(인도), Artspace(호주), Akiyoshidai(일본), Res Artis(국제레지던스협의체) 등 각 국의 주요 국제레지던스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상호협력약정을 맺어 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약정 기관 간에 상호작가교류나 다양한 방식의 협력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구분	체결일자	담당부서	체결대상처	체결 제목	비고
	2005	시각다원예술팀	독일 쿤스트러하우스 베타니엔	문화예술교류의향서	
	2005	시각다원예술팀	네덜란드 라익스아카데미	문화예술교류의향서	

103) (사)민예총 충북지회 2006 동아시아 AIR(Artists In Residence) 창작 네트워크 성과보고서 내용 중

## 제5장

---

### 결론

지금까지 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적 관점에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의의 및 사업 운영 목표를 확인하고,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예술위원회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우수한 해외 예술인을 국내로 초청하여 창작 작업 공간에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참여자간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발한 상호 문화 교류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지역의 시설 운영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창작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을 국제문화예술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의 주요 목표이다.

동 사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예술위원회는 2006년부터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문학, 미술, 공연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 창작스튜디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사업의 주요 대상인 ‘레지던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레지던스의 개념과 역사 및 국내의 레지던스 운영 현황을 살폈고, 조사된 ‘레지던스’ 현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 레지던스 운영 활성화 목표는 예술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략 목표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국제 레지던스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레지던스 공간’ 혹은 ‘창작스튜디오 공간’이 제도화되고, 이들 공간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예술위원회의 중장기적 전략목표 속에서 예술 활동의 중요한 창작기반이자, 레지던스의 핵심 공간인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현실화될 때,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특성화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될 수 있다.

둘째, ‘레지던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 창작스튜디오와 레지던스 공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명칭을 가진 관련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술창작스튜디오, 예술창작스튜디오, 아트 스튜디오, 예술 스튜디오, 문화예술촌, 미술촌, 예술촌, 연극촌, 예술창작촌,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비영리 대안 공간 등 유사한 명칭들이 문화예술계 현장과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범주 내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레지던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 정책대상으로서 기존에 사용해 온 ‘예술창작스튜디오’, ‘예술촌’, ‘예술창작촌’ 등은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 개념이며 ‘레지던스’는 공간이 아닌 프로그램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따라서 공간 개념으로써 ‘레지던스’를 언급할 경우 ‘창작스튜디오’로 가급적 통일하고,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중요할 경우, 레지던스가 아닌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더불어 국내 대부분의 ‘창작스튜디오’가 시각예술분야에 치중해 있지만, 문학의 ‘창작집필실’, 공연예술분야의 ‘창작작업실’도 ‘창작스튜디오’ 개념에 포함된다.

현재 예술위원회 내 ‘창작스튜디오’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없다. 하지만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단체들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분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으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해 가고 있다. 국내의 ‘창작스튜디오 공간’ 자체의 기반은 아직 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에서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의도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특성화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주된 운영 공간인 ‘창작스튜디오’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레지던스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2006년 이후 예술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제 레지던스 공간을 광범위하게 육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이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범위를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넷째, 레지던스 공간의 지역적 위치가 가지는 중요성, 시설 임대나 위탁 운영 등 공간 소유권과 운영 주체의 문제, 전문 프로그램 기획 인력의 존재 유무 등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레지던스 운영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기관 간의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 해당 지자체와의 다양한 협조 방안 개발이 논의 될 수 있다.

최근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성화 사업과 예술위원회의 예술 정책적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협력형’ 사업들이 ‘창작스튜디오’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면 다양한 상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창작스튜디오 등 각 지역의 문화공간운영을 위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고,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있어 지역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협력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지역 문화 예술의 창작 여건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위원회가 확보한 해외 주요 문화기관간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망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예술 단체들에게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 기관 간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사업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이상의 쟁점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예술위원회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청 사업과 지원 대상 사업들의 사업 목적, 입주 작가, 프로그램 현황, 입주 기간과 거주 장소, 사업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많지는 않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본격적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고 소유 주체의 문제로 운영 시설이 불안정하며, 다양한 재정 지원 창구가 부족하여 장기적 전망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둘째, 동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단체들이 국제간 네트워크를 형성, 유지해 가고 있으며, 참여 예술가간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상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예술가 자신들의 창작 작업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전시나 공연으로 발전되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개는 작가와 개별적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며, 기관과 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의한 교류는 부족하다.

셋째, 사업 수행 주체인 국내 민간단체들의 국제 레지던스 사업에 대한 추진 역량이 크게 향상 되었다.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매뉴얼들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전문적인 문화예술기획 및 행정인력이 자연스럽게 양성되고, 지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향상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시 전문 인력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지역민과 지역사회에서 창작스튜디오나 레지던스 공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술위원회의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정책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첫째, ‘창작스튜디오’에 대해 지원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는 문예진흥법 개정 등 법적 제도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법규로는 ‘창작스튜디오’가 문화시설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화시설 외의 시설로서 문화관 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창작스튜디오 공간’ 혹은 ‘예술가 창작 거주 공간’은 ‘병원’, ‘학교’, ‘법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화 생산 공간이다. 예술위원회는 직접적인 법 개정 요구와 더불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예술옹호’ 활동 등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예술가 거주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예술위원회에서는 ‘창작 스튜디오’와 같은 ‘예술창작기반’ 시설에 대한 지역적 의미를 일깨우고, 지역의 삶과 문화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 형성해 나가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둘째, ‘창작스튜디오’를 포함하여 각 지역별로 ‘예술창작기반’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별로 많은 창작스튜디오, 예술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때 기존의 문화적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문화생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예술위원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문화재단등과 협력 사업으로 추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술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 연구 사업을 개발해 볼 수 있다.

셋째,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지원 사업을 ‘지역협력형’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는 전문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향수 사업들은 활발하나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자, 지역 예술인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레지던스나 광역 간 교류’를 통한 문화예술인 교류사업과 ‘광역단위별 예술창작촌 지원’사업을 지역별 지원 희망 분야 중 하나라고 응답하였다.

최근 정부 주도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농촌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술위원회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다. 지역의 ‘창작스튜디오’는 문화 예술적 자원을 생산하는 중요한 지역 거점 공간이므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창작스튜디오공간(레지던스공간)’ 지원 사업을 지역문화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 약정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지역, local)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의 기반을 두텁게 할 수 있다.

미시적인 관점을 다시 직접적 사업 개선 방안과 간접적 사업 개선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예술위원회 내 레지던스 전담팀을

조직해야 한다. 전담팀에서 전략적이고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조직 스스로가 동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창작스튜디오 공간’ 지원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스튜디오 공간’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고, ‘국내(지역, local)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과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창작스튜디오 공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국내의 우수한 ‘창작스튜디오’들을 육성해 내고, 이중 일정한 국제 레지던스 운영 기반과 여건을 갖춘 공간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술가에게 창작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동시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특성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특성화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즉,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사업 수행 시 ‘창작스튜디오’ 운영 주체가 공간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도심과의 지리적 관계 및 공간여건 등을 감안한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특성화 가능성 여부를 지원 심의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엄선한 후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전문적인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제 레지던스 운영 지원 사업을 ‘전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과 ‘프로젝트성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유형으로 양대 구분하고, ‘일회성 단기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들을 ‘프로젝트성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 유형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넷째, 프로젝트성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정기 공모의 형태로 현 상태를 유지하되, 전문적인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운영 주체가 제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예술위원회가 집중 지원하는 기획 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의 추진방식이 불특정 다수 단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 일반 공모의 형식이 아닌, 일정 여건을 갖춘 단체로 신청을 제한하는 기획공모 방식이거나,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여건이 좋은 국내의 우수한 국공립 레지던스 기관과 상호협력약정 등을 통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간접적 사업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상주 레지던스 프로그래머와 기술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문제가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국내에서는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입주 작가의 작업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인력, 그리고 홍보와 기금개발까지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운영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적인 지원과 별도로 ‘레지던스 전문인력’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제 레지던스’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 현장의 전문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창작스튜디오’ 혹은 ‘레지던스’ 공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문 지식과 가능성이 있는 젊은 인력들을 현장에 배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 제공 및 공유 방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들 중 하나는 개별적인 사업 지원에 못지않게 종합적인 소통 창구 혹은 허브(HUB)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위원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국내 ‘창작스튜디오네트워크’나 ‘종합 정보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술 지원컨설팅센터 협력단을 본격적인 ‘창작스튜디오네트워크’ 거점으로 확대하여 기본적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정보’ 뿐만 아니라 ‘레지던스 운영 매뉴얼’ 등 다양한 종합정보서비스제공 창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셋째, ‘레지던스 공간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식’을 다각화한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일반 공모사업 형태나 직접 사업으로 추진한 경우, 각각 사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예술위원회가 창작스튜디오 공간들을 직접 임대하여 무상 제공 하는 등 작가의 창작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식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 마련에 대한 ‘공간 컨설팅’도 도입 가능한 방식이며, 국내의 많은 유휴 산업시설이나 근대 문화유산을 ‘창작스튜디오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충분히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 임대가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간 임대와 관리를 책임지고, 예술위원회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협력형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또한, 레지던스 참여 작가선정, 교육, 전시, 비평 사업 추진 단체에게 컨설팅 지원할 수 있으며, 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의 인턴쉽 제도와 아르코 인력 개발원의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넷째, 베타니언, 라익스 창작스튜디오 사업 등과 같이 국가 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제적으로 새로운 대상 기관을 연중 개발하고 예술위원회와 해외 문화관련 기관 혹은 레지던스 기관과 상호협력약정을 통하여 예술위원회와 타 기관 간의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 사업을 측면 지원토록 한다.



국내 대표적인 민간 예술지원기구인 예술위원회는 각종 국제기구와 연대, 협력 관계 수립을 통해 협력 약정을 맺고, 이들 약정 기관 간에 상호작가교류나 다양한 방식의 협력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다.

결국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국내의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술위원회는 국내의 유력한 ‘국제 레지던스 공간’이 스스로 국내외 작가의 거주 및 작업 시설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레지던스 기관 혹은 국제적 문화교류 기관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며, 전문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위원회 조직 내 레지던스 전담팀을 만들어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운영을 책임지고 해 나간다면, 이들 방안들은 반향 없는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경기문화재단 (2006), '문화예술인 창작촌 프로젝트'
2. 국립현대미술관 (2006), '제10절 국립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연간보고서(2006 Annual Report)」, pp229-246
3. 김찬동 (2002), 「미술과 담론」, '국내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
4. 문래예술공단 주최,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주관 (2008.06.05), 「서울 창작환경 정책토론회 -문래동을 중심으로」
5. 문화관광부 (2004),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
6. 문화예술위원회 (2006), 「1998 문예연감」
7. 문화체육관광부 (2008), 《순수예술육성을 위한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8.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2007 문화예술통계」
9. 박상연 등 (2006), 「경기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관 정책 연구」, 경기문화재단
10. 박신의 · 권진규 (2008), 「아틀리에 보전과 활용」, 「해외 창작스튜디오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운영과 유형 토론회 자료집」
11. 박인배 · 전병태 · 홍승찬 (2004),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상주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2. 서성록 · 오광수 (2002), 「우리 미술 100년」, 방일영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 3, 현암사.
13. 성완경 (2007), 「2007오픈스튜디오네트워크 사업성과보고서」, 'OPEN STUDIO NETWORK' 추진위원회
14. 신혜인, (2006), 「국제 춤교류활동의 예술적 경향과 정책현안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
15. 아르코지원컨설팅센터 [online.arko.or.kr](http://online.arko.or.kr)
16. 안태호 (2004), 「문화외교적 측면에서 본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발-해외주재 한국문화원의 매개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경영대학원
17. 양건열 등 (2004),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18.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7), 「아시아아트플렉스-아시아공연예술기초실태조사(1)」, 「아시아공연예술지원기관 및 공연예술 레지던스 기관현황」
19. 오성희 (2002), 「아트스튜디오 개념, 유형, 실태, 전문가양성, 제도 정립, 특성화, 지역산업, 사회와 연계, 재원」, 「아트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지원정책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예술경영대학원
20. 월간 「판」 지 (2008), 2008.1-4월호 합본(vol.2/3)
21. 제1기 소위활동 보고서
22. 최관호, (2006), 「한국미술창작스튜디오의 현장성과 활성화」, 석사학위논문, 홍익대 미술대학원
23. 최원정 (2007), 「공연예술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경영대학원
24.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창립학술대회 및 창립총회 (2008.05), 《통합, 융합의 코드로 본 21세기 문화예술경영의 새로운 지평》, 서울역사박물관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기 경영목표(2008~2010)」

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유럽의 주요 문화예술 활동 기초조사 및 교류기반 구축방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년 정책연구보고서」
2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단기 전략계획 :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ARKO-비전-2010)」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6), 「지역문화예술지원실태조사」
2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5), 월간 「문화예술」 2005년 4월호
30. 허윤선 (2005), 「국내 미술창작스튜디오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